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38 / October /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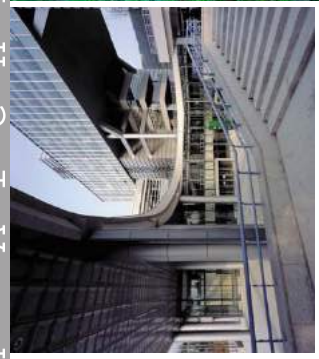
0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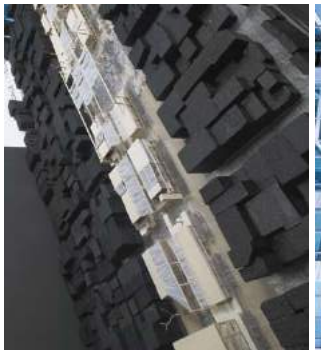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korea@kira.or.kr
http://www.kira.or.kr

표지사진 _ 2005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건축사

Korean Architects





건축사 2005 / 10

대한건축사협회발행. 2005년 10월호 통권 438호

Contents

97

97

98

건축사
Korean Architects

차례 2005 10 438호

칼럼	건설업체의 설계겸업 요구에 대한 견해	한창섭	16
건축만평		유원재	20
특집_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21
	준공건축물부문		
	대 상_ 달성군청사		36
	타워팰리스 III		44
	본 상_ 배제대학교 예술관		52
	대치 동부센트레빌		58
	우수상_ 보현빌딩		64
	옥계휴게소		70
	수입777		76
	A House with Three Courts		82
	계획건축물부문_ 금상, 은상, 동상		90
현상설계	서울시청사 증 · 개축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등		96
기고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련 제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전주영	112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김병선	114
건축마당	협회소식		118
	건축계소식		120
	건축상담		127
	통 계		128
	해외잡지동향		130

발 행 인 이철호
편 찬 위 원 장양순, 손기찬, 유원재, 박호견, 이관직, 이종훈, 신호근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 편 번 호 137-857
전 화 대표 (02)581-5711~4
팩 시 밀 리 (02)586-8823
인 터 넷 http: //www.kira.or.kr
인 쇄 (주)영림인쇄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월간 "건축사"는 한국건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98

99

100

Korean Architects

Vol. **438**
October 2005

Column
An opinion of the construction company's request for its participation in building design market — Han Chang-sup — 16

Cartoon — Yoo Won-jai — 20

Special issue_ Korean Architecture Award 2005 — 21

Prize Works - Professional Part

Grand Prize_ Goverment Buildings in Dalseong-gun — 36
Tower Palace III — 44

Superior Prize_ PaiChai University, College of Arts, Architecture and Music — 52
Daechi Dongbu Centreville — 58

Winning Works_ Bohun Building — 64
Okgye Service Area — 70
Su-ip 777 — 76
A House with Three Courts — 82

Prize Works - The Submitted Part — 90

Competition
Idea Competition for Design of The Seoul City Hall — 96

Feature
What is happening to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ior air quality of apartments? — Jeon Ju-yeong — 112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 Kim Byeong-seon — 114

Architects' Plaza
Kira news — 118
Archi-Net — 120
Question & Answer — 127
Statistics — 128
Overseas Journal — 130

Publisher Lee Chul-ho
Assistant Editor Chang Yang-soon, Sohn Kee-chan, Yoo Won-jai, Park Ho-gyun, Lee Kwan-jick, Lee Jong-houn, Shin Ho-guen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한창섭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장
by Han Chang-sup

건설업체의 설계겸업 요구에 대한 견해[1)]

An opinion of the construction company's request for its participation in building design market

건설업체의 설계업 개방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다. 97년 규제개혁 바람이 불 때도 일부 건설업체에서 이를 요구해 와 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한 건축사도 자기 집은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건설업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옥은 건설업체에 속한 건축사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마무리 지은 적이 있다. 그 후 8년이 지나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중의 하나로 이 문제가 다시 제기 \되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많은 건축사들과 논의를 하고 그 의견을 들어 보았으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으며, 건축사 중 일부는 오히려 다량 배출된 건축사의 취업문제를 다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동의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건축사협회의 공식입장은 절대 반대 입장인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그동안 건축정책을 담당해 온 입장에서 이 사안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고자 한다.

건설업체의 요구배경

먼저 건설업체에서 다른 선진외국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이러한 요구를 하는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웃나라 일본이 제한적으로 민간공사에서 건축설계를 건설업체에 개방한 데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개방배경을 보면 다른 유럽국가 등과는 달리 일본은 과거와 동일하게 시공과 설계가 분리되지 않은 4년제 학제로 교육을 받고, 시공을 포함한 일정 경력을 가진 자에게 건축사취득 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시공과 설계가 차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소득과 문화적 가치관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그 기능과 경제적인 면만 중요시되고 미적 가치는 도외시되어 온 점에 있다. 결국 건축설계 산업은 무시되었고, 설계가 디자인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만 강조된 결과로 시공사가 설계를 하겠다는 발상이 나오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국내에서 건설업체가 대형화되면서 사업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수단으로 타 영역의 업무를 흡수하는 데 있다.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주장과 건설업이 활성화 되어야 인력고용 등 내수진작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그것이 종종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1)본 견해는 소속된 기관의 견해와는 무관한 필자 개인 견해 임

시공사에게 자신의 사옥에 대한 건축을 허용한 것은 자신이 건축주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건물의 설계를 허용한 것으로서 설계 및 감리 등 건물의 품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한 건축사에게도 자신의 건물은 설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허용한 것이지 겸업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설계겸업 주장에 대한 견해

시공사에게 자신의 사옥에 대한 건축을 허용한 것은 자신이 건축주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건물의 설계를 허용한 것으로서 설계 및 감리 등 건물의 품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한 건축사에게도 자신의 건물은 설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허용한 것이지 겸업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건설업체에서는 건축설계 법인의 대표자를 반드시 건축사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법인의 대표자는 건축사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문을 갖는다.

건축설계를 주관하여야 하는 대표자인 건축사가 설계는 않고 영업활동만 하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하는 대표자는 경영자 등이 하고 건축사는 설계에만 전념하는 것이 설계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건축사법에서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게 한 취지는 건축설계가 기술과 예술이 복합되어 작품을 창작하는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자본가나 경영자 등으로부터 작가의 창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경제적으로 영업 이익을 우선시 하는 기업의 생리에서 볼 때 기업에 최대한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할 것이다. 또한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에서 모든 설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지게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대표가 되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시공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제한이 "턴키공사에서 불합리성을 유발"시킨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불합리성이란 아마도 2~3개 업체가 설계도서를 준비하여 입찰을 참여하는 데, 낙찰된 업체야 문제가 없지만 경쟁에서 떨어진 나머지 업체는 쓸데없이 설계비만을 낭비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설계를 하면 당첨이 될 텐데 건축사사무소와 조인트(joint venture)하여 설계수준이 저하된다고 판단하는 지도 모른다.

국내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 중 그런대로 설계가 기능적으로나 미적으로도 세련된 건축물이나 교량 등이 턴키로 발주된 공사이다. 건축사사무소도 턴키 참여시 낙찰되면 문제없지만 원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타사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품질의 설계를 해야 한다. 그것은 건설업체의 경우와 같다. 건축설계가 무시되는 현실에서 건축사가 유일하게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이기도 하다. 이렇듯 턴키제도가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데도 설계수준의 저하 등을 우려하여 건축설계분야마저 시공사가 가져간다는 발상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최저가 낙찰의 경우 낙찰률이 예정가의 78% 이하의

시공기술이란 구조적으로 완성된 도면화된 디자인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단시간 내에 요구하는 품질의 구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공법이 디자인을 좌우하는 등의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시공사의 특성상 시공편의를 위하여 원(原)디자인을 무시하고 시공하기 좋은 형태의 설계변경을 통해 값싼 건축물을 만들어 낼 것이다.

수준인데 비하여 턴키입찰의 경우 낙찰률이 90% 이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시공사는 턴키에 참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기는 하지만 경쟁률이 몇 십대 일에 달하는 다른 입찰제의 경우와 비교하면 턴키입찰은 많아야 4개 업체 이내이고 투자한 만큼 낙찰시 수익도 높다. 그런 만큼 건설업체의 설계겸업 요구는 대형업체라는 이유로 또 다른 영업이익을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주장에 불과하다. 오히려 턴키공사의 낭비요인은 설계비의 수배에 달하는 수많은 심의위원, 평가위원 등의 주기적 관리와 과다설계 요구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화작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공과정에서 개발된 기술과 공법이 설계에 원활히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건설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건축물은 엔지니어링과 시공기술을 바탕으로 그것이 디자인과 결합하여 구성되는 피조물임에 틀림이 없다. 아무리 아름답게 디자인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구조공학적으로 지탱하지 못하고 시공하기 불가능하다면 건축물로 형성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공기술이 디자인에 반영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공기술이란 구조적으로 완성된 도면화된 디자인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단시간 내에 요구하는 품질의 구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공법이 디자인을 좌우하는 등의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시공사의 특성상 시공편의를 위하여 원(原)디자인을 무시하고 시공하기 좋은 형태의 설계변경을 통해 값싼 건축물을 만들어 낼 것이다. 시공사의 편의적 발상이 이러한 주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공업체의 특성상 이익이 된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변경도 쉽게 하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국내 건설업체의 기술력은 기술선진국의 70%[2] 수준이고,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최근에야 건축디자인의 중요성이 인식된 국내 설계기술력은 67% 정도로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건설업체에서 설계수준의 향상을 위해 건설업체에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 단지 시공사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의 설계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되, 그 요건으로서 **일정 수 이상의 건축사를 두고,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시공사가 시공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설계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일정 수 이상의 건축사 확보가 가능한 일부 대형건설업체에 한정하여 허용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건축사를 확보하면 허용해야 한다. 국내 건설산업이 2~3개의 대형건설사의 편의

2) 건설산업의 선진화전략 p15, 건설교통부 발간, 2004.12

건설업체에서 건축설계 겸업을 요구하는 명분은 어찌되었던 간에 건축설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설계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설계발전을 저해하고 부작용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 임직원 몇 사람의 주장이 자칫 국내 설계산업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와 억지 주장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될 수는 없다. 위의 제안에 대해 결국 건축물 규모별 건축사 수를 차등화 할 것을 일반 소규모 시공업체가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 선진 외국 어디에서도 시공사가 설계겸업을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나라가 없다. 일부 대형건설사의 주장으로 자칫 국내 건축설계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이다. 시공사가 설계를 겸업하며 현실적으로 예정가의 80% 미만으로 계약하는 상황에서 건축주에게 설계비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건축주(client)는 싼값에 짓기 위해 시공사를 찾을 것이고 순수한 건축사사무소는 소멸될 것이다.

기타 **해외 입찰시 시공사에 설계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내 설계경력이 필요하고, **CM으로 진출하기 위해 설계겸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의 경우 시공과 설계겸업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공사에게 설계경험을 요구하는 입찰공고를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없다. 시공사에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CM은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CM사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지 CM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이 아니다. CM의 노하우는 자금조달(financing)과 엔지니어링에 있는 것이지 설계를 직접 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체에서 건축설계 겸업을 요구하는 명분은 어찌되었던 간에 건축설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설계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설계발전을 저해하고 부작용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 임직원 몇 사람의 주장이 자칫 국내 설계산업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최근 WTO의 기술자격에 대한 국제적 인증문제로 우리의 건축사를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미 건축학제를 5년제로 변경하고 시공과 설계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다. 내년이면 첫 졸업생이 나오고 이미 수많은 대학이 학제를 변경하여 총원이 3천명 수준에 이른다. 건축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요건도 앞으로는 시공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설계경력만 인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개편과 자격 취득요건의 개선으로 장래에는 국내 건축설계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국에 널려있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을 보면 전문가가 설계하여 지었다고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 이유야 많겠지만 전문가로서 양심껏 설계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가 이러한 논란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건축사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이러한 논란이 다시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요즘의 덤핑수준의 설계계약과 설계수준을 볼 때 변경된 5년제 건축학과에서 청운의 꿈을 안고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

특 집

Special Issue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05

'건축은 문화'라는 대명제 아래 이 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을 선정하는 2005한국건축문화대상의 영예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국내 준공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한 준공건축물부문에는 총 88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이상림 · 강희성(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함종관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남양)가 공동 설계하고 현대건설(주)과 화성산업(주)이 공동 시공한 「달성군청사」가 비주거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박 승(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사와 S.O.M이 공동 설계하고, 삼성중공업주식회사와 삼성물산(주)이 공동 시공한 「타워팰리스Ⅲ」가 주거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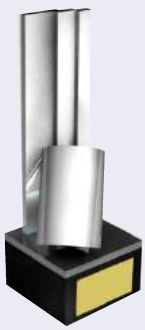
작품성, 창의성, 친환경적 구현과 공공성 그리고 건축 관계자들의 열의와 시대적 소명감 등을 고려해 심사한 심사위원단은 달성군청사를 "시각적 투명성과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서 고려된 광선 처리가 공간을 유쾌하고 친근하게 만들어 건물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인 작품"이라 평하였으며, 타워팰리스Ⅲ는 "정리되고 세련된 외부와 내부 공간, 명쾌한 동선 처리,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초고층구조기술, 건축음향적 고려 등으로 건물의 건축적 가치뿐만 아니라 상업적 가치도 더욱 높인 작품"이라고 평하였다. 이밖에도 「배재대학교 예술관」과 「대치 동부센트레빌」이 본상을, 「옥계 휴게소」를 포함한 4작품이 우수상을, 「쌈지길」을 비롯한 15개 작품이 특선을 차지하는 등 총 23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또한 '재래시장'을 주제로 한 일반 및 신인 · 학생 대상의 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 총 142작품이 참여한 가운데 「커뮤니케이션-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계획안」을 출품한 김규태, 유소래, 한재희(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 동대학원 건축공학과)씨가 금상을 차지했고, 은상 2팀, 동상 3팀, 입선 25팀 등 모두 31개 팀이 입상했다.

또 올해로 두 번째로 시상되는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은 전통고택 보존운동을 통하여 건축문화의 본질을 알리고 건축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수상자로 선정돼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공로상에는 한국건축문화대상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장기창 건설기술혁신기획단 단장과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이 선정됐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는 대상 두 작품에 대통령상, 본상 두 작품에 국무총리상, 우수상 4작품에 건설교통부장관상, 특선 15작품에 대한건축사협회장 · (주)서울경제신문사장상(공동명의)이 각각 수여됐다.

계획건축물부문의 금상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과 상금이, 은상과 동상, 입선작은 대한건축사협회장상과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아울러 동상이상 수상자 중 영어 인터뷰 심사를 거쳐 2명을 선발, 아카시아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전이 주어진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그동안 기성 및 예비 건축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는 물론 우리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대표 건축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편집자 주)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트로피

트로피의 구성은 건축적 조형 요소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수직의 벽면과 원기둥, 곡선과 직선 등 건축 조형언어의 상징적 만남은 공간을 다양하고 긴장감이 있는 구성물이 되게 한다.

디자인 : 정보원(Chung Bo-won)
서울대 미대, 빠리 국립 장식미술학교, 빠리 국립 미술학교 제6건축학교 졸업. 아카데미 드 빠리 주최 '1982년 훼네옹 상' 공동 수상, 끄레르 몽훼랑(Clermont Ferrand) 미술 축제 '회화상' 수상, 제6회 대한민국 환경 문화상 환경 조형 부문 수상. 서울 88올림픽 성화 도착 기념 조형물, 대한민국 국회 개원 50주년 기념 조형물, 삼성전자 30주년 기념 조형물 등 제작
email. chungbowon@kornet.net

상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제정배경

–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은 문화」라는 대명제 아래 '건축의 대중화'를 추구함으로써 우수한 건축물이 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건축의 정통성과 현대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 이 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아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기본취지로 지난 92년 건설부와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제정함.

– 제3회('94) 행사부터는 지난 1971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단독 개최해오던 「한국건축전」과 통합을 이뤄 민·관·언론이 공동 시행주체가 되는 건축 분야의 대표적 전시·시상행사로 발전.

목 적

-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우리 건축물의 인간중시, 환경과의 조화 구현
-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발굴 및 창작의욕 고취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지난 96년 제5회 때부터 본상 이상 수상자중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대통령상 등 정부포상을 수여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건축상 제도 중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발돋움함.

역대 주요 수상작(준공건축물부문)

	대 상	본 상	우 수 상
제1회 (1992년)	한샘시화 공장	삼성종합연수원 창조관 호텔 현대, 분당시범아파트단지 현대아파트, 연남동주택	–
제2회 (1993년)	헌법재판소	국립부여박물관, 이화여대 공관 학동수졸당, 부산서대신동주택	–
제3회 (1994년)	민정학원	아주대병원, 예닮교회 SBS등촌동 스튜디오, 포이탑빌라	엑스포아파트 전쟁기념관
제4회 (1995년)	포스코센터	경희분당차병원, 쌍용주타증권 사옥 홍천휴게소 팜파스 삼성국제경영연구소	수원선경도서관 토월대동아파트 삼성동 현대빌라
제5회 (1996년)	대법원 청사	분당 주공아파트, 태평양파크빌라트 신내지구 9단지 아파트 수원야외음악당, 진로쿠어스 공장 용문청소년수련원	–
제6회 (1997년)	LG화학 기술연구소	삼청동주택, 분당 집합주거 웨스틴조선호텔 빌라 코오롱타워, 블루힐백화점 국민생명미래연수원	–
제7회 (1998년)	울산현대예술관	고려포리머 사옥, 김옥길기념관 오크밸리 리조트, 씨네플러스, 이태원 다가구주택, 백남학술정보관	–
제8회 (1999년)	(해당작 없음)	양산 컨트리클럽하우스 두산타워, 구산타워 국민의료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민대학교 국제교육관 부산 당감지구 주공아파트, 임거당	–
제9회 (2000년)	교원그룹연수원 – 게스트하우스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 웰콤시티, 동아미디어센터 미제루, 영동군보건소, 서미갤러리	–
제10회 (2001년)	의재미술관	가나안 교회 천주교인보성체수도회 전주성당 용인 삼성생명 노블카운티 대구달성 명곡 주공아파트 은평구립도서관,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
제11회 (2002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수원시연화장, 코리아디자인센터 부산아시아드 경기대회 선수·기자촌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기흥상갈 금화마을 원당성당, 중부대학교 건원관	–
제12회 (2003년)	시몬느 사옥	분당 C-11-4-12 광명철산지구 주공아파트 춘천두미르 군인아파트 동부금융센터, 매스메스에이지 포스코역사관	–
제13회 (2004년)	광주광역시청사, 아이파크 삼성동	KT여의도빌딩, 한성대학교 도서관 현대해상화재보험 광화문사옥 용인신간 새천년 주거단지, 연하당 광장 11차 현대홈타운	–

역대 응모작 및 수상작 수

* ( )숫자는 입상자수

부문 \ 년도		1회('92)	2회('93)	3회('94)	4회('95)	5회('96)	6회('97)
준공건축물부문		99점(18)	40점(18)	81점(28)	76점(24)	75점(33)	63점(22)
계획건축물부문	신인부문	–	–	15점(10)	16점(9)	236점(45)	304점(36)
	학생부문	–	–	127점(29)	179점(38)		

부문 \ 년도	7회('98)	8회('99)	9회('00)	10회('01)	11회('02)	12회('03)	13회('04)
준공건축물부문	72점(22)	52점(25)	62점(26)	78점(24)	67점(20)	90점(21)	89점(22)
계획건축물부문	322점(30)	–	26점(13)	123점(33)	128점(25)	263점(28)	252점(28)

준공부분 | 대상

달성군청사(비주거부문)/ 이상림, 강희성, 황종관

타워팰리스 Ⅲ(주거부문)/ 박 승, SOM

준공부분 | 본상

배재대학교 예술관(비주거부문)/ 박인수

대치 동부센트레빌(주거부문)/ 김종국

준공부분 | 우수상

보헌빌딩(비주거부문)/ 김자호

준공건축물부문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5.1~7.18
- 접수 : 7. 18(월)~7. 19(화) 09:00~18:00
  장소 : 대도벽돌 전시관
- 심사 : 7. 29(1차 사진첩심사)
  8. 11~8. 12 (준공건축물부문 2차 현장심사 – 수도권)
  8. 17~8. 18 (준공건축물부문 2차 현장심사 – 지방)
  8. 20 (준공건축물부문 최종심사)
- 시상식 : 10.27 15:00
  장소: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
- 수상작전시 : 10.27~11.1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전시실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2003년 6월 1일부터 2005년 6월 17일 사이에 국내에 준공된 주거용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 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 단, 리모델링 건축물은 증축 · 개축 · 대수선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임시 사용승인 된 건축물은 응모불가.
- 응모자격 : 응모작품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로서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

시상내용

상명 \ 시상내용		설 계 자	시 공 자	건 축 주	비 고
대상 (2점)	비주거 건축물	대통령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대통령상 건축물부착용 명판	
	주거 건축물	대통령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대통령상 건축물부착용 명판	
본상 (2점)	비주거 건축물	국무총리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물부착용 명판	
	주거 건축물	국무총리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물부착용 명판	
우수상 (2점)	비주거 건축물	건설교통부장관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물부착용 명판	각 2점
	주거 건축물	건설교통부장관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물부착용 명판	각 2점
특 선(다수)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주)서울경제신문사장 상 트로피		대한건축사협회장 (주)서울경제신문사장 상 건축물부착용 명판	

나. 주요 출품규정

- 작품설명서, 건축물사진, 설계도면 등이 수록된 B4 규격의 사진첩 2부
- 건축물대장 1부
- 설계자 · 시공자 · 건축주 소개서 1부 / 외국사 참여작품의 경우 관련사실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패널 제출일은 추후 별도 통보

심사

가. 심사방법

- 1차심사 (사진첩심사) : 현장심사 대상작 선정
- 2차심사 (현장심사) : 현장 대상작 심사
- 최종심사 : 입상작(대상 · 본상 · 우수상) 선정

나. 심사위원

이범재 / 단국대학교 교수(심사위원장)
김광욱 / (주)동양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상식 /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민선주 / 연세대학교 교수
이기범 / (주)도시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영수 / 홍익대학교 교수
정진국 / 한양대학교 교수

수상자 명단(작품명/설계자/시공자/건축주 순)

■ 대상(대통령상)

- 비주거부문
  • 달성군청사 / 이상림(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 현대건설(주), 화성산업(주) / 달성군수
- 주거부문
  • 타워팰리스 Ⅲ / 박 승(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

준공부분 | 특선

옥계 휴게소(비주거부문)/ 이충기

A House With Three Courts(주거부문)/ 유 건

수입777 (주거부문)/ 이성관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박인수

쌈지길/ 최문규

소) + S.O.M / 삼성중공업주식회사, 삼성물산(주) / 삼성생명보험(주)

■ 본상(국무총리상)

– 비주거부문

• 배재대학교 예술관 / 박인수(주.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 현대건설(주) / 학교법인 배재학당

– 주거부문

• 대치 동부센트레빌 / 김종국(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동부건설주식회사 / 대치주공고층아파트 재건축조합

■ 우수상(건설교통부장관상)

– 비주거부문

• 보헌빌딩 / 김자호(주.간삼파트너스종합건축사사무소) / GS건설(주) / 주식회사 보헌개발

• 옥계 휴게소 / 이충기(주.한메건축사사무소) / GS건설(주), (주)대한 / 한국도로공사

– 주거부문

• A House With Three Courts / 유 건(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상) / (주)자드건설 / 김동연

• 수입777 / 이성관(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 황숙정 / 황숙정

■ 특선(대한건축사협회장·(주)서울경제신문사장 상)

•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 박인수(주.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 (주)현대건설 / 학교법인 배재학당

• 쌈지길 / 최문규(주.가아건축사사무소) / 장학건설(주) / (주)인사사랑

• 국민연금 부산회관 / 박 승, 한종률(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우정건설(주) / 국민연금관리공단

• 삼성미술관 리움 / 박 승(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Mario Botta, Jean Nouvel, Remkoolhass / 삼성물산(주) / 삼성문화재단, (복)삼성생명공익재단

• 한국국제전시장 / 김정철(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이종찬(주.원양건축사사무소), 이상림(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김종국(주.건원종합건축사사무소) / 삼성물산(주), 현대건설(주), (주)대우건설, (주)태영, 대림건설(주) / 한국국제전시장(주)

• SK T-타워 / 김정철(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부대진(주.진아건축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 RAD / SK건설(주) / SK텔레콤(주)

• SK Telecom 대전사옥 / 이의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축) / SK건설(주) / SK 텔레콤(주)

• W 서울 워커힐 / 이영희(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RAD / SK건설(주) / (주)워커힐

• 모새골 성서연구소 / 최동규(주.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 강산건설(주) / 사단법인 모새골공동체

• 한샘 DBEW 디자인센터 / 김석철(아키반건축도시연구원 건축사사무소) / (주)두성PnC건설 / (주)한샘

• 남양알로에 에코넷 센터 / 유석연(hna온고당건축사사무소) / 대양건설(주) / (주)남양

• 임마누엘교회+교육관 / 김승회(주.경영위치건축사사무소) / 제인건설주식회사 / 기독교대한감리회충북연회 청주북지방임마누엘교회

• 구미동 빌라 / 박인수(주.아이아크건축사사무소) / 이연건설(주) / 한평건설(주)

• 자하재 / 김영준(주.건축사사무소 김영준도시건축) / 박찬욱 / 박찬욱

• 혜로헌(慧路軒) / 김효만(이로재김효만건축사사무소) / 심형섭 / 심형섭

심사 총평

올해로 벌써 14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부문에 있어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제도이며, 한국건축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출품된 작품 수는 비주거 부문 64작품 그리고 주거부문 24작품 등 총 88작품이며, 심사방법은 예년과 같이 비주거와 주거부분으로 이원화하여 시상하되 비주거와 주거부문의 작품수를 고려하여 우선 입선 이상의 작품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을 현장 답사하여 그 중 최종적으로 입상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사기준은 작품성과 창의성 및 친환경적 구현과 공공성 그리고 건축 관계자들의 열의와 시대적 소명감 등을 고려하여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심사기준과 방법을 정하였다. 그 결과 사진 및 도면 자료 심사(이하 자료심사)를 거쳐 비주거부문 20작품, 주거 부문 9작품 등 총 29개 작품을 현장 심사대상작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주거부문에 있어 출품작이 적은 관계로 숫자적으로 비주거부문에 비해 심사 대상작이 적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또한 일정상 가능한 범위에서 주거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2개의 작품을 추가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자료심사에 의한 예비심사였기 때문에 선정 대상작품 모두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기로 하고 지

국민연금 부산회관/
박 승, 한종률

삼성미술관 리움/
박 승, Mario Botta, Jean Nouvel, Remkoolhass

한국국제전시장/
김정철, 이종찬, 이상림, 김종국

SK T-타워/
김정철, 부대진, RAD

SK Telecom 대전사옥/
이의구

난 8월 11일 · 12일, 17일 · 18일 그리고 8월 20일 등 닷새간에 걸친 현장방문을 하였다. 현장 선정대상작품 모두 매우 우수한 작품들이고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많은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건축사와 시공자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한 건축주들의 높은 열의와 노고에 감탄하였다.

최종 심사에는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방문의 결과를 가지고 그야말로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일부 작품은 자료심사와 현장 방문과의 시각 차이에 의해 특선작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또한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이번 건축문화대상은 지난번과는 다르게 수상제도와 수상작품수의 변화가 있었는데, 비주거 및 주거부문의 각 부문에 각각 대상1점씩 2점(대통령상), 본상1점씩(국무총리상) 2점, 우수상 각 2점씩(건설교통부장관상) 4점을 선정하게 되었다. 특선으로는 15점이 선정되었다. 이는 예년과 달리 수여되는 포상의 범위가 확대됨과 동시에 또한 수상의 품격이 격상된 것이다. 선정된 특선이상의 작품들이 전국 모든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서 답사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으나, 오히려 1차 자료심사에서 탈락한 작품들도 시간의 제약으로 현장 답사를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 측면도 있었음을 심사위원 모두가 인정하였다.

다만 주거부문의 작품들의 출품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수상작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거부문도 공동주거와 단독주거의 작품이 그 규모나 작품의 질적인 평가에서 격차가 많았던 것으로 논의가 되어 앞으로 공동주거부문과 단독부문의 구분 또는 공동주거부문을 독자적으로 분리하거나 하는 등의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대상을 수상한 타워팰리스 Ⅲ와 달성군청은 다른 작품들보다 건축적인 개념과 창조적 의지가 강렬하였으며, 시공과 건설의 품질도 우수하고 이를 의욕적으로 수용한 건축주의 높은 안목을 심사위원 전원은 이의 없이 동의하고 수긍하였다.

심사위원 모두가 한해의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한다는 자부심과 의무감으로 닷새에 걸친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심사에 동참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긍지를 느낀다. 앞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이 해가 갈수록 더욱 발전하고 높은 수준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한국건축계의 밝은 미래가 도래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타워팰리스 Ⅲ** : 90년 말부터 진행되어 온 주거와 초고층건축과의 결합은 우리 주거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초기의 여러 주거복합 아파트들이 다양한 실험을 하였고, 그 중에서도 타워팰리스Ⅲ는 도심형 고급 주거 복합의 전형을 제시하였다.

금속성 재질의 경쾌한 외피와 요철이 가지는 독창적인 조형성은 거대한 매스가 가지는 무거움을 상쇄하고 기능과 미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단지배치, 외부공간과 자연적인 요소를 도입한 조경 그리고 내부평면은 유기적인 형태를 추구하였고, 탑상형의 단위주거평면도 판상형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다이내믹한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주거복합이 태생적으로 가지는 상업시설의 개방성과 주거시설의 폐쇄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 했던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정리되고 세련된 외부와 내부 공간, 명쾌한 동선 처리,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초고층구조기술, 건축음향 적 고려 등은 건물의 건축적 가치뿐 만 아니라 상업적 가치도 더욱 높이고 있다.

건축계획 시 타워 팰리스 단지(Ⅰ,Ⅱ,Ⅲ) 전체를 연결하여 주민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못한 점, 아파트 출입구로 연결되는 진입보도의 협소함으로 인한 개방감의 결여 등은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지만 브릿지를 통해 양재천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훌륭한 시도로 보인다.

• **달성군청사** : 대구시의 남서 방향에 위치한 달성군은 도시 중심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도시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달성군이 최근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새롭게 대두된 지리적 사회적 조건이며 행정관료 및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달성군청사는 따라서 이러한 입지와 취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적 구체성을 가져야 했다. 실현된 청사는 멀리 혹은 가까이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산자락을 따라 전개되는 선형 건물이다.

말하자면 프로그램은 크게 행정 및 사무 관련 공간과 문화 및 집회 공간으로 구분되지만 하나로 연결된다. 건물의 하부는 금계산 기슭의 경사지가 가지는 지면의 고저 차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며, 반면 건물의 상부는 장대한 규모를 가지면서 주변에 둘러진 산의 형상에 흡수된다. 건물로 인한 자연과의 단절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자연과 인간의 교감의 폭을 넓히고자한 의도가 실현된 것이다.

구조와 형태와의 상응성이나 색채의 선택은 다소 어색하지만, 시각적 투명성과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서 고려된 광선 처리는 공간을 유쾌하고 친근하게 만들어 건물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인다.

W 서울 워커힐/
이영희, RAD

모새골 성서연구소/
최동규

한샘 DBEW 디자인센터/
김석철

•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 남부순환로와 선릉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단지는 타워 형과 판상 형이 결합된 새로운 아파트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을 관통하는 단지 주 보행 축을 따라 진입광장, 분수광장 및 수 공간, 중앙광장 그리고 벽천 마당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머무름이 반복되는 외부공간은 다양하고 변화 있는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지가 남북으로 최고 12m 고저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지의 레벨차를 이용하여 테크식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 지상에 차량도로를 배제하고, 단지 광장을 관통하는 보행로를 중심으로 7개 동의 타워형을 배치하여 단지 개방 감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마치 공원 속의 아파트처럼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단지계획은 이 단지의 가장 강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항시 문제가 되고 있는 1층을 피로티로 계획하여 주민용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전세대가 지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함과 동시에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은 기존 아파트 단지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단지 내부에 최대한 자연을 유입시켜 매우 건강한 환경을 창출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보여 진다.

• **배재대학교 예술관** : 국제교류관과 함께 계획 시공된 건축물로 배재대학교의 앞서가는 건축문화에 대한 의욕이 먼저 높이 평가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문화 수준과 걸 맞는 작품으로서 일반적인 교육 공간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역동적인 공간 구성이 돋보인다. 상부 층으로 연결되는 자유로운 램프와 넓게 트인 필로티, 필로티 하부 밝은 타일 모자이크 마감의 오브제와 함께, 자유로운 리듬의 입면은 건축과 미술, 공예학과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절제와 유연함과 조화를 잘 표출하고 있다. 동시에 열린 내부 공간의 다양함이 창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미래 조형문화의 주역들을 배출해내는 현장으로서 본보기가 되어야할 것이다.

• **A House With Three Courts** : 서초구 반포동의 전형적인 도심 주거 블럭의 모서리에 위치한 이 주택은 작가의 제목처럼 3개의 정원(중정)을 갖는 전통가옥의 평면을 활용한 배치개념을 갖고 있다. 내부공간이 3개의 중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마다 2면의 개구부 설치로 실내공간으로 많은 빛을 유입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오후 직사광선의 차단 및 실내공간과 외부조경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이 주택이 갖고 있는 서향에 면한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려는 의도가 돋보인다. 이러한 서향 빛과 대지 건너편 건물과의 시선 차단을 위하여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 경사진 대지의 조경계획은 너무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매우 부유한 환경의 주택이기 때문에 시공성과 내부 인테리어는 매우 우수하며 내부공간과의 교류는 원활하게 하면서 외부로의 노출은 최소화하여 각 실이 면하는 방향은 선택사항이 되도록 하고 있다. 크고 작은 3개의 중정을 통하여 구성되는 공간의 중첩과 풍경의 변화가 매우 돋보이는 작품이다.

• **수입 777** : 설계자 본인의 주택인 이 건물은 너무나 경치가 좋은 북한강변에 면한 주변경관의 수려한 대지조건만으로도 건축적 요소가 충분할 만큼 전형적인 전원의 풍치를 느낄 수 있는 우수한 경관을 가지고 있다. 건축사 본인의 주택이기 때문에 아마도 세밀한 공간까지 손이 간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요소 하나 하나가 세심한 배려가 들어 있다. 통상적인 1층의 거실을 탈피하여 사진 작업 및 벽난로가 있는 홈 오피스를 배치하고, 2층에는 부엌과 거실 그리고 3층에 사적공간인 안방과 손님방이 위치한다. 특히 영화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는 작가의 취미공간을 위한 영화 관람용 공간이라든가 또한 유난히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택 주변을 온통 태우고 있는 개집은 이 집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매우 단순한 박스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매스를 둘로 나누고 그 사이공간을 열어두어 전체 건물을 관통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 곳곳에 조망과 시선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창을 계획하여 공간적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도록 배려된 주택이다. 작가의 개념대로 상, 하, 안, 밖, 전, 후 간의 공간적 소통은 자연과의 소통, 풍경간의 소통, 사람간의 소통을 이루고 있다.

• **보헌빌딩** : 한옥 지구와 경복궁, 창덕궁 등, 역사가 축적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 위치한 보헌빌딩은 전통과 현대와의 사이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고민, 또 그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여실히 드러낸다. 주변의 경관 문맥에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재료와 색채는 신중하게 고려되었고, 공간 조직 역시 전통 건축에서 관찰되는 중정 형식을 취하여 이중의 공간적 두께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유연한 동선과 함께 공공의 도시 속에서 침묵의 사적 공간으로 이끌기에 충분하다.

• **옥계휴게소** : 한반도에서 산과 바다가 곧바로 만나는 곳에 옥계휴게소는 동해의 유명 해수욕장 중의 하나인 망상해수욕장을 굽어보는 곳에 자리

남양알로에 에코넷 센터/
유석연

임마누엘교회+교육관/
김승회

구미동 빌라/
박인수

자하재/
김영준

잡았다. 천혜의 자연 경관이 펼쳐진 이러한 장소에 인공적 구조물을 건설 하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지형에 따라 다소 꺾여 있지만 수평으로 길게 늘어선 옥계휴게소의 건축 형태는 밖(진입 공간), 안(건물 내부), 밖(앞마당)의 연속적 공간 분절을 경험하게 해준다. 여기서 건축은 어디서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적 장치이다.

•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 예술관에 버금가는 역동적이고 조형적인 공간으로 배재대학교를 방문하는 국제교류 학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 질 작품이다. 시원하게 확장되는 로비에서 거대한 높이와 화려한 색조의 기둥들은 진취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 공간 위를 브리지로 가로지르는 공간 경험과 함께 상부에서 외부로 나가 만나는 옥상 정원, 단차를 통한 옥상정원과 캠퍼스 후면부와의 직접 연계, 다시 옥상정원으로부터 건물 전면으로 이어지는 외부 직선계단을 통해 파격적으로 공간을 가로지르는 계획이 인상 깊다. 단지 아이아크의 여러 작품들을 통해 시도되는 건축화된 정원이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쌈지길** : 오랜 시간동안 실험적인 작품들에서만 언급되어왔던 입체화된 골목을 실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기 그지없다. 맨하탄의 구겐하임이 칸딘스키와 함께 던져주었던 신선함을 인사동의 쌈지길이 젊은 작가들과 함께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쌈지 길은 단순한 하나의 건물로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 도시 조직을 입체적으로 재해석한 건축공간과 인사동 걷고 싶은 가로 프로젝트와 우리 젊은 미술계를 꾸준히 후원해왔던 (주)쌈지 기획력의 조화로운 결과로 재조명해 보아야할 것이다. 인사동 길의 사고석, 쌈지길의 전 벽돌, 경사로에 줄지어있는 쌈지의 작가들, 이러한 많은 작은 조각들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어질 우리 전통문화의 하나의 해를 만나는 것이 즐겁다.

• **국민연금 부산회관** : 둥근 원통형의 공간은 도시와 건축이 상호 그 의미를 교환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 공간을 통하여 외부의 모든 것이 내부의 모든 것과 서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대지의 코너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공공의 장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곳을 통하여 내부의 모든 것은 외부에 수렴한다. 각층의 평면은 간결한 결정체인 것 같이 정제되어있고, 그 정제된 공간들은 극히 기능적일 것으로 보여 진다. 기능적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엉성한 구성을 하고 있는 다른 건축물에 대하여 철저한 프로 정신이 통하는 작품으로 보여진다.

• **삼성미술관 리움** : 한남동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리움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술관 관람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3사람의 유명 외국건축가와 삼우설계가 공동작업으로 완성된 작품이다. 렘 쿨하스의 어린이 교육을 위한 공간과 쟝 누벨의 현대미술관 그리고 마리오 보타의 고 미술관 건물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면서도 부지에 잘 적응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남동 문화복합단지라고 일컬어질 만큼 약 12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 끝에 현재 위치에 세워진 건물이고, 각 건물 하나 하나가 우수한 건물이란 점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적인 비즈니스 명소로 조성할 계획을 가진 문화복합단지라는 말에 걸맞게 건축주의 기업 메세나 적인 문화 마인드가 세 거장의 건축가들의 힘에 의해 완성하게 되었다는 점이 우리 건축계에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비록 운영에 대한 반감과 엘리트 지향주의적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일반적인 전리품을 나열하는 미술관의 이미지를 다채롭고 매력적인 장소로 변화시켜 공간의 다원적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하는 점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국제전시장(KINTEX)** : 동북아 경제 및 산업의 신 개척지로서의 야심찬 국제전시장으로 기능하고자 하는 한국국제전시장은 다섯 개 전시홀이 나열되어 그 전체 길이가 삼백 미터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전시 공간이다. 각종 편의 시설 및 서비스 프로그램은 전시 홀에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효율성을 높인다. 그리고 유리와 철을 주요 건축 재료로 선택해서 거대한 덩어리 모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 **SK T- 타워** : 을지로 입구에 세워진 SK T - 타워는 도심의 표정을 재고하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한다.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두께가 얇아지며 살짝 꺾인 건축 형태는 조형적 측면에서 독특성으로 부각되며, 이와 함께 건물 전체를 덮는 유리 외피는 시선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현관을 들어서면 야외 전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방이 적극적으로 개방되었고, 이동통신 사업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전광판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내부와 외부에 적절히 배치되어 시각적 즐거움을 더한다.

• **SK Telecom 대전사옥** : 현대적인 자재를 사

계획부분 | 금상

혜로헌(**慧路軒**)/
김효만

커뮤니케이션-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계획안/
김규태, 유소래, 한재희

계획부분 | 은상

One Market & Four Trees/
이선재, 박은미, 변나향

지역성 해석을 통한 유기적인 Event Scape로서의 재래시장 재생/
김경현. 노대만, 문진아

용하여 전반적으로는 기술적 완벽성과 인간적 친근성을 조화롭게 표현하기 위한 작업의 결과가 바로 이 건축이라고 하겠다. 유리의 매끄러운 표면에서 느껴지는 단아함과 세련성이 있는가하면, 테라스 등에서 목재로 마감한 바닥 등은 인간적인 느낌과 감촉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그동안의 기술의 발전에서의 건축이 가지게 된 정적인 장점과 인간이 항상 추구하여야 하는 인간적 크기와의 배려를 가지는 좋은 건축이라는 의미와 함께, 저층부의 간결한 로비공간 처리들이 뛰어났던 작품이다.

• **W 서울 워커힐** : 도심에서 벗어난 한강변에 도시적 Facade로 하이테크 한 이미지는 새로운 유형의 근교 호텔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한강과 아차산 사이에 자연적 지형과 대지의 고저차를 이해하고, 지하층의 경우 자연채광과 조망을 극대화시키고 어느 위치에서나 자연의 조망을 내부공간으로 관입시키려고 한 노력이 보인다. 야간의 조명은 또 다른 형상의 Facade를 연출하는 창의성이 보이며 개구부의 심플한 Canopy는 명쾌한 인상을 준다. 외관에서는 기존 건물인 쉐라톤 워커힐 호텔의 건축적 Image와 강한 대비감(contrast)을 갖고 있으나, 좀 독선적인 것 같다. 내부에서는 새로운 개념으로 계단식 로비라운지라든가, 어두운 검은 색조를 쓴 엘리베이터 내부라든가, 남녀공용의 화장실, 새로운 Trend를 시도한 객실의 과감한 원색 대비 등은 상대적 생동감을 경험하게 하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 **모새골 성서연구소** : 양평의 깊숙한 골짜기에 위치한 이 연구소는 그 대지의 선정이 중요하였으리라고 상상이 되듯이 적당한 환경에 자리 잡고 있다. 전체가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단아하고 검소한 건축물로서의 의미를 배가하고 있고, 특히 조그마하지만 인간적 척도에 알맞은 크기의 예배당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식당과 숙소 동에는 적절한 유리창과 공간이 어우러져 있어서 단아한 공간과 적당히 어우러진 정적이 이곳의 장소성과 건축의 조화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건축이라고 보겠다.

• **한샘 DBEW 디자인 센터** : 기존 고옥(古屋)과 창덕궁 돌담을 좌우로 잘 정돈된 배치는 주 진입공간이 내부공간과 같은 아늑함을 느끼게 한다. 현대적인 디자인센터의 기능과 강요된 역사문화미관 지구의 전통양식의 외형으로 인한 부조화를 비교적 잘 소화한 작품으로 전통건축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설계자와 건축주의 열정이 돋보인다. 이 건물의 상층부분을 점진적으로 후퇴시켜 주변환경에 순응하게 하고 휴먼스케일에 맞는 친근감과 계단을 오르며 매 층마다 색다른 조망과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비교적 큰 공간이 요구되는 교육 및 연구 전시시설의 외벽을 전부 유리거울로 처리하여 유리면에 투영되는 고옥(古屋)과 돌담과 솟을대문 등을 또 다른 하나의 조형물로 느끼게 하는 설계자의 의도로 보이나 수직 동선과 휴게홀 부분의 완성된 전통양식의 형태와 업무공간 외부의 흰색 Frame으로 된 반사되는 유리면이 서로 이질적인 형상으로 부각되어 투영되는 영상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같다.

• **남양 알로에 에코넷 센터** : 젊은 건축가의 열정과 의외로 차분하고 밀도 있는 결과물의 조화 또는 대조가 아름답다. 더불어 참신한 열의를 믿고 설계를 맡긴 남양 알로에의 건강한 기업정신이 건축물과 함께 드러나는 작품이다. 벽돌의 차분함과 깔끔한 디테일, 이웃 공원과의 친근한 연계, 단순하면서도 획일적이지 않은 내부공간과 함께 기분 좋은 옥상 정원 및 계단식 소공연장이 모두 인상 깊다. 과한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곳곳에서 적절하게 대처한 디자인의 절제됨을 눈여겨보고자 한다.

• **임마누엘교회 + 교육관** :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신개발 지역의 무질서한 환경에서 조용히 교회라는 성스러운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매우 절제된 매스와 질감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임마누엘 교회는 대지 조건 상 도로에 의해 양분된 2개의 매스 즉, 교회와 교육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재료인 벽돌이라는 재질감에 의해 친근감을 주면서도 차분히 대지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는 전면의 입면구성을 압도하는 상층부에 위치한 대예배실로 가기 위한 계단이 매우 인상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물론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1층을 비웠으며, 구조적인 해결을 위함일수도 있지만 대 예배 실을 최상층에 배치함으로써 대 공간에 이르기까지의 전이 공간 역할을 하면서도 절제된 입면에 강한 사선을 제공하며 강한 입구성을 드러내는 계단은 교회의 이미지를 강하게 하면서 더욱 성스러움을 상승시키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최상층의 대 예배 실은 구조적으로도 15m 장 스팬을 사용하여 무주공간을 형성함으로써 한층 더 열린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층부의 솔리드 한 벽돌의 매스와는 다른 비록 반투명이지만 샌드 블라스터 유리를 사용하여 내부공간에 충만한 빛을 받아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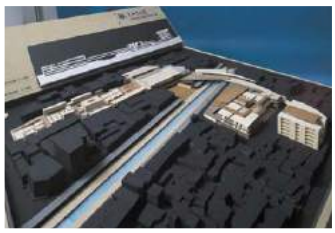
계획부분 | 동상

삼선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안/
이승택

도시속의 경계의 다변/
문준수, 김민호, 박소희

Interactive path/
변성진, 최광헌

계획부분 | 입선



덤, 1+1=3/
남경민, 박종일, 장미선

과 동시에 저녁에는 반투명한 대공간이 외부로 빛을 발함으로써 부유하는 매스의 이미지를 갖도록 계획된 점은 교회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구미동 빌라** : 마치 입체 퍼즐을 접하는 듯 한 새로운 주거 디자인의 결정체라고 하겠다. 최근 주택들에서 방과 정원이 평면적인 퍼즐을 형성하는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면, 구미동 빌라는 삼차원 퍼즐 유형을 대표한다. 주차와 주거 유닛, 자연이 서로 구분되어 정렬된 이전의 집합주거의 틀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한 주거 유닛마다 정원과 데크, 주차 공간이 결합되고 그 개개의 단위가 복합적으로 조합된 입체적인 조직이 새롭다. 처음 접근하는 이에게는 쉽게 파악이 안 되는 공간으로 다가오지만 층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그 공간 구조의 반복성이 흥미로우며, 거주자에게는 개개의 영역이 완벽하게 정립되고 타 세대와 분리되는 특성을 가진다. 기존의 틀을 깨는 주거 유형들이 제시될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디는 작품으로서 의미가 깊다.

• **자하재** : 파주 단지에 있는 이 집은 건축주 2세대가 사는 주거공간인데, 두개의 주거공간이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고민한 것같이 보인다. 자그마한 공간과 공간이 서로 엇물리면서도, 서로의 독립적 성격과 서로의 공통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가는 이 두개의 단위를 아주 절묘하게 얽혀지게 하였다. 노출콘크리트가 주는 솔직함과 질감의 소박함으로서 이러한 기능적 연결은 마당과 건축물간의 대화로 승화되었고, 어디서든지 감지되는 조그마한 조경의 공간은 하나의 공간에 또 하나의 공간이 서로 연이어 있음으로서 주거의 풍부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혜로헌(慧路軒)** : 광주에 위치한 이 주거는 건축사와 건축주의 의견이 비교적 잘 조화를 이룬 건축으로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두 덩어리의 구분이 보이고, 이 구분은 대체적으로는 생활의 구분이 된다. 한쪽은 자녀들의 공간이며, 한쪽은 주인내외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개의 공간이 상당한 독립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중간부분에 소나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테라스와 같은 매개요소를 설치 배열함으로서 두개의 영역이 또한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끔 하였다. 이 건축물의 곳곳에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공간들의 유희는 이 건축물만이 지닌 또 하나의 지적 만족감과 아울러, 공간의 다양함과 즐거움을 제공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다 함께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계획건축물부문 /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5. 1~7. 31
- 접수 : • 1차 작품계획(안)접수 : 2005. 8. 1(월)
  • 2차 패널 및 모형접수 : 2005. 8. 31(수)
  • 접수장소 : 대도벽돌 전시관
- 심사 : 8. 3(1차 작품계획(안) 심사)
  9. 2(2차 패널 및 모형심사)
- 시상식 : 10. 27 15:00
  장소: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
- 수상작전시 : 10. 27~11.1
  장소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전시실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 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 작품주제 : 재래시장
- 주제설명 :
  • 각 지방 도시들의 지역에 적합한 구체적인 장소를 선정
  • 도시, 건축, 구조, 조경, 실내외 환경디자인 등 제 분야에서 계획

오늘날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아마도 지역사회 전체의 문화와 건축과의 관계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래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건축의 사회적 입장에서 안타까움으로 표출되고 있다. 재래시장은 옛부터 지역 주민의 전

나는 미로화된 기억속에서 느껴본다/
김정현, 김지희

Dream of Restoration/
이재성, 정지현

거리중심의 재래시장 커뮤니티의 재활/
강효정, 정효정

머무름이 만들어내는 순간들/
곽상남, 유병민

통문화와 정서가 담긴 곳으로 영세상인들의 고용 기회 제공과 지역경제 및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서민경제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해 왔으나, 근래에 유통산업의 전면 개방과 소비 취향의 급격한 변화와 홈쇼핑 대형할인점등에 젊은 고객들은 몰리고 있고, 재래시장은 중, 장년층의 오랜 단골들만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재래시장은 노후화된 시설과 대중교통 및 자가용의 접근성, 주차 공간 부족, 총체적 경영의 부재 및 서비스 체계의 한계 등으로 고객의 눈길에서 점차 멀어져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최근 재래시장이 지역 서민경제의 안정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과 연구가 지방자치 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들이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반영한 소비행태나 기존 상인들의 재입주 장려책과 기존 재래시장의 지역적 특성 분석이 부족한 채,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의 도로 정비 및 아케이드 설치 등의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재래시장의 본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여건의 특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재래시장의 지역적 개발의 방향과 지역간의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하지 않은 채 재건축재개발 위주의 정책은 일부 시행자와 지주들의 사업이익을 대변할 뿐, 기존 영세상인과 노점상들이 쉽게 정착하지 못하여 또 다른 노점을 찾아다니게 만들뿐만 아니라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건물로 집합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현대화의 모색은 지역도시의 관점에서 재래시장의 기능과 역할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건물시장뿐만 아니라 노점을 포함한 가로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적인 접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재래시장의 개발의 방향도 그 시장의 입지적 특성, 상권구조, 사회적, 문화적 접근, 기존 상인들의 지속적 영업을 고려한 개선 및 계획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도시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역주민적 공공성의 건실한 토대를 꿈꾸어 본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활성화는 전통적인 장소성의 고유한 맥락들을 해체하면서, 단지 물리적인 시장공간의 균질한 형태에서 벗어나 도시민들에게 활기찬 만남의 장소 그리고 문화를 제공하는 도시민들의 진정한 여가와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재인식하여 새롭고 다양한 개발 기법과 재해석을 통하여 지역도시의 전통문화와의 상생의 장으로서 재활하기를 젊은 건축인들의 손을 빌어 기대해본다.

– 출품자격 :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자격 소지자 제외)
- 대학(교) 및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나. 주요 출품규정

– 1차 : 작품계획안 A2(42.0㎝×59.4㎝) 1부
- 아이디어 위주의 전개과정, 설계개념 등을 표현(패널 축소판이 아님.), 작품설명서 1부 (A4 2매 이내)

※ 작품계획안, 작품설명서, 원서의 제목이 동일해야 함.

– 2차
- 패널(가로90㎝× 세 로120㎝) 1매 및 모형 (가로×세로 75㎝×90㎝ 또는 90㎝×75㎝, 높이 75㎝ 이내)
- 1차 작품계획안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패널 및 모형을 제출함.
- 응모작품의 출품자는 3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1작품 참여로 제한함.

심 사

가. 심사방법

– 패널 및 모형 심사

나. 심사위원

손기찬 / 건축사사무소 동이 (심사위원장)

유원재 / 건축사사무소 다건축

이관직 / 비욘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박호견 / (주)건축사사무소 당건축

신호근 / 넥스트 건축사사무소

이종훈 /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상내용

– 금상(1점) : 상금 300만원 및 건설교통부장관상

– 은상(2점) : 각 상금 200만원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동상(3점) : 각 상금 100만원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입선(다수) : 각 상금 30만원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동상 이상 수상자중 대학재학생에 한해 영어 인터뷰심사를 거쳐 2인을 선발, ARCASIA(아시아건축사협의회)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길의 재해석을 통한 재래시장 계획안/
김병진, 김세형, 장창현

평화시장 주변활성화 방안/
조성태, 최선영, 정미애

상생하는 상극/
방기진, 전민석, 강승이

Urban in the Lines/
신동한, 임규섭, 김영수

수상자 명단

■ 금상

- 커뮤니케이션-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계획안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김규태, 유소래 · 동대학원 건축공학과 한재희

■ 은 상

- One Market & Four Trees /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이선재, 박은미, 변나향
- Event Scape-지역성 해석을 통한 유기적인 event scape로서의 재래시장 재생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김경현, 노대만, 문진아

■ 동 상

- 삼선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안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디자인 연구실 이승택
- 도시속의 경계의 다변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문준수, 김민호, 박소희
- 부산서면시장-도시흐름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재래시장의 제안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변성진, 최광헌

■ 입 선

- 덤, 1+1=3 / 동국대학교 건축학과 남경민, 박종일, 장미선
- 나는 미로화된 기억속에서 느껴본다 /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김정현, 충청대학 건축전공 김지희
- 보문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안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재성, 정지현
- 거리중심의 재래시장 커뮤니티의 재활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강효정, 정효정
- 머무름이 만들어내는 순간들 /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곽상남, 유병민
- 길의 재해석을 통한 재래시장 계획안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김병진, 김세형, 장창현
- 평화시장 주변활성화 방안 /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조성태, 최선영, 정미애
- 상생하는 상극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전공 방기진, 동대학 건축학부 전민석, 강승이
- Urban in the lines /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신동한, 임규섭, 김영수
- 자생을 통한 연계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박명재, 이정우, 김영기
- 장소와 장소상실 /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김현수, 박순재
- Incompletion & butterfly effect / 목원대학교 졸업 정현덕, 조덕상, 동대학 건축학과 변희영
- Rhizome-가로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지역주민의 다중참여유도 /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건축설계전공 성재원
- 새터(신촌) 재래시장 재구성 계획안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건축환경디자인연구실 류금영
- 시장-생성과 소멸 / 인하대학교 건축대학원 장재경, 원태용, 동대학 축학부 강대명
- 자생 /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조종민, 김정환, 이종철
- 문화의 연결고리 /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윤순영
- 몽유시장도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남현, 강원형
- 새로운 도시의 레이어 만들기 /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한정한, 이승철
- 사라진 흔적의 재구성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전현경, 가문건축 김 권
- 흐름과 머무름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서현나, 황신형, 황현혜
- 입체가로를 통한 공간의 소통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김태연, 전은수
- 마장동 우시장활성화 방안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정애, 김해영
- 동문재래시장의 재구성 / 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김형건
- 자생(自生) / 인하대학교 건설공학부 송유림, 전경하, 최희경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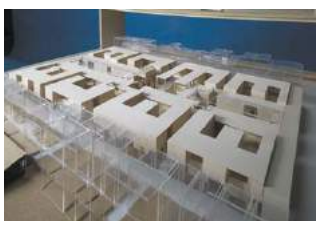
손기찬 / 건축사사무소 동이, 심사위원장

올해의 계획건축물부문 작품주제로 제시된 「재래시장」이라는 테마는 작금의 재래시장이 처한 현실만큼이나 난제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요구되는 테마인 만큼, 예년보다 작품수가 대폭 줄어들긴 했지만 그나마 걸러진 142작품이 접수되어 1차 심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응모자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물론 「재래시장」이라는 구체적 주제에 대한 해석을 놓고 심사에 들어가 2차 심사대상을 선정할 때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완성도보다는 2차 심사 때까지 발전 가능성을 헤아려 그 중 41작품을 선정하였다.

「재래시장」이라는 주제를 건축디자인 대상으로서만 보는 인식이 눈을 흐리게 하였고, 여전히 개념에서 껑충 뛰어넘어 시각으로 이어지는 비약이나 아이디어 이전에 행동으로 나서는 소모적인 무모한 도전은 주제선정의 고심만큼이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였다. 그래서 1차 심사에서의 아쉬운 점과

자생을 통한 연계/
박명재, 김영기, 이정우



장소와 장소상실/
김현수, 박순재

Incompletion & Butterfly Effect/
정현덕, 조덕상, 변희영

Rhizome-가로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지역주민의 다중참여유도/
성재원

함께 1차 심사에서 제시된 패널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2차 심사에서는 자유롭게 주제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심사위원들의 바람을 1차심사후기로서 드러내었다. 2차 심사에 제출된 40작품(1작품 미 제출)은 심사위원들의 바람만큼이나 대부분 1차 제출패널과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시킨 작품들이어서 입선작품을 쉽게 선정할 수 없는 행복한 어려움에 처했다. 그에 반해, 「재래시장」이라는 주제를 벗어나거나 주제의 해법보다 건축 조형적 제안에 탐닉한 몇몇 작품은 오히려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불리하게 작용하였기에 쉽게 배제할 수 있었다. 먼저 각 심사위원마다 탈락 작품을 10작품씩 선정하였다. 과반수이상의 탈락 표를 얻은 작품은 우선 탈락시키고 동수인 탈락대상에서는 재투표를 통해 여러 행사 시행여건을 감안, 아쉽지만 최종 30작품을 입선 및 수상대상작품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심사 전에 마감시간을 어긴 작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 간의 많은 논란 끝에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하되 감점을 주도록 하고, 입선까지만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였다.

다음단계의 심사에서 우선 수상대상 8작품을 투표로서 선정하였다. 선정된 8작품 중에서 동상 3작품을 다시 선정하였지만 수상대상의 상향과 함께 특별히 작품의 우열을 가릴 만큼 월등한 점을 발견하기에는 점점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의견에 심사위원들이 공감하였다. 금상 없이 결정하자는 견해도 제기되었으나 결국 두 번의 재투표를 통해 우열의 의미보다 수상대상 선정으로서의 의미로 금상과 은상을 선정하게 된 아쉬움이 남는 심사였다.

물론 「재래시장」의 해법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매개로 형성되거나 재구성의 지리적 배열이 아닌 그 이상의 사회적 함의를 갖고 있기에 공모의 시간이나 주어진 표현 여건 속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견되었고, 해서 주어진 해답은 없지만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삶과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상호 작용 속에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서로 공유되는 장으로서의 리얼리티에 대한 실험정신의 기대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연히, 제한된 주제의 난제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응모자와 입상자 모두의 노고와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유원재 / 건축사사무소 다건축

우리의 향수 어린 재래시장들이 급변하는 사회의 물결 속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시들어가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건축적 배려만으로 생기를 되찾게 바뀌는 건 어림도 없는 복합적 이 시대의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응모작들이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한 것은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고 좀 더 진지하게 요즘 우리 시장의 문제를 여러 각도로 펼쳐서 보여주었다는 데 많은 의미가 있었다. 학생다운 진지한 접근방법으로 시장의 문제점들을 들여다보았으나 주변 지역과의 연관성을 살피는 단면 검토에 좀 소홀한 점이 있었다. 특히 건축물들이 어떻게 도로와 만나야 하는가를 좀 더 즉물적 안목으로 검토해야겠다. 다시 말해 하천의 흐름에 따라 땅이 침식되고 퇴적되는 현상처럼 도로에서 사람들의 흐름도 같다고 본다. 또 이 도로(혈관)를 따라 이용자가 흐를 것이고, 건축물의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건강하고 지속성 있는 도시가 이루어지겠다.

작품들을 항상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해야한다. 작자의 정보를 정확히 담아내고 한 권의 소설같이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담백하게 들려줘야 좋은데, 많은 응모작들은 애매모호한 흉내를 내고만 있는 것이다. 현란한 수식어를 줄이고 간명하고 투명하게, 무대분장을 지워낸 건강한 도면과 모형으로 학생다운 참신함을 풍기길 기대한다.

이관직 / 비욘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비교적 어려운 주제였다. 재래시장이라는 주제는 각 지역과 도시에 있어서 지역 활성화, 지역주민 경제적 상권의 보호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형화, 현대화되는 자본주의적 경향에 그 생존 전략은 쉽지가 않다. 이번 공모전은 건축적인 접근에 포함하여 지역개발에 있어서 재래시장의 보존 또는 유지라는 한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바란 것이다. 심사의 방향은 재래시장의 본래의 기능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다는 주제의식에 집중했다. 지나치게 형태적으로 제안된 계획안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선택했다.

1차 심사 때는 주제의식이 선명한 계획안(분석적인 작업을 통하여 재래시장의 특성을 찾아내려는 작업들)과 건축적인 제안으로서의 가능성 있는 계획안을 모두 고려한 경우에 가깝다. 2차 계획안 제출에서 발전과 구체화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계획안 대부분은 그러한 기대에 대하여 충분히 진전되었다. 다만, 입선작을 추리고 난 후 6개의 수상대상 작품 중에 금상을 가리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이것은 주제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였다. 건축적인 접근으로서, 주제의식을 가지고 현실적 구체적인 계획안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금상으로 선정된 방산시장을 재계획한 작품은 다른 작품에 비해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에 대하여 비교적 충실한 접근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쉽게 입상권으로 논의된 작품 중에 모델 규격을 지키지 않아서 입선에 머문 경우와 접수

새터(신촌) 재래시장 재구성 계획안/
류금영

시장-생성과 소멸/
장재경, 원태용, 강대명

자생/
조종민, 김정환, 이종철

문화의 연결고리/
윤순영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서 입선 수준으로 제한된 경우가 있었다. 차후에라도 공모전 참가자는 규격과 시간의 문제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이 정리된 것이다.

건축문화대상은 가장 공신력인 있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의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이다. 그럼에도 참가 가능한 많은 학생, 신인 건축가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공개적 진행과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건교부와 함께 특정 신문사와 함께 주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는 홍보를 더욱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건축문화대상 혹은 건축사협회의 위상에 걸맞는 신인작가를 발굴하기위한 공모전이 되기 위해서는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준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신인 건축상이나 건축비평공모전 등을 협회 단독으로 개최하는 등, 기존의 신문사와 건교부의 압력에서 벗어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많은 발전이 있어왔지만 비용과 노력의 효율과 건축계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와 수준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되어야 한다. 그 원칙은 공개주의를 바탕으로 공정성, 독립성이 되어야 한다.

박호견 / (주)건축사사무소 당건축

1차 심사발표 이후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획안들이 높은 완성도를 보여 많은 노력과 정성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심사에서는 계획대상 부지도 각각 다르며, 그에 따라 접근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는 계획안들이었기 때문에 통일된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었고, 각각의 접근방법에 따라 나름대로 최선의 계획안을 도출한 작품들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였다. 입상 작품들이 창의성이나 분위기 연출, 완성도 면에서 타 작품에 비해 비교우위를 보였지만 그 작품들도 각각 형태나 스케일상 주변과의 관계가 소홀히 다루어졌다거나, 단순함만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일 정도로 복잡하게 조작을 했다거나, 단위공간들에만 신경을 쓰고 전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미흡했다는 등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입상작과 입선작의 차이도 상대적일 뿐 어떤 작품의 경우 우수했지만 비슷한 접근방법의 다른 작품과의 비교에 의해 아깝게 입선에 머문 경우도 있다.

1차 심사 후기에서 2차 제출 시에는 '시장기능의 분석보다는 건축적인 결과물(계획안)을 중심으로 구성된 패널'이 좋으리라고 밝히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안 뿐 아니라 계획안으로서 창의성이 돋보이는 안을 기대'한다고 하였는데, 이중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안들에서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진행된 사업들이 왜 그렇게 시행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너무 이상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제 구체화를 위해 기존 상인들을 만족스럽게 다시 수용할 수 있는지, 사업성이 있을 것인지, 토지이용밀도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신호근 / 넥스트 건축사사무소

금상 수상작인「Communication-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계획안」은 방산시장 일대를 재개발한 계획으로 단순하게 건축적 접근보다 시장의 실제적인 물류운송과 소매자, 작업자간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계획하고 모노레일을 각 블록마다 설치하여 물품공급동선을 고려한 점이 돋보였다. 아쉬운 점은 큰 매스의 처리가 다소 미숙한 점이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은상 수상작인「Event Scape-지역성 해석을 통한 유기적인 event scape로서의 재래시장 재생」은 국제지하시장과 연계한 선큰 공간의 OPEN SPACE를 통해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기존 재래시장의 단절된 시장 통로를 VOID의 위계와 상점의 재배열을 통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시도한 점이 신선하게 보인다. 또 다른 은상수상작「One Market & Four Trees」는 기존재래시장의 무질서하고 답답한 공간을 자연의 생태계의 개념을 적용하여 다양한 개방공간의 디자인하였으며, 조형디자인 역시 리드미컬하고 세련된 점이 우수하나 그 기능의 설명이 부족한 점이 다소 아쉽다.

동상수상작인「삼선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안」은 대지의 장소성과 잘 부합되게 선형적 매스를 철골구조로 논리적으로 프로세스를 전개하여 새로운 시장 모형을 제시해 주었다. 다소 보완해야 할 점은 평면계획이 동선을 고려하였으면 좀 더 좋은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 같은 동상 수상작「부산서면시장-도시흐름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재래시장의 제안」은 기존 재래시장의 무질서한 배치를 교차를 통한 보다 매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물의 피막은 내부와 분리하여 내부의 가변성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같은 동상수상작「도시 속의 경계의 다변」은 재래시장을 소매상의 규모별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새로운 시장의 분위기를 제시하였고, 옥외공간 활용도 좀 더 적극적인 대안으로 옥상공원화를 함으로써 도심의 소통적 역할을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최종 심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아쉬운 점은 조형적 디자인과 표현력은 1차 심사에 비해 발전하

몽유시장도/
김남현, 강원형

새로운 도시의 레이어 만들기/
한정한, 이승철

사라진 흔적의 재구성/
전현경, 김 권

흐름과 머무름/
서현나, 황신형, 황현혜

였으나 가장 기본적 도면 표현방법이나 실제적 서비스차량 및 주차동선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사를 통해서 느낀 점은 금상과 은상, 동상과의 작품성의 차이도 심하지 않아 보여 차후 가능하면 입상 작품들은 동일하게 우수상으로 통일하였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 바람이다.

이종훈 /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2차 심사장에 전시된 40개의 작품은 과장되고 표현에 치중한 패널은 사라지고 기본적인 표현에 충실하여 1차에서 제출된 계획내용을 진솔한 태도로 재래시장의 바람직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패널에 담겨있었다. 따라서 1차 심사후기에서 언급한 2차에서 계획안의 발전방향 및 고려해야할 점이 반영되어 있어 심사위원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9개의 작품을 우선 탈락시키고 통과된 31개의 입상작품 중에서 본상 6개 작품은 심사위원이 많이 추천한 작품 순으로 선정되었다. 본상작품부터는 공개토론 후 투표에 의해 본상의 순서가 정해졌다. 공정한 경쟁과 심사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31개 입선작품 중 작품제출 마감시간을 넘겨 제출하여 본상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의 패널과 모형사이를 누비면서 포장 속에 감추어진 허와 실을 구별하고, 우수한 작품 의도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작품의 수준이 비슷하여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본상에 오르지 못한 작품을 다시 한 번 돌아볼 때 안타까웠다. 금상의 명예를 획득한 「Communication-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계획안」의 경우 처음에는 본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금상까지 오르게 된 것을 보면 작품의 우열을 가려내기 힘들었고, 그만큼 심사위원들의 전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뛰어난 작품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작품을 선정하는데 있어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충실히 담고 참신하게 접근하였느냐가 가장 우선되는 작품선정기준이었다고 생각된다. 디자인은 우수하였지만 재래시장의 장소적 공간적 특징이 부족하고 아이덴티티가 떨어지는 안들은 본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그와 같은 선정기준 때문이었다.

제출 작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수평축이 강조된 시장을 계획부지로 정한 많은 안들은 그 축이 주는 장점을 살려 우수한 디자인을 하였다. 그러나 유사 안들이 많아 독창성이 떨어져 보였는데, 작품 「Rhizome-가로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지역주민의 다중참여유도」 등도 그 중 하나였다. 많은 녹지공간을 도입하여 도심공원으로써의 시장의 역할 제안은 좋은 평가를 얻어낼 수 있었지만 도입의 어색함, 현실성 부족 등으로 대부분 본상에 오르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중 돋보였던 안이 「도시속의 경계의 다변」이었을 것이다. 작품 중에는 도시흐름에 대응하는 길(path)로써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자 하는 작품이 많았는데 그 해석 및 표현이 미흡하여 제외되었다. 작품「Interactive path」는 길의 중첩으로 형성되는 공간의 환경조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시장 진출입공간 처리에 무리가 있어 보였지만 해석프로그램이 충실하여 좋은 평가를 얻었다. 디자인의 개념이 우수한 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 「삼선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안」은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Inter-green Tube의 제안은 디자인 창의성이 돋보였는데, 거기에 구속되어 본래 시장의 기능 및 환경여건 등의 고려가 부족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One Market & Four Trees」의 경우 디자인 및 concept process는 돋보였지만 입체모듈 Cubic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및 설명이 부족하여 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재래시장의 이미지 및 기능을 상징화하여 심사위원의 정서를 자극한 안은 「Event Scape-지역성 해석을 통한 유기적인 event scape로서의 재래시장 재생」이었다. 천막구조의 도입은 소박한 역사적 장소적인 기억을 살렸으나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써는 과장된 모습으로 비춰졌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드스터디 및 체계적인 분석 작업 등을 근저로 물류체계를 세우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건축적인 고려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안이 「Communication-방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계획안」이었다. 그러나 물류체계의 구체적인 해결(주차시설 등)의 표현이 부족하였고, 특히 노천극장 등의 오픈스페이스 디자인은 보완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안은 도시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사회 문화 경제적인 측면 및 역사와 장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를 이루기 위한 하부구조인 물류체계 등이 건축 디자인의 바탕에 고려되어야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작품들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그것은 작품 속에 학생들의 건축에 대한 열의와 겸허한 자세 그리고 이를 격려하고 키우고자 하는 선후배와 지도교수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심사위원들은 그들의 작품에 대한 아쉬움을 충분히 달래고 계획작품전의 바람직한 미래의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입체가로를 통한 공간의 소통/
김태연, 전은수

마장동 우시장활성화 방안계획안/
김정애, 김해영

동문재래시장의 재구성/
김형건

자생(自生)/
송유림, 전경하, 최희경

대 상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_ 비주거

달성군청사

Government Buildings in Dalseong-g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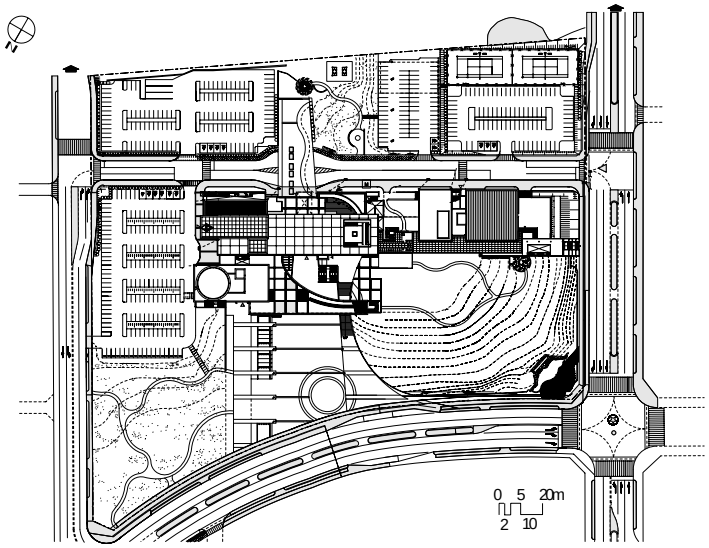
설 계 자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_이상림, 강희성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남양 함종관
시 공 자 | 현대건설(주), 화성산업(주)
건 축 주 | 달성군수

1_ 전면진입광장
2_ 5번국도에서 바라본 달성군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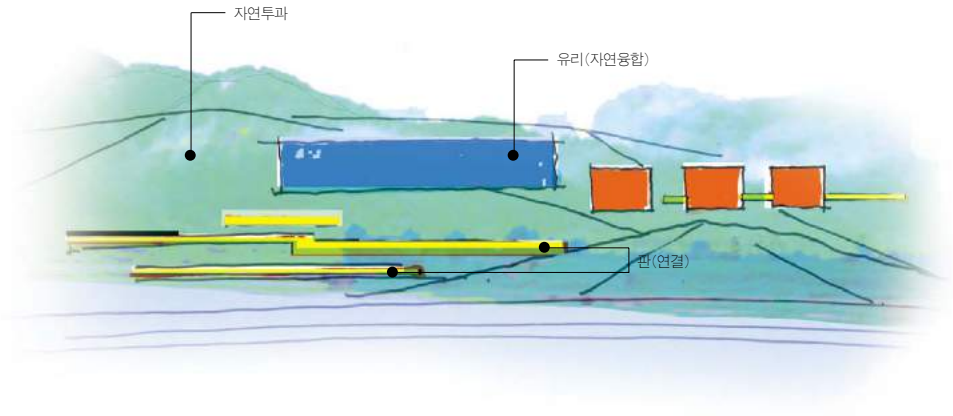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313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용 도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49,793㎡
건축면적	6,769.84㎡
연 면 적	24,406.79㎡
건 폐 율	13.60%
용 적 률	42.38%
규 모	지하 1층, 지상 9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알루미늄시트, 화강석, THK24 로이복층유리
내부마감	비닐페인트, 화강석, 압면흡음텍스, 수성페인트, 비닐계타일
설계담당	박남규, 배연수, 최영희, 조성준, 양민규, 윤태준, 이평주, 이종희, 김미수

● 배치도



Location 1313, Geumpo-ri, Nongong-eup, Dalseong-gun, Daegu, Korea
Site area 49,793㎡
Bldg. area 6,769.84㎡
Gross floor area 24,406.79㎡
Bldg. coverage ratio 13.60%
Gross floor ratio 42.38%
Structure R.C
Bldg. Scale ons story below ground, nine stories above ground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사는 선형적 도시구조에 따른 선형의 청사를 강조하였으며, 전체배치에서도 5번국도에서 바라본 선형성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배치계획은 대지의 특이한 성격에서 시작되었다. 남고 북저의 지형에 남동향의 좋은 향과 북서향의 정면이 상충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대지이다. 그래서 기존의 청사가 가지는 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청사의 모델과 상반되는 이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배치계획의 주안점이었다.

이번 배치계획안은 상반되는 이중성을 해결하기 위해 건물을 띄움으로써 남동향의 좋은 향과 밝은 정면이라는 두가지 장점을 취할 수 있었다. 설계 중 비워진 공간의 공간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토론끝에 정해졌으며, 걱정과는 달리 공사 후 많은 만족감을 가져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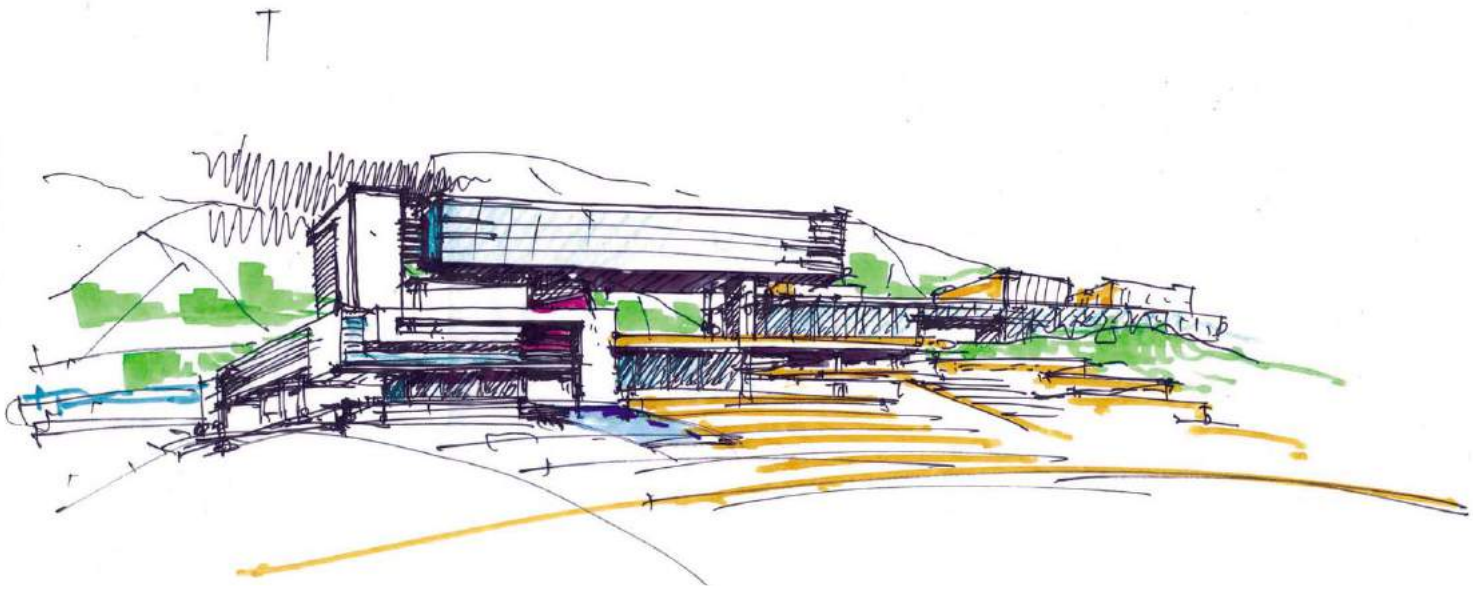
그리고 비워진 공간을 통해 비슬산에서 시작된 구릉이 연속되므로써 다양한 레벨에서 시설과 자연 및 외부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건축계획은 空(자연유입, 중심공간의 입체화), 暎(환경의 투영, 투명한 이미지 창출), 面(행정 · 민원 · 문화 · 복지 · 자연의 복합, 합리적 기능연계), 線(빛과 경관의 유입, 선형도시와 지형에 순응)이라는 네 가지의 디자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였다. 업무공간은 국 단위의 가변적 공간으로, 중심에 홀을 구성하여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정제된 조형과 자연을 융합시켰고, 인공지반을 활용하여 좁은 대지안에서 공간을 입체화시켰다. 적극적으로 보이드 공간을 도입하여 남향 광장을 연결시켰고, 대지 내의 송림을 보존하여 그곳에 야외공연장도 마련하였다. 공공업무시설 외에 주민복지시설과 도서관, 공연시설, 카페테리아 등을 계획하여 군민에게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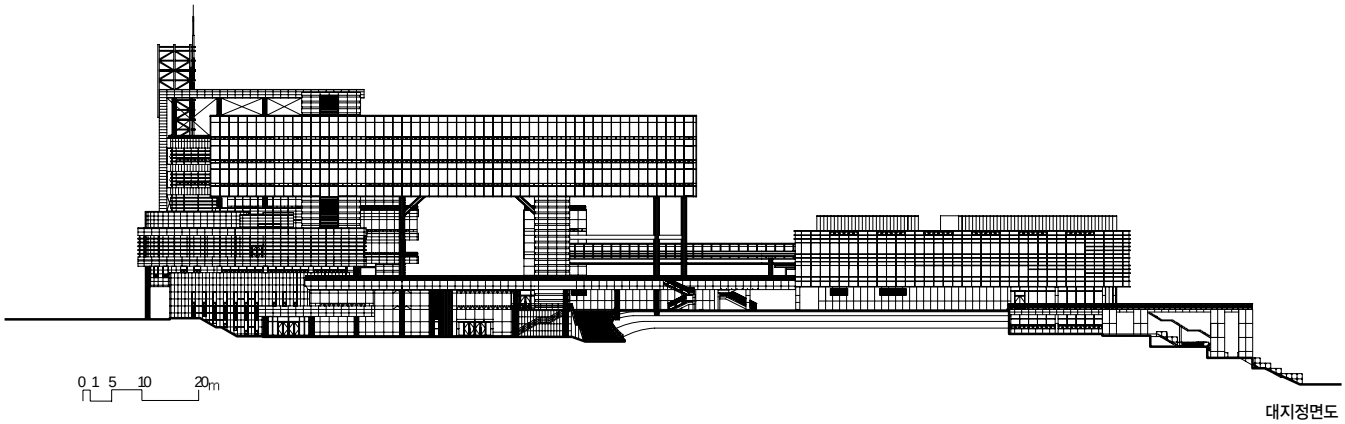
외부공간에 문화복지마당과 하늘마당, 달맞이 언덕 등을 계획하여 자연의 유기적인 연결동선을 확보하고 시간별, 계절별로 다양한 외부공간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연적인 경관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였다.

달성군청사는 지역적 배경을 고려한 중규모 청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달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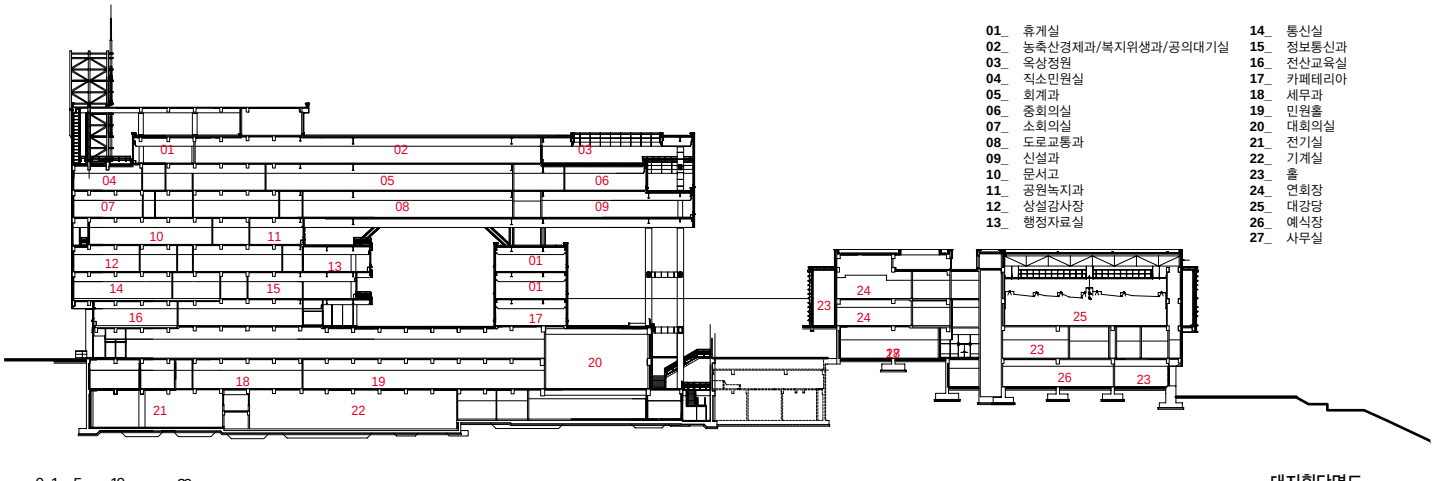


1_ 야경
2_ 배면
3_ 연결브릿지 및 전면광장
4_ 3층문화복지동 앞



대지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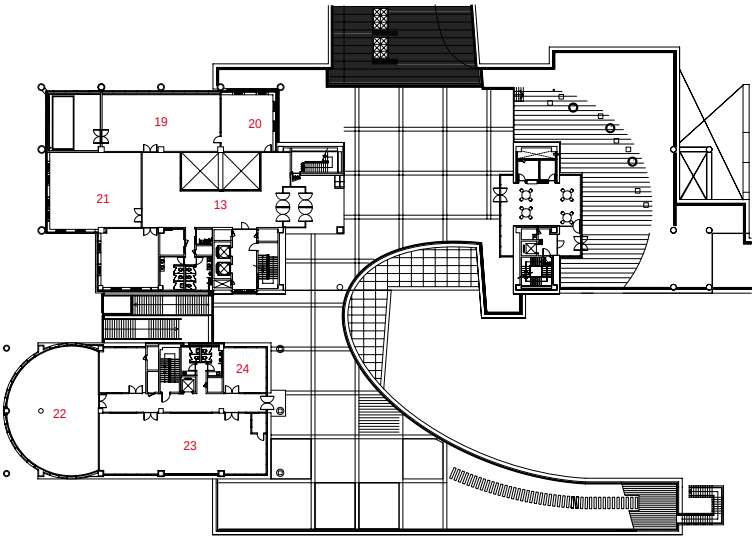
1_ 민원실 입구
2_ 연결브릿지 내부
3_ 옥상정원
4_ 3층데크(하늘마당)



01_ 휴게실
02_ 농축산경제과/복지위생과/공의대기실
03_ 옥상정원
04_ 직소민원실
05_ 회계과
06_ 중회의실
07_ 소회의실
08_ 도로교통과
09_ 신설과
10_ 문서고
11_ 공원녹지과
12_ 상설감사장
13_ 행정자료실
14_ 통신실
15_ 정보통신과
16_ 전산교육실
17_ 카페테리아
18_ 세무과
19_ 민원홀
20_ 대회의실
21_ 전기실
22_ 기계실
23_ 홀
24_ 연회장
25_ 대강당
26_ 예식장
27_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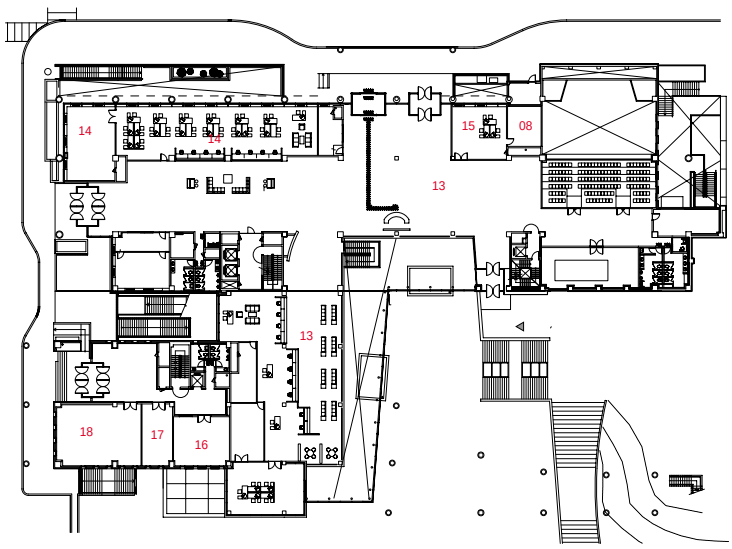
0 1 5 10 20m

대지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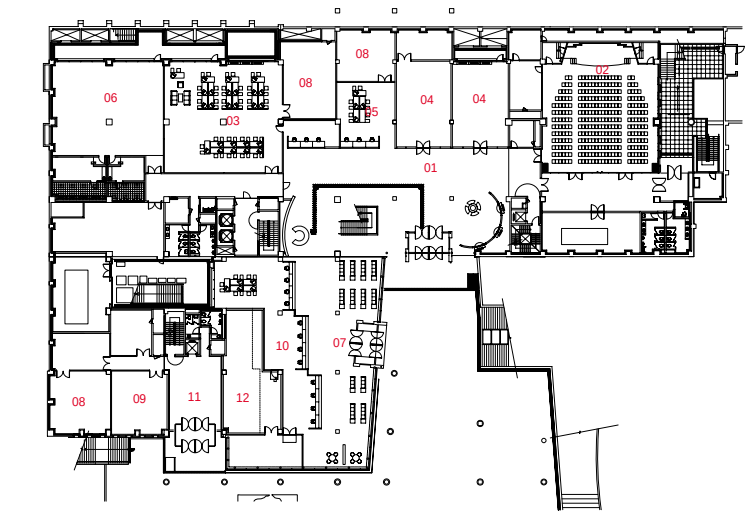


3층 평면도(행정의회동)

01_ 민원홀
02_ 대회의실
03_ 세무과
04_ 금융기관
05_ 사랑등록민원실
06_ 체력단련실
07_ 민원대기홀
08_ 문서고
09_ 자료실
10_ 민원지적과
11_ 의회청사홀
12_ 지적세고
13_ 홀
14_ 허가민원과
15_ 세무전산실
16_ 전문위원실
17_ 주민홍보실
18_ 의원 사무과
19_ 전산실
20_ 운영실
21_ 전산교육실
22_ 의원사무실
23_ 소의회의실
24_ 특별위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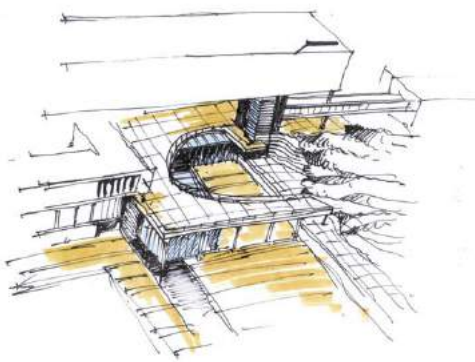


2층 평면도(행정의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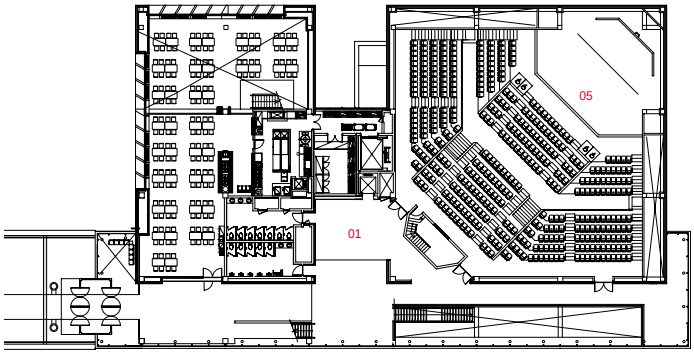


0 1 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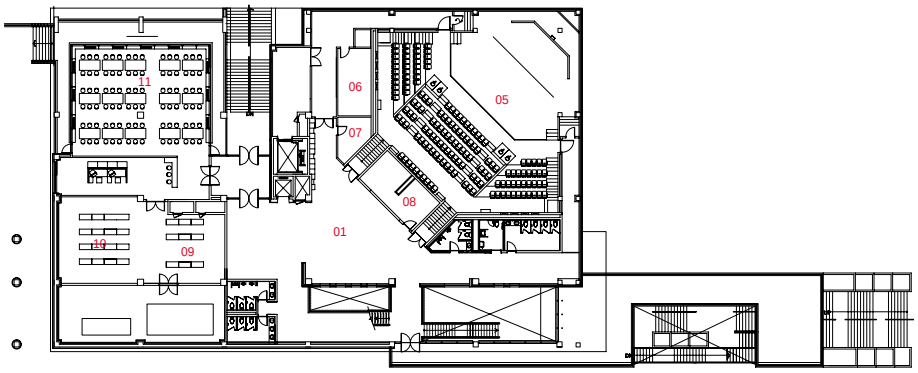
1층 평면도(행정의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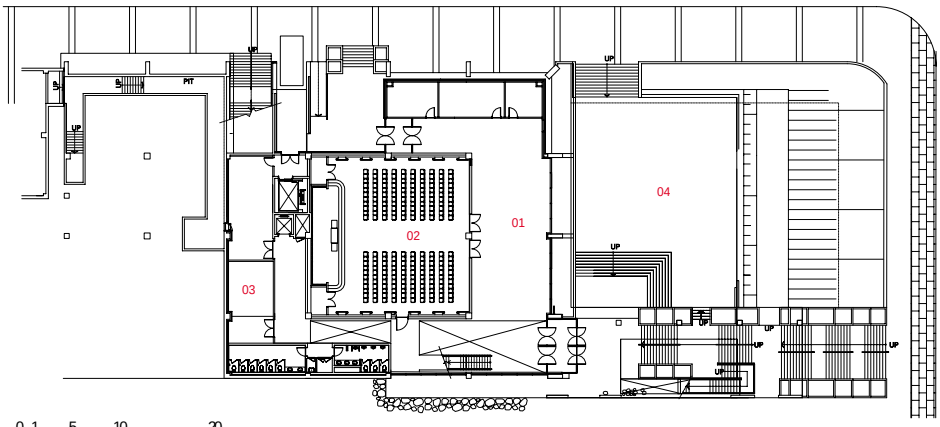
01_ 홀
02_ 예식장
03_ 폐백실
04_ 문화복지마당
05_ 대강당
06_ 분장실
07_ 예비실
08_ 안내
09_ 문서자료 보관실
10_ 서고
11_ 열람실



3층 평면도(문화복지동)



2층 평면도(문화복지동)



1층 평면도(문화복지동)

1_ 비슬마당에서 바라본 연결브릿지
2_ 3층데크에서 바라본 단지 전경

대 상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_ 주거

타워팰리스 III

Tower Palace III

설 계 자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박 승
+ S,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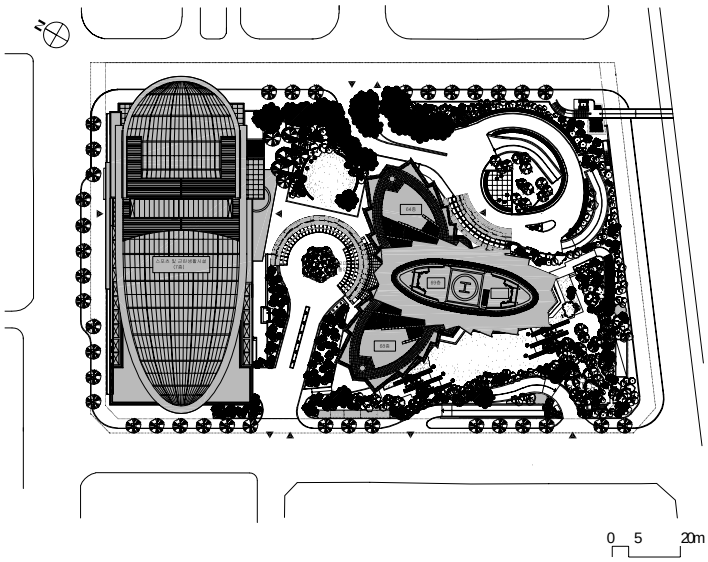
시 공 자 | 삼성중공업주식회사 + 삼성물산건설부문

건 축 주 | 삼성생명보험(주)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 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29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대지면적 17,990.2㎡
건축면적 7,084.8㎡
연 면 적 222,720.8㎡
건 폐 율 39.38%
용 적 률 791.3%
규 모 지하 6층, 지상 69층
구 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주차대수 계획대수 1,785대
외부마감 알미늄패널, 복층유리
설계담당 김보회, 이홍재, 박철홍, 김시목, 박순천, 김강련, 오상근, 손현주, 윤정섭, 채갑수, 조창제
구조설계 SOM + 동양구조안전기술
기계설비설계 삼우설비 컨설턴트
전기설계 삼우전기 컨설턴트
조경설계 이원조경

● 배치도



Location 467-29, Dogok-dong, Gangnam-gu, Seoul, Korea
Site area 17,990.2㎡
Bldg. area 7,084.8㎡
Gross floor area 222,720.8㎡
Bldg. coverage ratio 39.38%
Gross floor ratio 791.3%
Structure R.C
Bldg. Scale six stories below ground, sixtynine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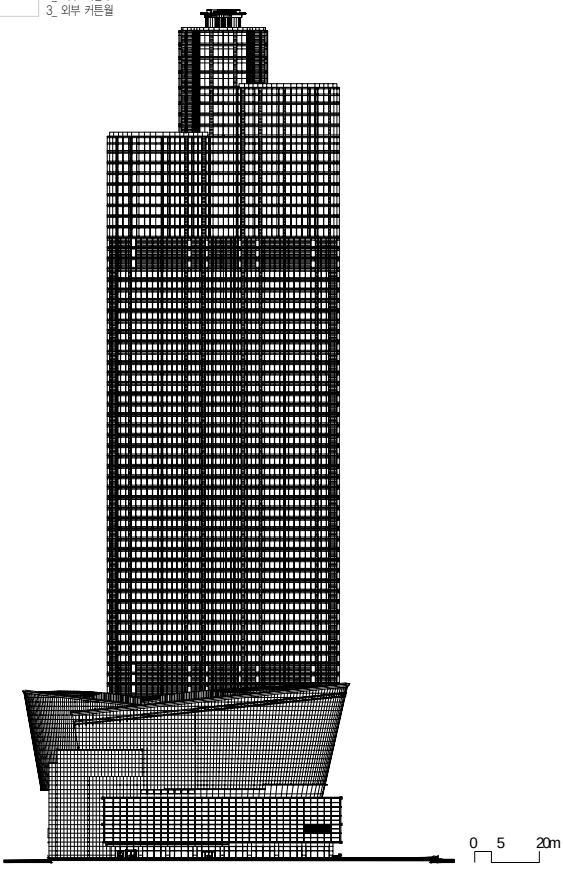
1_ 전체전경
2_ 수직전경
3_ 상부전경

한국 최초의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 '타워 팰리스'는 기존의 판상형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혁신적 양식의 주거 제안이다. 기능적인 첨단 보안 · 방재 시설과 휴식, 운동, 쇼핑 등의 복지 공간은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원스톱 생활을 가능케 하며, 수직 상승하는 타워는 집 안으로 도시 전체의 조망을 끌어들인다. 타워 팰리스 Ⅲ는 기존의 타워 팰리스 Ⅰ, Ⅱ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 지진 등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높였을 뿐만 아니라, Y자형의 자유로운 평면 배치를 채택해 초고층 주거의 전망과 건축물이 지닌 외관의 심미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프로젝트다.

평면과 매스 계획에서 세 개의 날개를 지닌 나뭇잎을 모티프로 삼았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유기적 형태로 무미건조함을 덜고자 한 것이다. 단조로운 빌딩 숲 가운데 치솟은 한 그루 나무와 같은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또한 하늘을 향해 뻗고 지상을 향해 리드미컬하게 떨어지는 나뭇잎의 이미지는 초고층 빌딩의 인상을 강화한다. 녹색빛의 유리와 메탈릭 실버의 알루미늄 표면이 자아내는 투명성은 첨단 테크놀러지를 표현하는 동시에 입면의 입체감을 강조한다.

타워 팰리스 Ⅲ의 Y자 평면은 낮에는 남쪽의 태양을 향해 열리고 밤에는 도시의 불빛을 향해 열린다. 윤곽의 요철면을 따라 광합성 면적을 극대화하는 나뭇잎처럼, 세 갈래로 뻗은 Y자 평면의 더욱 넓어진 외벽 면적은 최고의 전망과 채광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인다. 코어의 공용 공간은 나뭇잎의 중심에서 순환을 담당하는 잎맥이 된다. 1, 2층 저층에 연회장, 어린이 놀이방, 독서실 등의 주민 복지 공간을 배치하고, 코어 공간에는 이동 동선을 배치했다. 이같은 평면은 리드미컬한 변화감으로 거대한 매스의 위압감과 지루함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각 실의 독립성과 각 공간의 기능적 독립성을 극대화한다. 최근의 주거 수요는, 중간층을 선호하고 방위를 중시하던 과거와 달리 훌륭한 전망과 정서적 만족감을 더욱 중시한다. 공원과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근경, 도시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원경을 즐길 수 있는 집을 원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평면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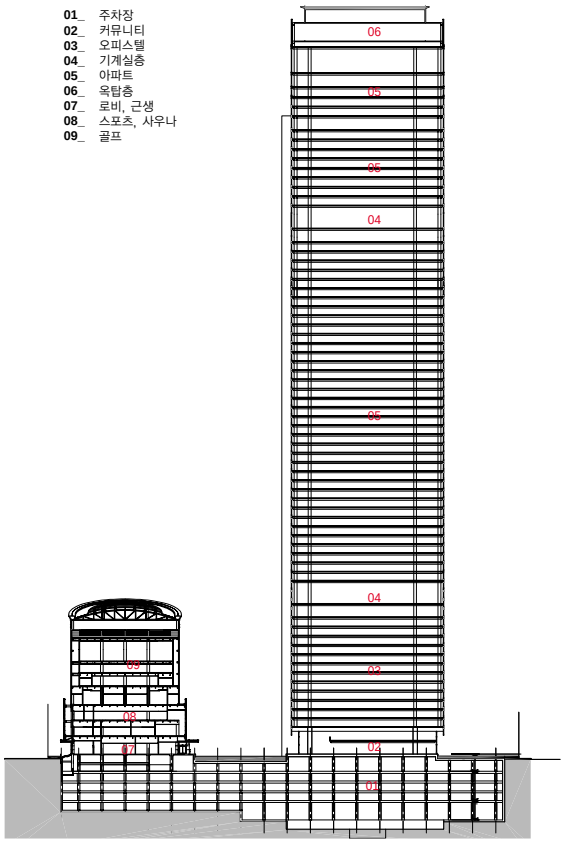
1_ 전체전경
2_ 외부 저층부
3_ 외부 커튼월



0 5 20m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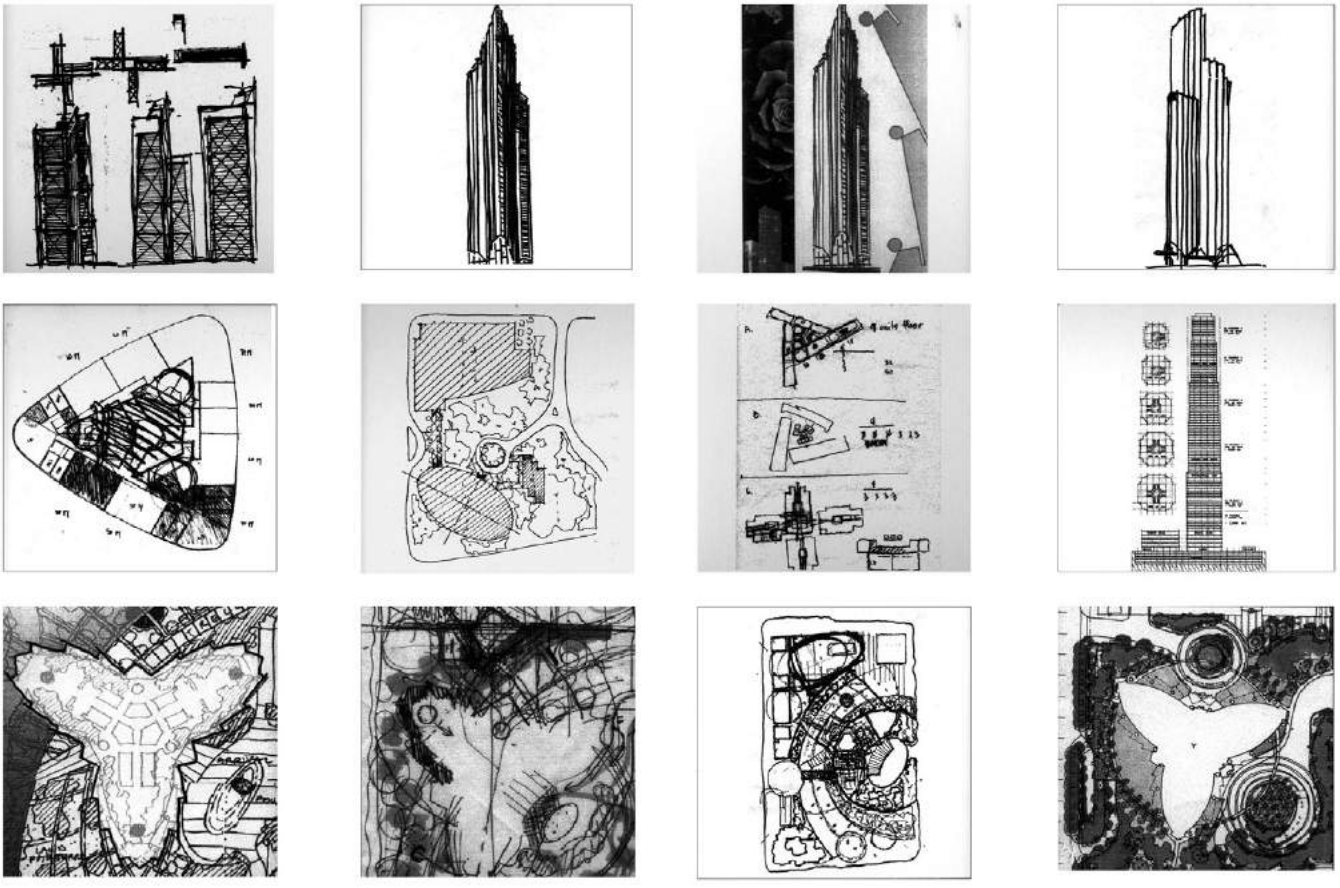
01_ 주차장
02_ 커뮤니티
03_ 오피스텔
04_ 기계실층
05_ 아파트
06_ 옥탑층
07_ 로비, 근생
08_ 스포츠, 사우나
09_ 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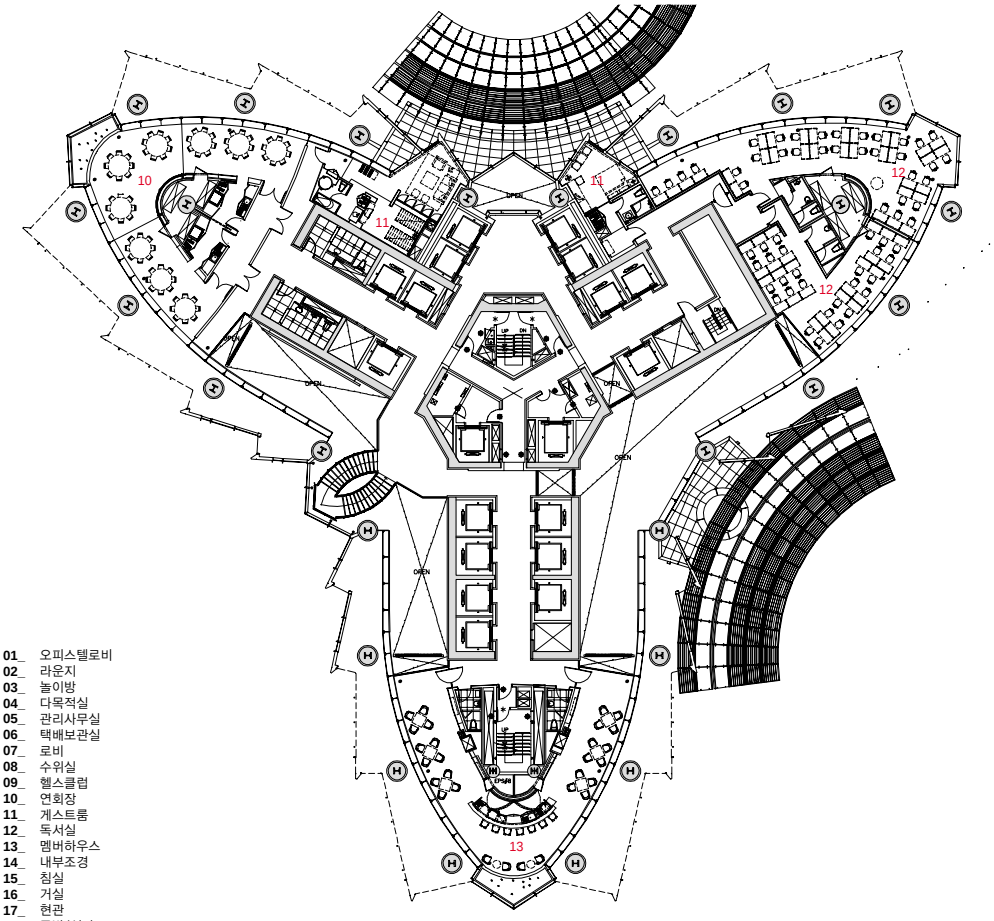
단면도

1 2 3

1_ 현관캐노피
2_ 주현관
3_ 로비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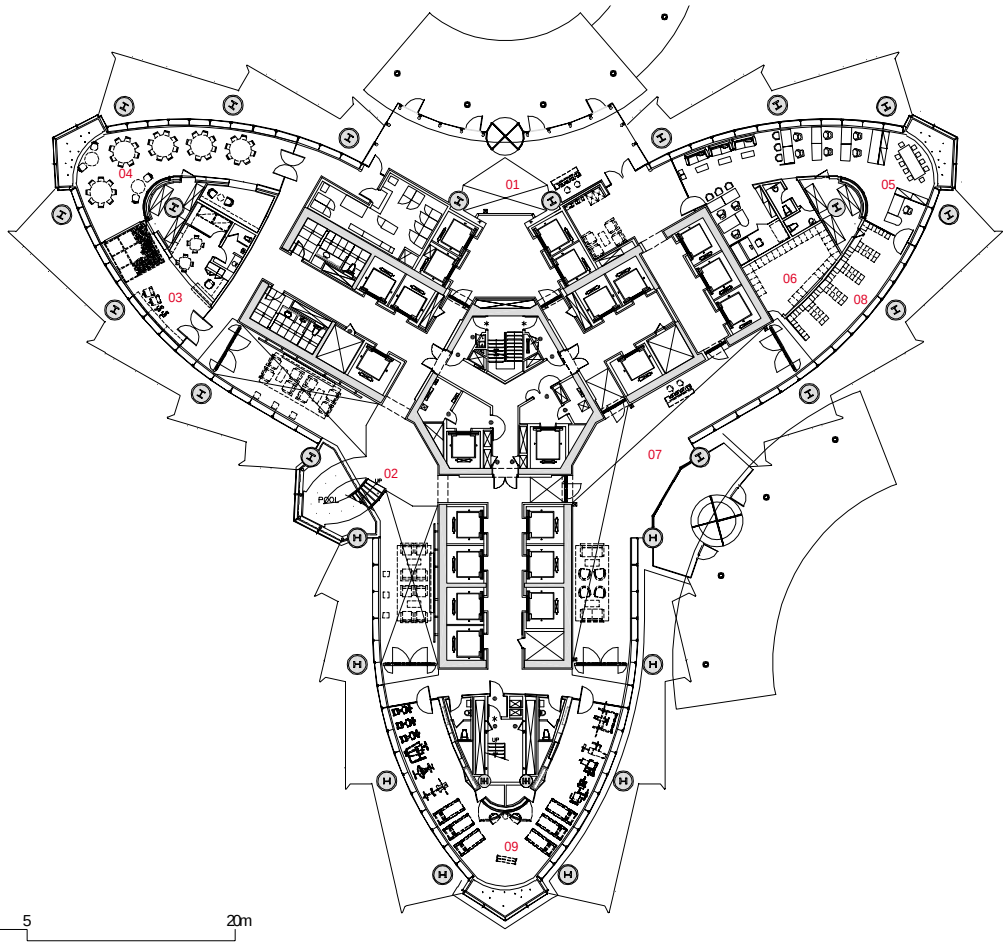


디자인컨셉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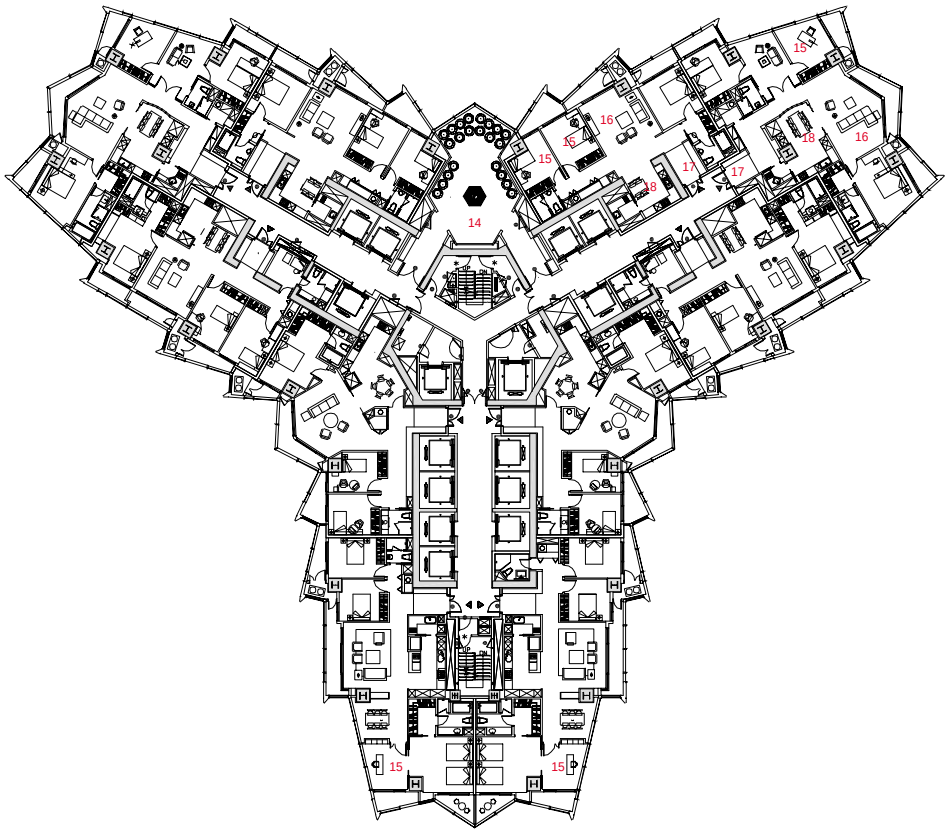
01_ 오피스텔로비
02_ 라운지
03_ 놀이방
04_ 다목적실
05_ 관리사무실
06_ 택배보관실
07_ 로비
08_ 수위실
09_ 헬스클럽
10_ 연회장
11_ 게스트룸
12_ 독서실
13_ 멤버하우스
14_ 내부조경
15_ 침실
16_ 거실
17_ 현관
18_ 주방/식당
19_ 서재

2층 평면도



0 5 20m

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1 2

1_ 라운지내부계단
2_ 저층부 커튼월 내부

본 상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_ 비주거

배재대학교 예술관

PaiChai Universty, College of Arts, Architecture and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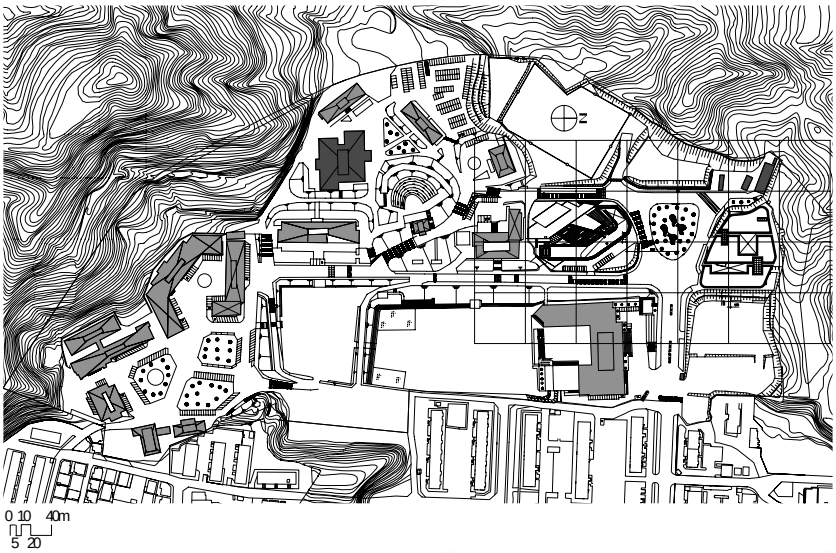
설 계 자 | (주)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박인수
시 공 자 | 현대건설(주)
건 축 주 | 학교법인 배재학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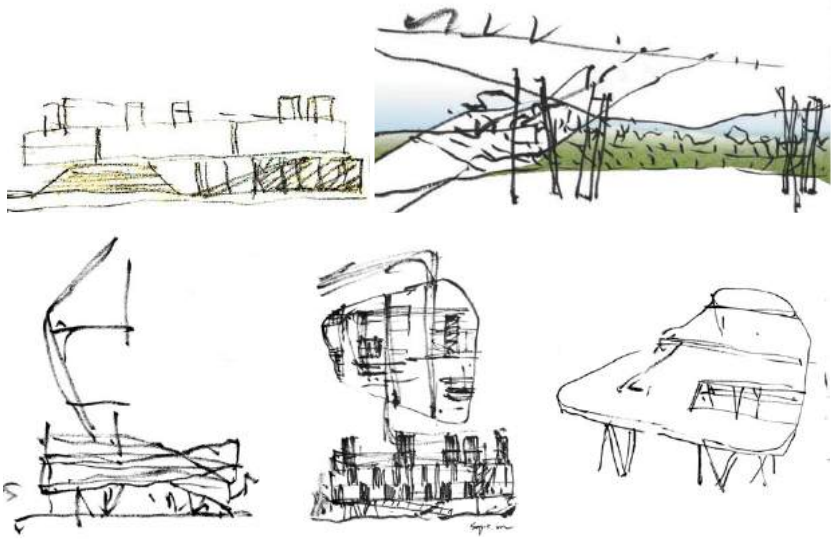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전시 서구 도마동 439-6 외 25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구, 최고고도지구(20m)
용 도	교육시설
대지면적	208,499.2㎡
건축면적	3,971.3㎡
연 면 적	9,958.6㎡
규 모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설계담당	정연성, 신혜영, 강인애, 닉 락(Nick Lock)
감리담당	정연성, 박호길, 구현모
구조설계	전우구조
기계전기	하나기연
설계기간	2002. 09 ~ 2003. 07
공사기간	2003. 10 ~ 2005. 02
사 진	김종오

Location	439-6, Doma-dong, Seo-gu, Daejeon, Korea
Site area	208,499.2㎡
Bldg. area	3,971.3㎡
Gross floor area	9,958.6㎡
Structure	R.C
Bldg. Scale	five stories above ground
Design period	2002. 09 ~ 2003. 07
Construction period	2003. 10 ~ 2005. 02

● 배치도





1_ 전체전경
2_ 진입도로변의 전경
3_ 북측 bridge통로를 바라봄

앞으로의 대학교육은 지금보다 협력성과 창의성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건축은 이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보급과 미디어 및 교통의 발달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문화, 경제구조 등은 지식 자체보다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협력하여 창의적인 결과물은 만들어 낼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배재대 예술과에서는 이를 위한 많은 건축적 장치와 공간들이 할애되었다.

예술관 계획은 외부와 접해있는 내부,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다양한 형태를 담아내며 자연과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먼저 음대, 미대, 건축대 등 세 개의 대학을 대지로부터 띄우면서 보행자 진입층(1층 데크층)을 모든 학생, 교수, 교직원들이 섞여 편안히 생각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곳으로 할애하였다. 그리고 음악연습실, 계단실 등은 밝은 공간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서로를 교감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술대학 전체에 대한 로비를 내부가 아닌 외부로 빠져 나오게 함으로써 내부 공간을 최소화하여 관리 및 열효

율을 높이고 외부와 접할 기회를 극대화 하였다. 자연 친화적이며 사회 친화적인 이러한 공간구성 방법은 우리의 전통적 사회문화성에 잘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데크 공간과 같은 '같이 모여서 즐기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예술학부라는 동질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상의 분리 및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구성은 앞서 말한 점차 탈 형식적이고 분야 간의 중복 및 교류가 증대되는 현대의 교육 성향을 반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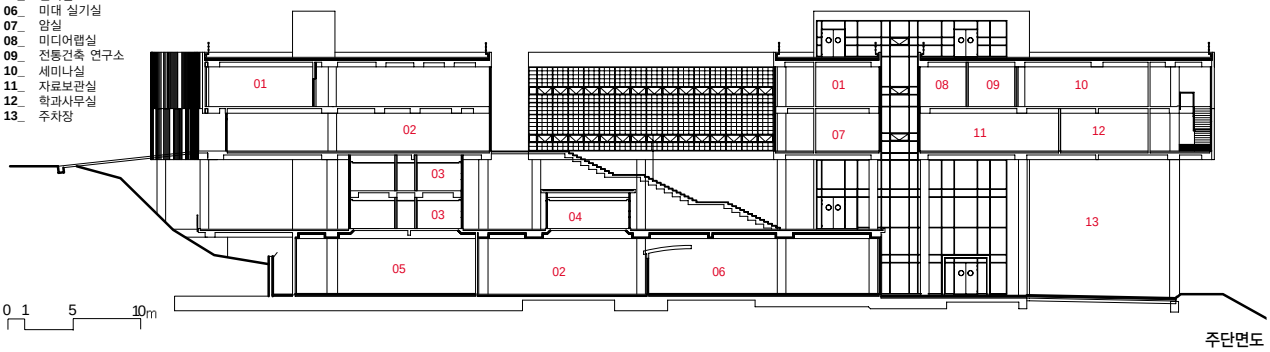
그간의 대학 캠퍼스는 축의 설정이라던지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틀이 서구 전통건축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앞으로의 대학교육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앞으로의 대학건축은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의 환경과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합당한 것이어야 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본 예술관의 설계에 임하게 되었다.

이러한 믿음으로 출발한 설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먼저 건물의 형태는 대지의 형상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있다. 수평적으로는 대지의 평면적 형태를 건물에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수직적으로는 캠퍼스 정문으로부터 상승하는 대지의 형상을 따라 건물 내 중앙계단, 램프 등의 동선이 함께 상승한다.

이러한 대지의 레벨은 단지 건물의 형상뿐만 아니라 기능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건물의 구성은 상승하는 대지를 따라 주차 레벨, 보행자 레벨 그리고 램프나 브릿지 등을 통해 진입이 가능한 필로티 공간과 그 상부의 주 건물 레벨로 구분되며, 별도의 토목공사 없이 건물이 대지에 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필로티 구조로 이루어진 보행자 레벨의 데크는 대지와 보행자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건물 뒤편으로 보이는 산세로의 시선을 차단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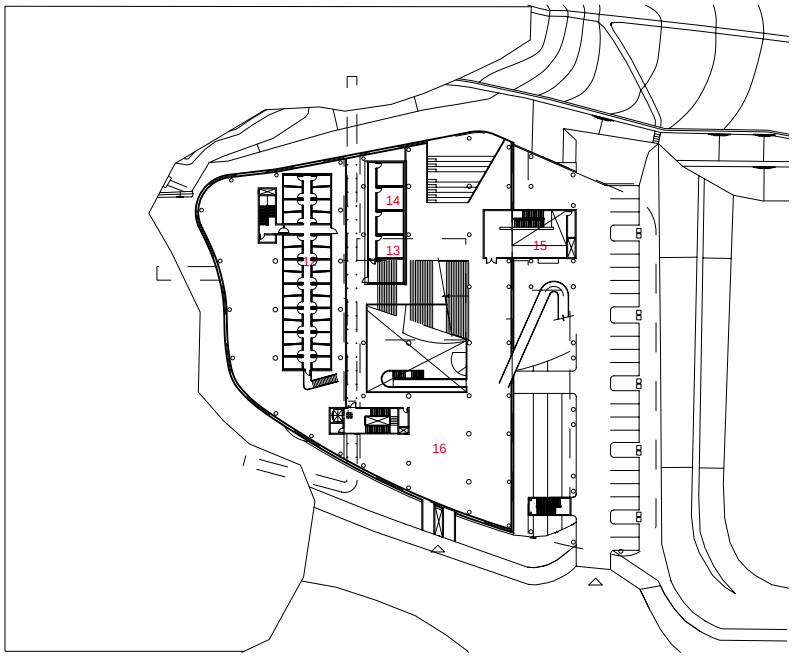
건물의 형태와 공간 구성은 전적으로 '시공'의 측면으로부터 출발하여 '땅의 단면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마찬가지로 건물 주재료의 선정 및 디테일도 간결하게 이를 따르는 방향으로 이루어 졌다. 대지의 형상을 따라 돌아가는 건물의 외벽 역시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그 밀실한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폭이 좁은 수직창을 사용하였으며, 중정 쪽 외벽은 커튼월 시스템이 사용되었다. 이는 건물의 기능과도 조화된다. 외벽 쪽으로는 주로 로비나 복도 등의 공용공간을 위치시켰는데, 약간은 어둡지만 가늘게 찢어진 틈새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시적인 공간연출을 통해 건물 내에서의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대부분의 실들을 중정을 향해 배치하여 커튼월을 통해 충분한 채광과 환기가 이루어지는 쾌적한 수업공간을 형성하였으며, 어둡고 시적인 복도 및 그 주변 공용공간과의 대비를 통해 그 공간들이 가지는 가능성을 높였다.

01_ 교수연구실
02_ 로비
03_ 개인 레슨실
04_ 음악원
05_ 전기실
06_ 미대 실기실
07_ 암실
08_ 미디어랩실
09_ 전통건축 연구소
10_ 세미나실
11_ 자료보관실
12_ 학과사무실
13_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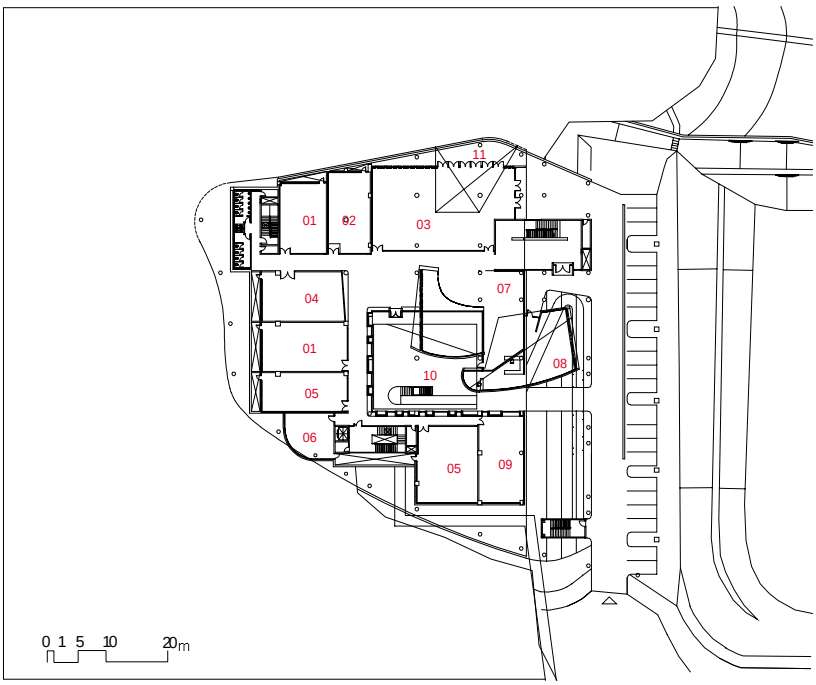


주단면도

1_ 차량및 서비스 동선 레벨에서의 view
2_ 동간에 갈라져있는 공간
3_ 옥데크레벨에서의 음악연습실들
4_ 동측 교수연구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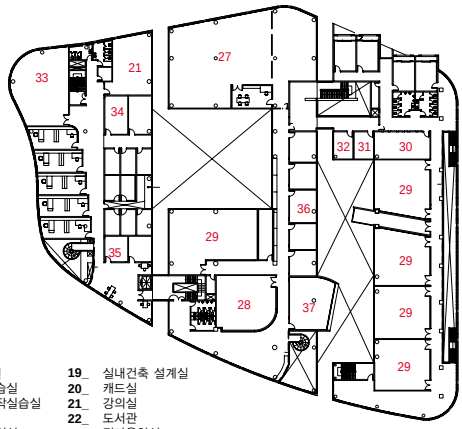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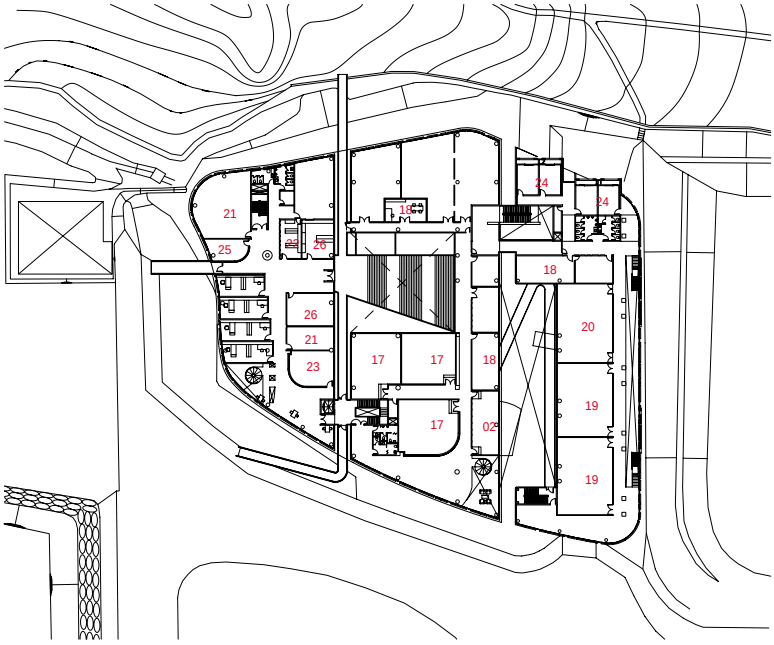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_ 조형실습실과 건축과 램프
2_ 캠퍼스축과 뒷동산을 잇는 연결통로
3_ 건축과와 미대사이의 사잇공간
4_ 주진입계단과 하부의 조형실습실들(타일건물)
5_ 사잇공간과 램프, 하부의 조형실습실들(타일건물)



01_ 교양강의실
02_ 컴퓨터 실습실
03_ 조소과 제작실습실
04_ 전기실
05_ 건축과 강의실
06_ 학생회실
07_ 미대 실기실
08_ 조형 연습실
09_ 모형 제작실
10_ 중정
11_ 야외작업장
12_ 개인 레슨실
13_ 사무실
14_ 음악원
15_ 전기실
16_ 데크
17_ 시각디자인실
18_ 자료보관실
19_ 실내건축 설계실
20_ 캐드실
21_ 강의실
22_ 도서관
23_ 전자음악실
24_ 교수연구실
25_ 세미나실
26_ 학과사무실
27_ 서양화실
28_ 칠예과 실습실
29_ 설계실
30_ 세미나실
31_ 전통건축연구소
32_ 미디어랩실
33_ 합동 연주실
34_ 실내악실
35_ 레슨실
36_ 교수연구실
37_ 소지 제작실

5층 평면도



4층 평면도

본 상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_ 주거

대치 동부센트레빌
Daechi Dongbu Centrevi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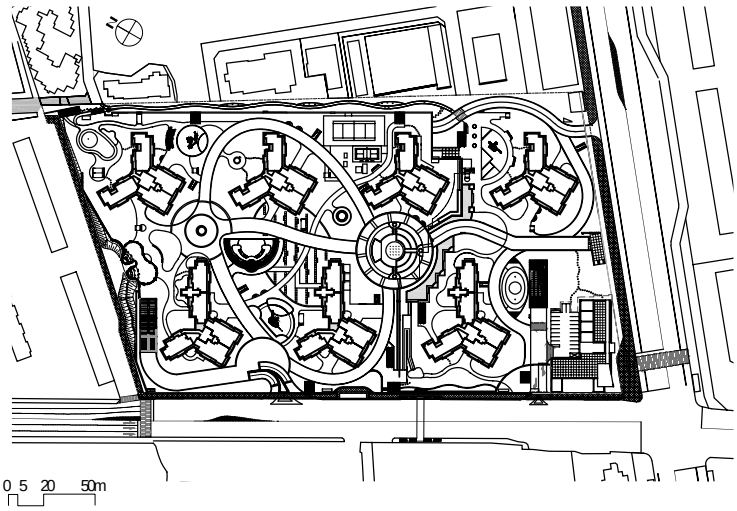
설 계 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김종국
시 공 자 | 동부건설주식회사
건 축 주 | 대치주공고층아파트 재건축조합

1_ 대치동부센트레빌
2_ 단지전경
3_ 단지야경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70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중심지 미관지구
용 도	공동주택
대지면적	49,161.1㎡
건축면적	9,065.22㎡
연 면 적	212,324.71㎡
건 폐 율	18.44%
용 적 률	297.12%
구 조	기준층 (FLAT PLATE 구조), 지하층, 1층 (SRC 구조)
외부마감	컬러복층유리, 화강석, 실리콘도료마감
총세대수	805세대
주차대수	1,824대 (지상 20대, 지하 1,804대)
설계담당	최 현, 이상인, 임성수, 김근용, 이혜진, 신지호, 이주홍, 이형준, 신동빈

● 배치도



Location 67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Site area 49,161.1㎡
Bldg. area 9,065.22㎡
Gross floor area 212,324.71㎡
Bldg. coverage ratio 18.44%
Gross floor ratio 297.12%
Structure R.C

사업대지는 남부순환로와 선릉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이자 강남의 신개념 주거개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인근에 교육, 편익시설이 밀집하여 있음은 물론이고, 특히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이 교차하는 도곡역으로서 단지에서 직접 연결이 가능하여 가치상승 효과를 지닌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 도심 자연공원이 산재하여 있고 남쪽으로 대모산과 양재천을 향한 조망권도 지님으로서 명실공히 도심의 편리와 자연의 여유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입지라 할 것이다.

배치계획의 주안점으로는 기존 아파트가 판상형과 타워형이 복합된 7개동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현 수준 이상의 단지 개방감을 누릴 수 있는 단지 배치를 전제로 계획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에 있어서 일반 유형처럼 되어온 판상형태를 탈피한 주동형태가 요구되었고, 타워형을 기본으로 하여 일부 판상형이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주동형태를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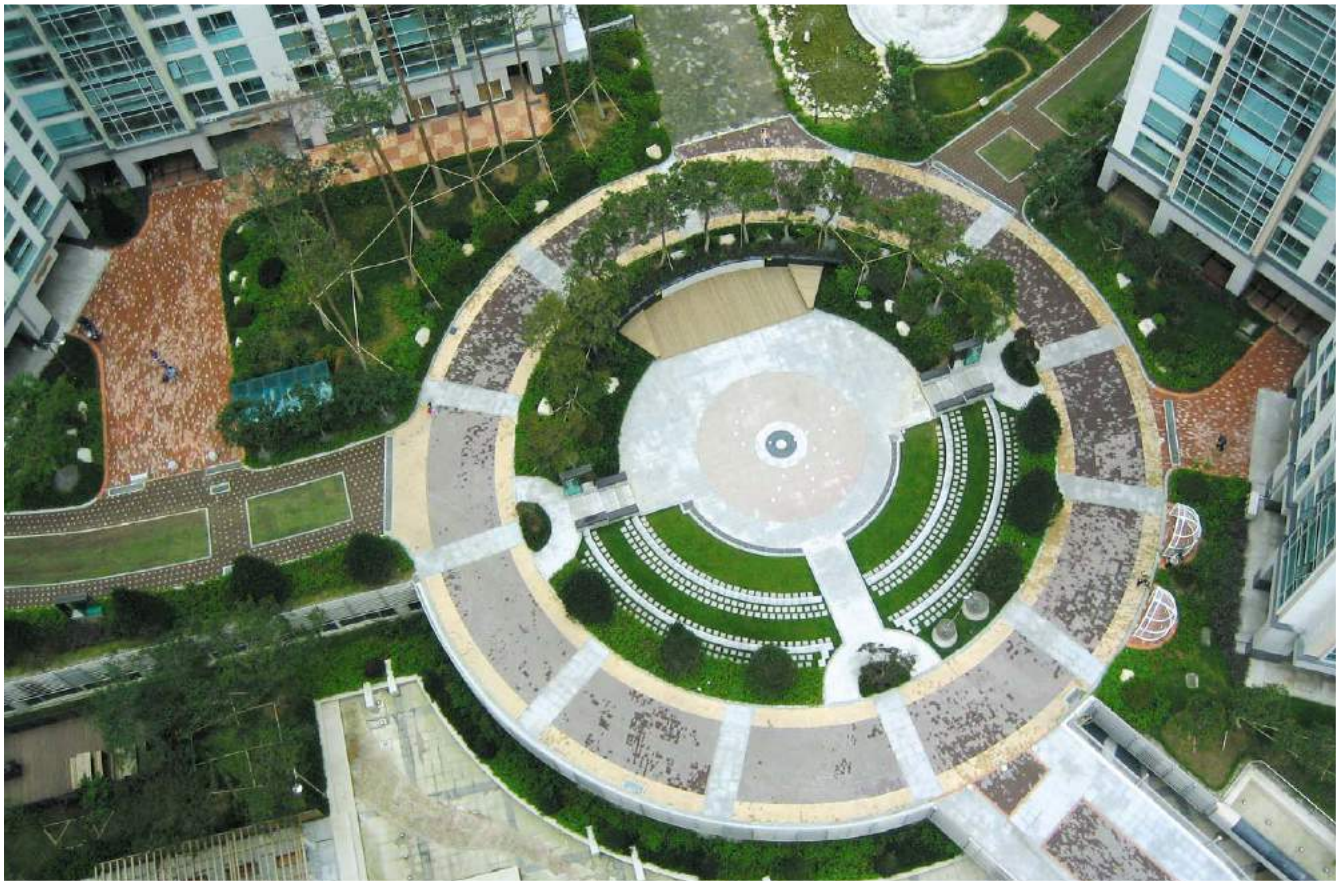
단지 남북을 관통하는 보행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7개동이 배치된 제시안은 타워형의 장점인 단지 개방감을 최대로 확보하고 시각축의 열림을 고려하고 있으며, 남향과 남동, 남서형이 혼합된 형식으로 타워형이 가질 수 있는 향의 불리함을 극복하고있다.

주동의 축소로 확보된 외부공간은 '단지 전체의 공원화' 라는 주제로 계획되었다.

대지는 남에서 북으로 최고 12m의 고저차를 지니고 있어 이를 활용한 데크식 주차장 계획을 시도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하여 보차분리라는 동선의 기본요구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 대지 활용은 전체 대지에서 분수광장을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고 4m 내외의 레벨차를 두어 지하층을 형성함으로써 지상 외부공간은 보행램프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도곡역에서 단지 지하 2층의 주차장으로 직접 연결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외부공간은 지상에 차량 도로를 배제함으로써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단지를 기본 개념으로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건강한 주거 공간을 표방하였다. 각 주거동의 1층에는 필로티로 계획 후 휴게라운지, 휴게데크, 노인정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마련하여 전 세대가 지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동시에 1층 세대가 갖는 프라이버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외부 공간은 남북을 관통하는 단지 주 보행축을 따라 진입광장, 분수광장 및 수공간, 중앙광



장, 벽천마당 등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머무름의 공간의 반복으로 다양하고 변화감 있는 환경을 연출한다. 또한 비상도로를 겸하는 보차혼용로가 각 동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고, 소로를 연결하여 보행자의 흐름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풍요로운 조경속에 어우러지는 산책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주 보행로에서 주거동에 이르는 길은 각기 1층의 필로티 공간으로 연결되고 이곳은 준 공적공간의 역할을 하는 휴식마당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동선 및 주차계획에서는 지하층 주차장으로의 진출입구를 선릉로(25m) 방면에서의 주출입구 2개소를 두었고, 대지 동측에 부출입구를 두어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고려하였다.

이삿짐, 소방차, 쓰레기 처리 차량을 고려한 비상동선은 보차 혼용로로 계획하여 보행로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지하철 도곡역에서부터 단지 지하주차장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계획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한층 높였다.

데크를 이용한 지하층의 주차장은 채광 및 환기에 유리할 뿐 아니라 수공간을 경계로 하여 지상으로 동선이 바로 이어지도록 계획하였다.

주거동의 평면은 Y자형을 기본으로 하는 두가지 형식(type)으로 계획되었다.

53평형 두 세대를 중심으로 좌우에 60평형 두 세대가 결합한 '4세대형'이 기본 형식으로, 남향을 위주로 하는 주거의 특성에 맞추어 각 세대가 남향, 남동향, 남서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었고, '5세대형'은 53평형 두 세대를 중심으로 한쪽에 45평형 두 세대가 결합된 형식을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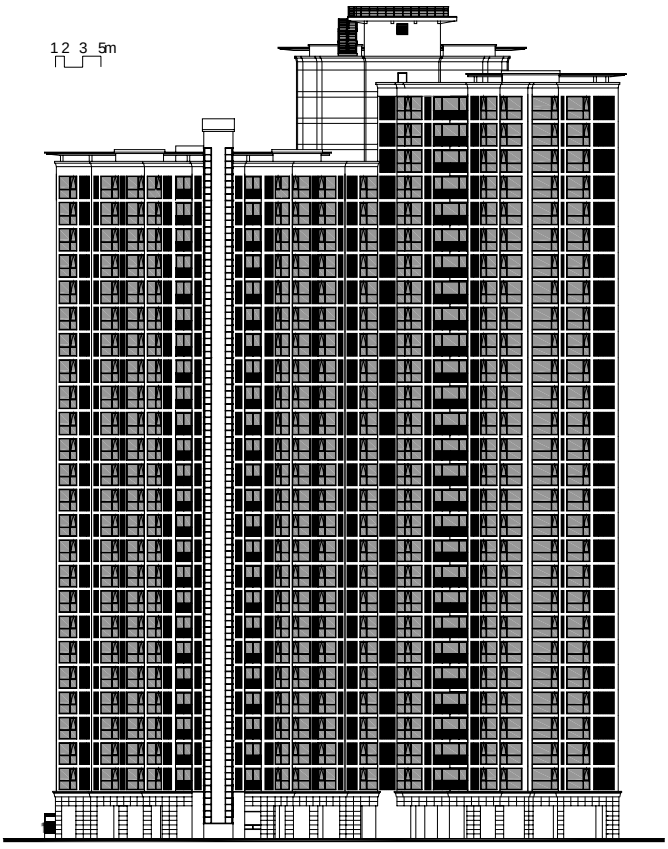
Y자형 동평면의 기본으로 인식되어온 3세대 구성이 4세대로 바뀌면서 중앙에 두 세대가 결합된 53평형은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유형의 평면으로 보여지고 있다. 거실과 주방, 식당이 한 zone으로 구성되는 적극적인 LDK형의도입, 남향의 거실에 2면 조망이 가능한 배치, 동향 또는 서향에 면한 침실의 배치 등은 거실을 주거 공간의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안방에서 거실로의 중심변화, 주방, 식당공간의 위상변화-계획적으로는 이미 진부해진 것임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를 적극 반영한 계획으로 재건축에 있어서 이례적인 시도였다.

주거동의 1층에는 로비 라운지를 마련하여 방문자를 맞이할 수 있는 응접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필로티 공간 디자인, 휴게데크 설치로 휴식마당으로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입면 및 단면계획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의 형태를 탈피 하고자 하는 의도로 타워형의 수직적 형태에 걸맞게 전면 유리의 느낌이 강조되도록 하여 발코니 외창을 기준으로 계획되었다.(입주자 개개인에 의한 발코니 창호설치를 배제하고 외벽 디자인을 준공시까지 반영하겠다는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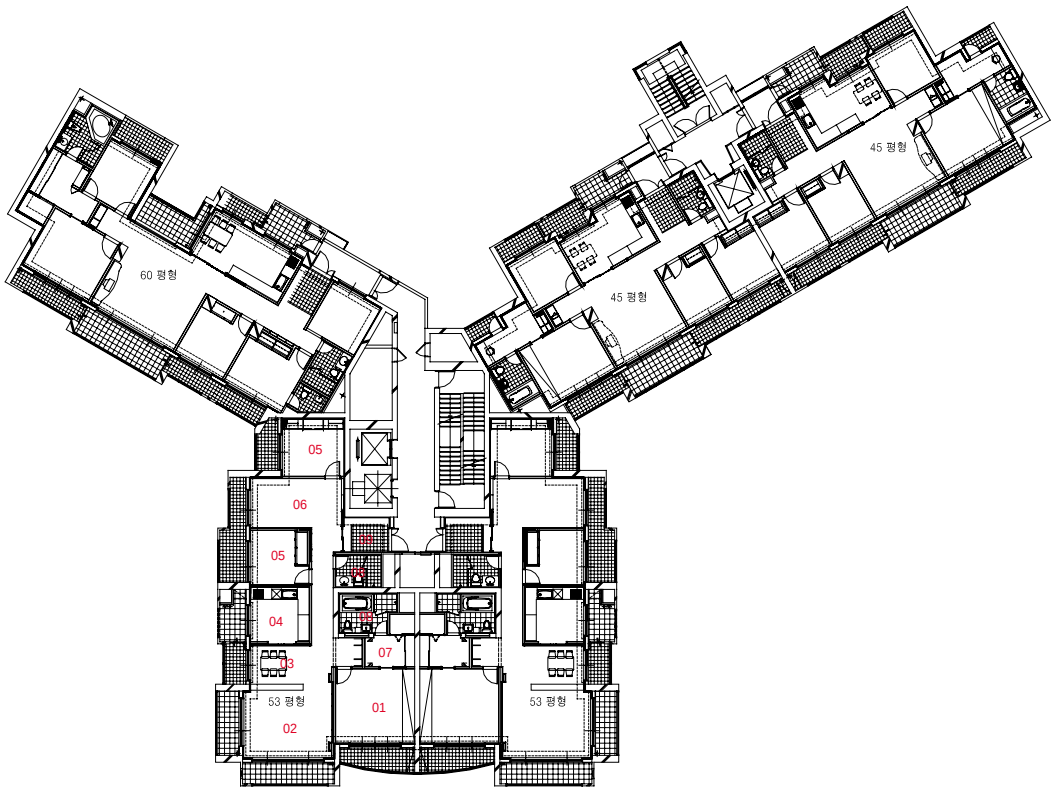
단지 내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광장에 면한 동의 층수를 낮추어 변화감 있는 스카이 라인을 형성하도록 하였고, 저층부는 마감재 및 색체 변화를 통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기단부 안정감 및 친화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 하였다.

현상설계 제출 당시의 초기안으로부터 현실적인 요구들이 반영되면서 입면의 이미지는 다소 변

1_ 중앙광장
2_ 조형물
3_ 장식벽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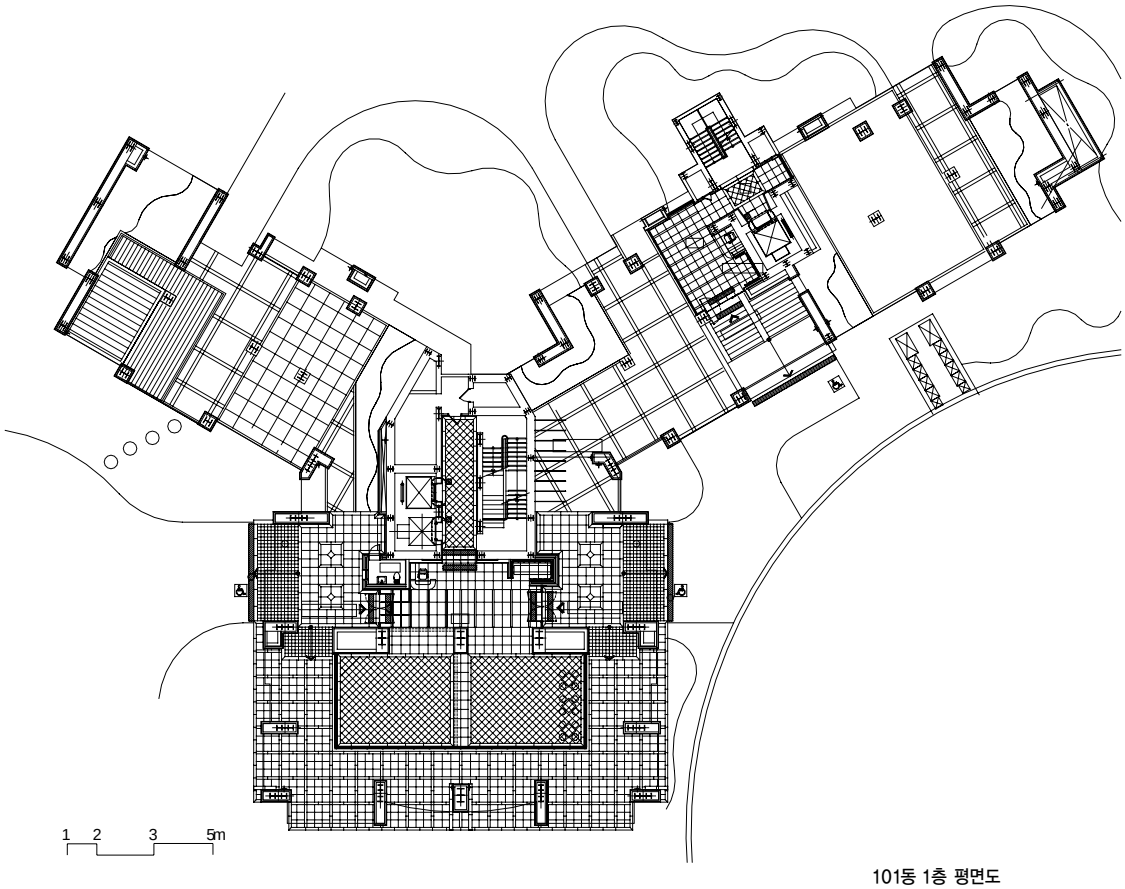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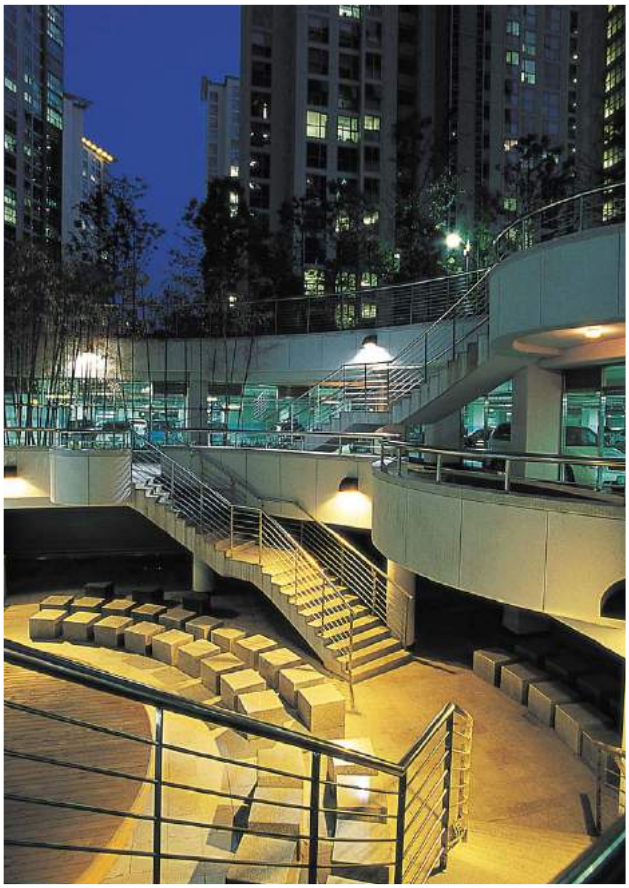
1_ 램프웨이
2_ 거실전정고특화
3_ 선큰광장

101동 2~25층 평면도



01_ 안방
02_ 거실
03_ 식당
04_ 주방
05_ 침실
06_ 가족실
07_ 드레스룸
08_ 욕실
09_ 현관

101동 1층 평면도



화되었는데 이는 주거공간 내부실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창호계획, 전층세대 외벽부분의 동일조건 만족, 옥탑부의 과도한 구조물 디자인 축소, 안정적인 구조상의 조건 고려 등에 의한다.

기준층의 층고는 15층이하 2.8m, 16층이상 2.9m로 천정고를 높이고, flat plate구조를 적용하여 슬라브 두께 220mm로 보가 없는 기둥식 구조로 평면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단위세대 계획은 각 평형별로 Cherry, Maple, Walnut Style 등으로 공간 이미지를 제시하고 평형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인테리어 디자인과의 접목을 꾀하였다. 또한 기둥식 구조에 따른 가변적 공간활용, 가족실을 두어 취미활용공간 및 가족공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발코니형 서비스 주방을 마련하였으며 독립된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의 설치로 부부전용공간의 고급화를 꾀하였다.

구조계획에서는 내진설계를 통한 구조적 안정성 검토,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리모델링 설계가 가능한 구조 형식의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선정하였다.

바닥구조는 충분한 슬래브 두께를 확보하여 진동 방지 및 차음 효과를 증대하였고, coupled wall 개념을 도입한 코어벽체 구조로 횡변위에 충분한 두께를 확보하였으며 기둥식 구조를 적용하여 건물의 내구성이 증진되도록 하였다.

또한 지하층과 지상층의 골조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Double-Up 공법을 도입하여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자원가동 효율을 증대하여 주민 이주기간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설비계획에서는 분리형 멀티에어컨 설치를 고려한 냉매배관으로 냉방설비를 시공하였으며 난방설비로는 지역난방용 중온수를 사용하였다. 열교환기는 저층부(2~15층)와 고층부로 구분하였으며 세대내 온도비례 제어밸브 설치로 실내쾌적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오염감지 센서와 연동 작동되는 렌지후드 배기를 이용한 인공지능 자동환기 시스템을 채택하여 환기설비의 기능향상을 꾀하였다.

그밖에 통합 방범 설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입주자 RF카드 리더기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지하주차장, 건물외곽, 각동입구, 엘리베이터홀 등에 CCTV를 설치하였다.

기타 설비중 조명설비로는 공용부 조명제어, 센서 조명기구 적용, 세대내 인테리어 조명, 건물 경관조명등이 있고, 주차관제설비로는 차량 자동인식 방식적용 및 적외선 센서감지 장치등이 있으며, 무인검침, 자동요금계산, 전용선 방식을 적용한 원격검침설비가 완비되어있다.

또한 세대현관출입 방식은 도어카메라 및 카드리더기를 채택하였으며, 터치 스크린 단말기를 사용하여 원격 검침 내역 조회 및 세대 내 모든 시스템 제어, 기본 H/A 기능구현, 외출시 조명 전체 소등 기능, 현관 문열림 기능, LAN 통신 방식에 의한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우수상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_ 비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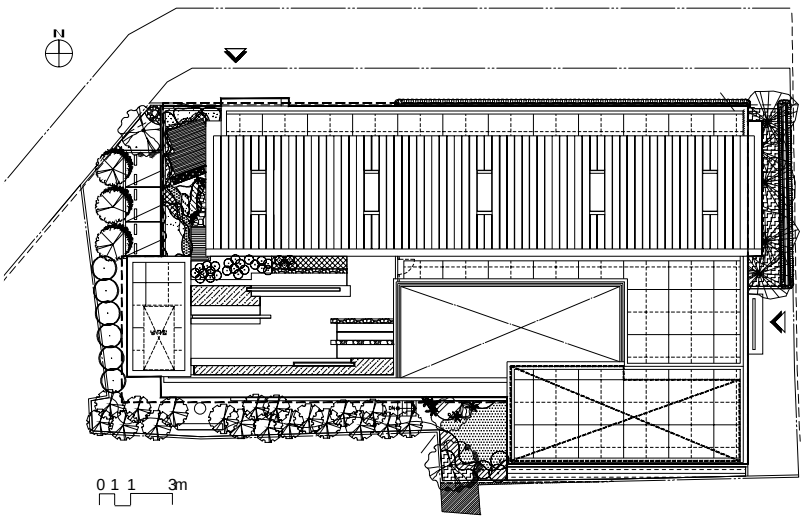
보헌빌딩
Bohun Building

설 계 자 | (주)간삼파트너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자호
시 공 자 | GS건설(주)
건 축 주 | 주식회사 보헌개발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84-2, 계동141-1번지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202.63㎡
건축면적	720.59㎡
연 면 적	3,981.61㎡
건 폐 율	59.92%
용 적 률	163.38%
규 모	지하 3층,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38대
외부마감	후동석 정다듬, 후동석 물갈기, ZINC패널
설계담당	홍석기, 이윤형, 이승수, 박정연, 김태우

● 배치도



Location 84-2, Jae-dong, Jongno-gu, Seoul, Korea
Site area 1,202.63㎡
Bldg. area 720.59㎡
Gross floor area 3,981.61㎡
Bldg. coverage ratio 59.92%
Gross floor ratio 163.38%
Structure R.C
Bldg. Scale three stories below ground, three stories above ground

1_ 진입부 정면
2_ 북동쪽 전경
3_ 옥상정원

북촌마을은 서울 600년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는 서울 유일의 전통 한옥 밀집역으로서 경복궁, 창덕궁 그리고 극원(비원)과 인접한 북악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전통 한옥들 사이에 현대적 업무시설을 건축한다는 것은 자칫 기존의 마을 질서 전체를 훼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헌빌딩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여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기존의 질서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디자인 하는데 설계의 주안점을 두었다. 전통 한옥과 콘크리트 건축의 매우 이질적인 충돌을 보헌빌딩은 전통적인 건축 재료와 휴먼 스케일의 내부 공간 구성을 통해 바람직하게 해결해 내고 있다.

절제된 전통한식 사용

형태적으로만 전통 한옥을 흉내내는 것은 자칫 북촌마을의 정서를 더욱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헌빌딩은 업무시설의 기능을 충족하면서도 전통한옥의 공간 구성 원칙에 따르는 인간적인 평면 계획을 통해 사용자에게 친숙하게 다가서고 있다.

곳곳에서 한옥의 절제된 자연적인 질감의 전통 재료를 사용하여 주변 한옥 건물군과 조화로운 구성이 되도록 하였으며, 나즈막하게 둘러친 건물 주변의 기와 담장은 보헌빌딩이 북촌마을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응하려 하는 자세를 엿볼수 있게끔 한다.

자연스러운 진입구

건물 중심에서 진입로로 형성된 열린 축은 진입부에서의 시선을 자연스레 유도하며 단 차이는 지하1층으로의 진입성을 용이하게 한다,

3층 발코니의 조경공간과 옥상조경은 북촌마을의 전통적인 경관을 조망하게 끔 배려되었으며, 이공간은 이곳의 사용자만이 누릴 수 있는 커다란 즐거움이다.

시선의 열림

중정에서 올려다본 하늘의 모습은 한옥마당에서의 하늘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1층의 건물전체를 감싸는 복도는 지하1층의 중정을 향해 열려져 있고 필로티에 의해 시선의 연속성을 가지며 정원길을 걸어다니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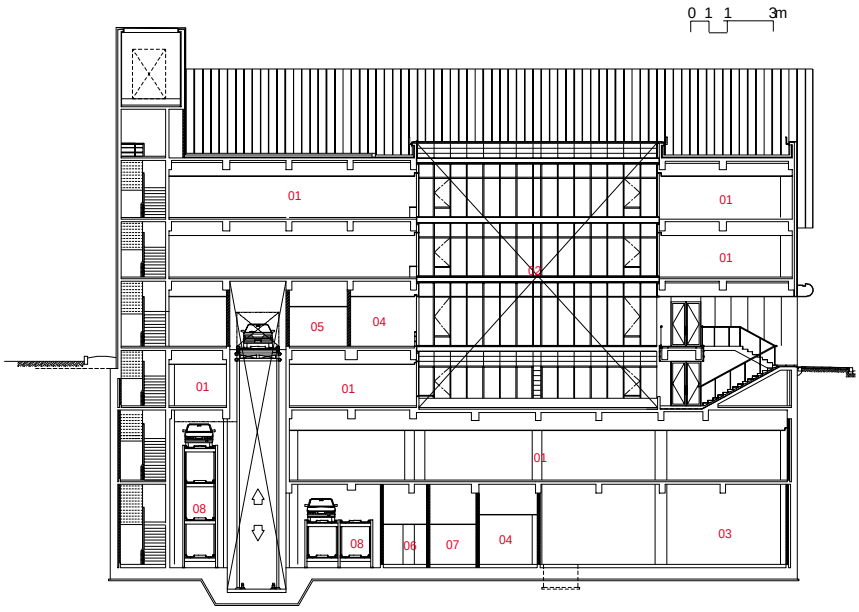
내부로 열린 중정

도로에 면한 외벽은 절제되면서도 자유로운 입면이 되도록 하여 대지에 꽉찬 매스의 비대감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중정을 향해 열려져 있는 내부의 외벽은 커튼월로 처리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잘 정돈된 안마당과 같은 중정을 최대한 만끽 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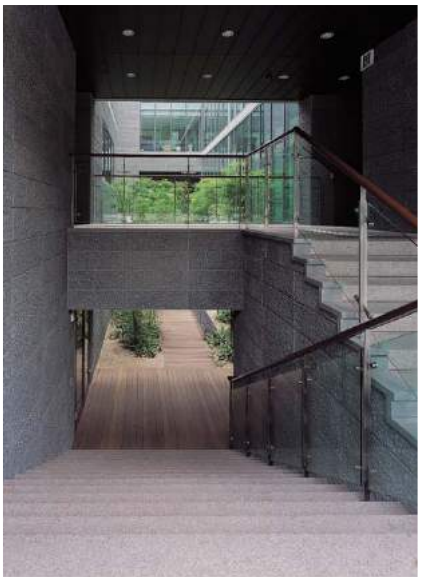
지하1층 중정으로 쏟아지는 햇볕과 빗소리는 사용자로 하여금 지하공간이라는 사실을 망각케 하면서 마치 집안마당을 쳐다보고 있는 즐거움을 준다.

내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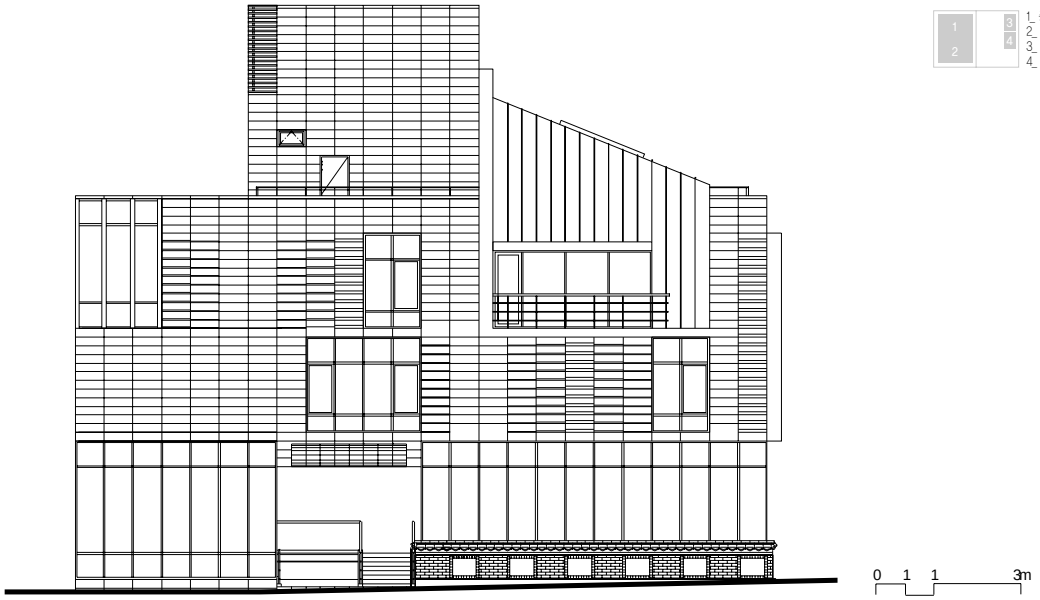
1층의 열린 시야는 내외부 공간의 반복으로 어두움과 밝음의 반복을 이루며 편심코어를 통해 확보된 업무공간은 사용자에게 대규모 건물에서의 내부공간감을 갖도록 한다. 3층 사무공간은 외부는 한옥 지붕의 경사를 이루고 내부는 극대화된 개방감을 갖는 공간으로 이용된다.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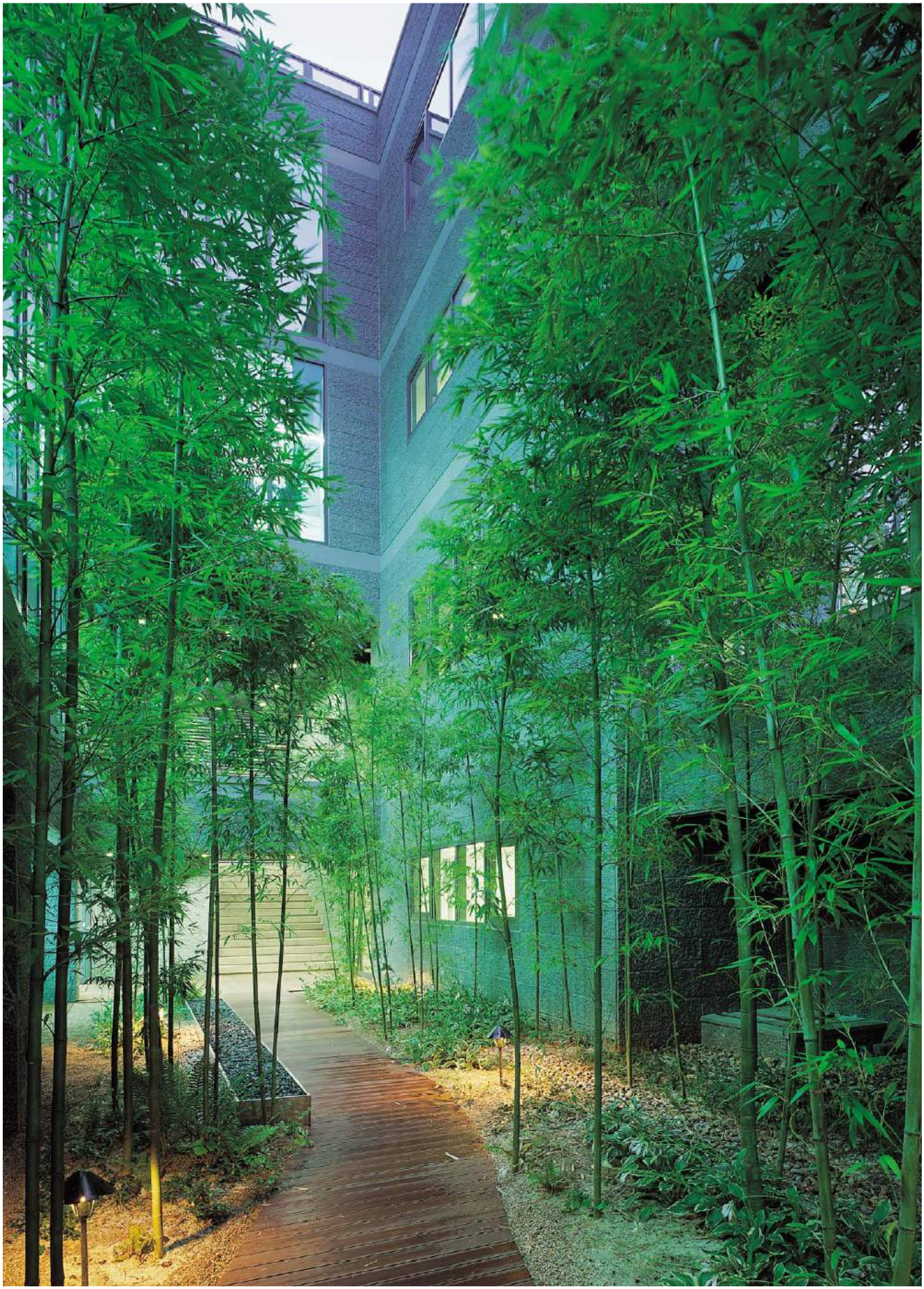
1_ 중정에서 본 하늘
2_ 회랑
3_ 회랑
4_ 주진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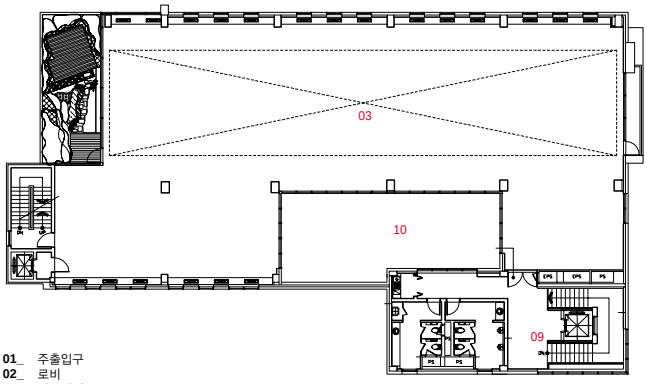
정면도

0 1 1 3m

01_ 업무시설
02_ 중정
03_ 기계실
04_ 복도
05_ 화장실
06_ 용품실
07_ 창고
08_ 기계식 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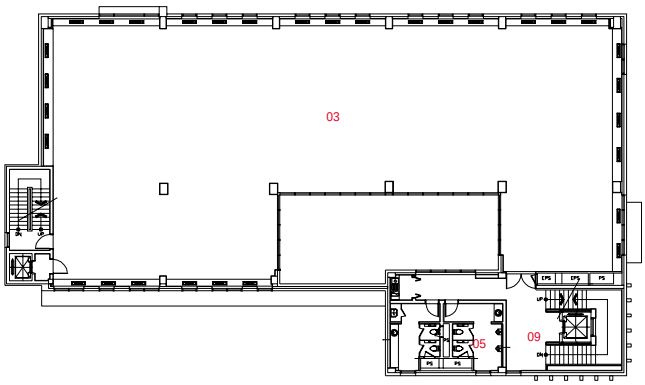


1_ 중정
2_ 실내에서 바라본 중정과 외부
3_ 3층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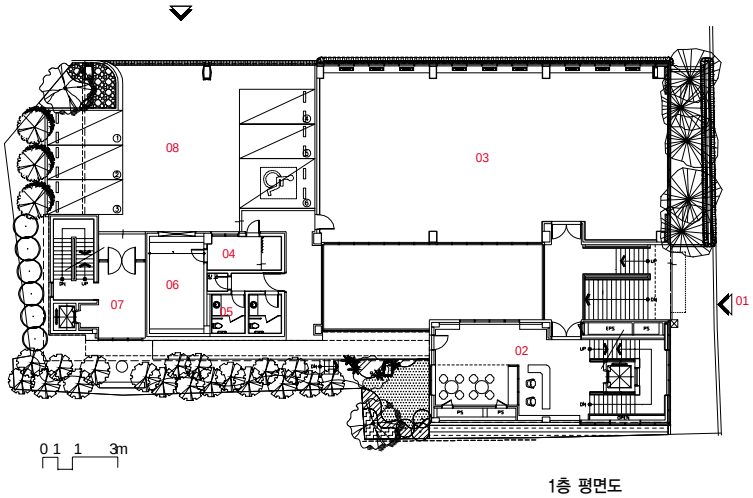


3층 평면도

01_ 주출입구
02_ 로비
03_ 업무시설
04_ 방재실
05_ 화장실
06_ 창고
07_ 부출입구
08_ 지상주차장
09_ 홀
10_ 탕비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우수상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_ 비주거

옥계휴게소
Okgye Service Area

설 계 자 | (주)한메건축사사무소 이충기
시 공 자 | GS건설(주), (주)대한
건 축 주 | 한국도로공사

풍광작휴(風光作休), 좋은 풍광(風光)은 편안하고 좋은 휴식을 만들어 주며 풍광이 좋으면 나그네는 쉬어가기 마련이다. 옥계휴게소는 휴게소 중 풍광이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곳에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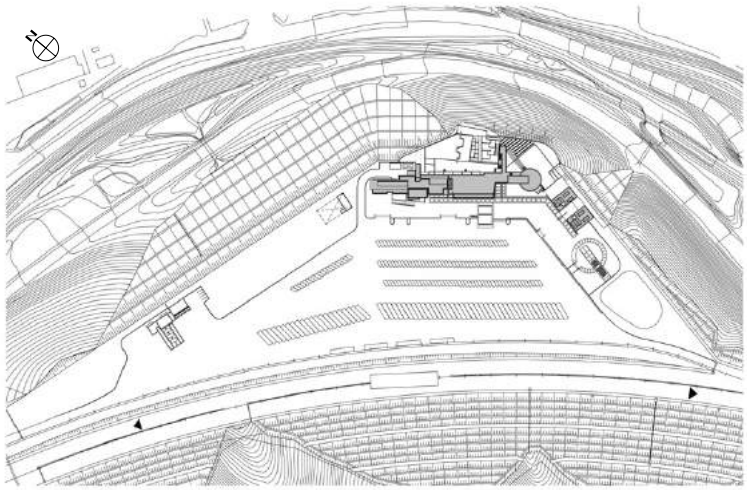
오히려 좋은 풍광에 육중한 휴게소 건물이 누(累)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장소적 혜택이 있는 곳이었다. 인삼랜드 휴게소에서도 그랬듯이 필자는 휴게소 건축에서 먹고 배설하는 기능보다는 쉴 수 있는 장소와 풍경을 잡는데 더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절토와 성토를 거쳐 이미 변형 되어 완성된 터위에서 단순한 기능과 단순한 배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주변의 자연을 끌어들이고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고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지는 북쪽으로 시멘트 제조공장, 동쪽으로는 바다, 남쪽으로는 망상해수욕장이 내려다보이는 동해 바닷가의 높은 언덕이다. 시멘트 제조공장의 육중한 규모가 눈에 거슬리기는 했지만 그 공장덕분에 좋은 풍경이 얻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공장때문에 형성된 방파제가 두개가 있어 그 방파제 끝에 빨간색, 흰색의 예쁜 등대가 있는 멋진 풍경을 얻을 수 있었고 아울러 공장으로 드나드는 배가 있어 혹은 며칠간 바다 한 가운데 정박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람이 좀 있는 날이면 방파제와 등대, 해수욕장 주변으로 바다의 치아를 보는 듯 파도가 치는 모습이 연출된다. 늘 보는 망망한 바다는 멀미가 난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풍경은 순간순간 혹은 길게 혹은 짧게 변하는 바닷가의 풍광이 있었다. 필자는 휴게소의 어느 공간에서든 그 풍광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형태와 기능은 오히려 숨을 죽이고 잦아들게 하고 싶었다. 이곳에서의 휴식은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시작될 것이다. 자연의 빛(光)이 만들어 놓은 경치가 있고 눈을 씻을 수 있는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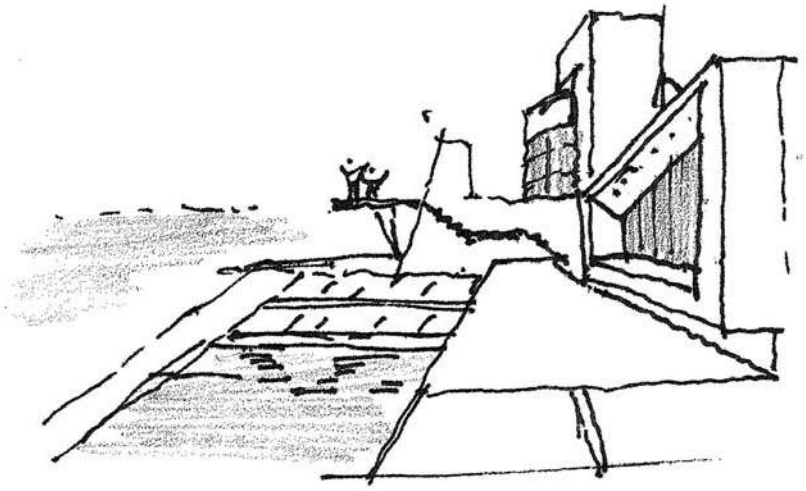
대지위치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산 2-2번지
지역지구 관리지역, 농림지역
용 도 관광 휴게시설(휴게소)
대지면적 70,954㎡
건축면적 3,935.92㎡
연 면 적 5,484.51㎡
건 폐 율 5.55% (법정 20% 이하)
용 적 률 6.80% (법정 80% 이하)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마감 THK 0.8 티타늄 아연판 , 노출콘크리트, THK24 컬러 복층유리
내부마감 THK12.5 석고보드, 비닐페인트
설계담당 이충기, 김영진, 이정륜, 양익서, 정낙건, 신현두
설계기간 2003. 03 ~ 2003. 07
공사기간 2003. 10 ~ 2004. 11

● 배치도



0 5 25 50m

Location San 2-2, Dojik-ri, Okgye-myeon, Gangneung-si, Gangwon-do, Korea
Site area 70,954㎡
Bldg. area 3,935.92㎡
Gross floor area 5,484.51㎡
Bldg. coverage ratio 5.55% (Law 20% down)
Gross floor ratio 6.80% (Law 80% down)
Structure R.C +S.C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two stories above ground
Design period 2003. 03 ~ 2003. 07
Construction period 2003. 10 ~ 200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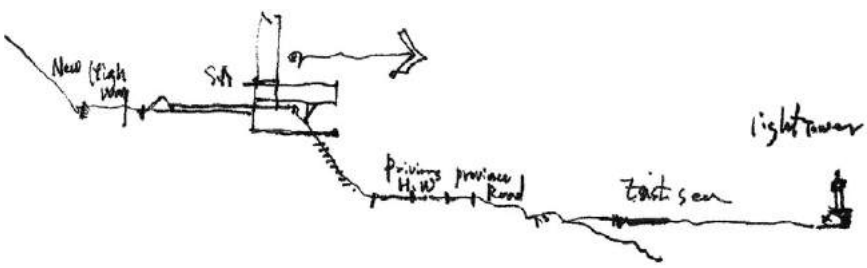
바람(風)이 그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내 나는 "자연풍광이 쉼터를 만들었으나(風光作休) 내가 오히려 자연의 쉼터를 방해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건물로 자연을 훼손함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1_ 휴게동 후면데크에서 본 모습
2_ 휴게동 후면좌측에서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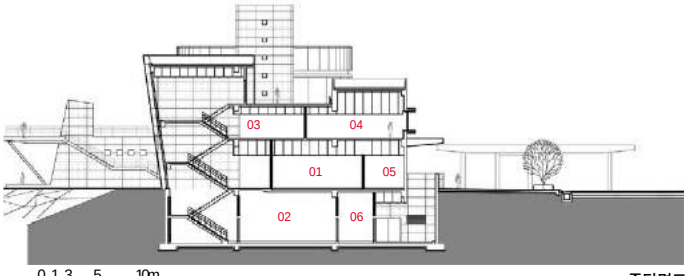
1_ 전체 전경
2_ 휴게동 후면 건축화 조경
3_ 전망대 모습
4_ 휴게동 전면좌측에서 본 모습
5_ 전면캐노피
6_ 전망대 아래에서 바다를 바라본 모습

0 1 3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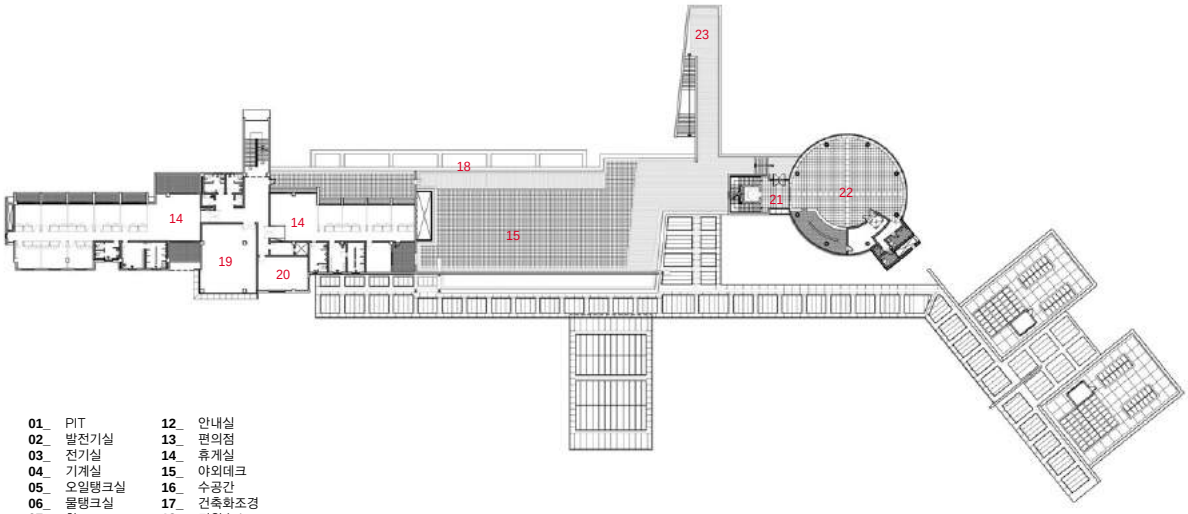
우측면도



01_ 주방
02_ 기계실
03_ 복도
04_ 사무실
05_ 창고
06_ 관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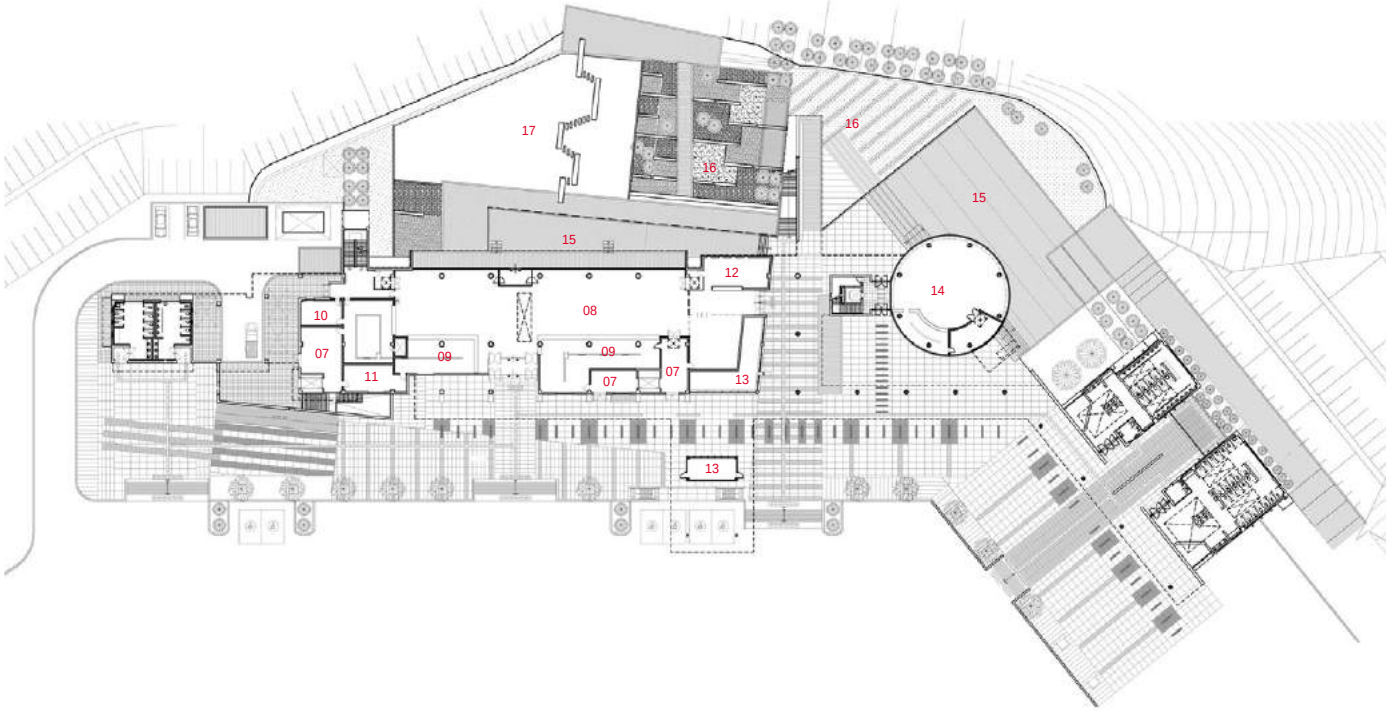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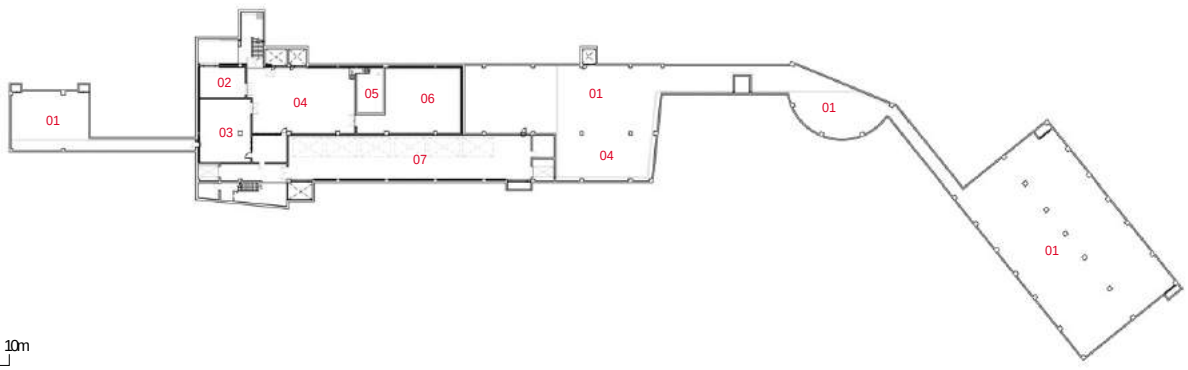


01_ PIT
02_ 발전기실
03_ 전기실
04_ 기계실
05_ 오일탱크실
06_ 물탱크실
07_ 창고
08_ 매장
09_ 매장주방
10_ 직원식당
11_ 주방
12_ 안내실
13_ 편의점
14_ 휴게실
15_ 야외데크
16_ 수공간
17_ 건축화조경
18_ 직원숙소
19_ 사무실
20_ 소장실
21_ 홀
22_ 전망대
23_ 전망데크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0 1 3 5 10m

지하1층 평면도

1_ 전망대 내부에서 바라본 모습
2_ 옥매장 내부
3_ 화장실 내부

우수상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_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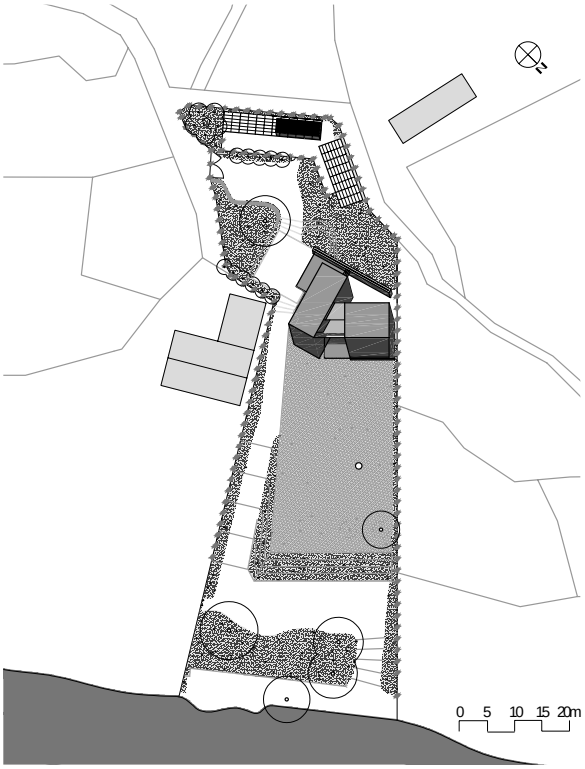
수입777
Su-ip 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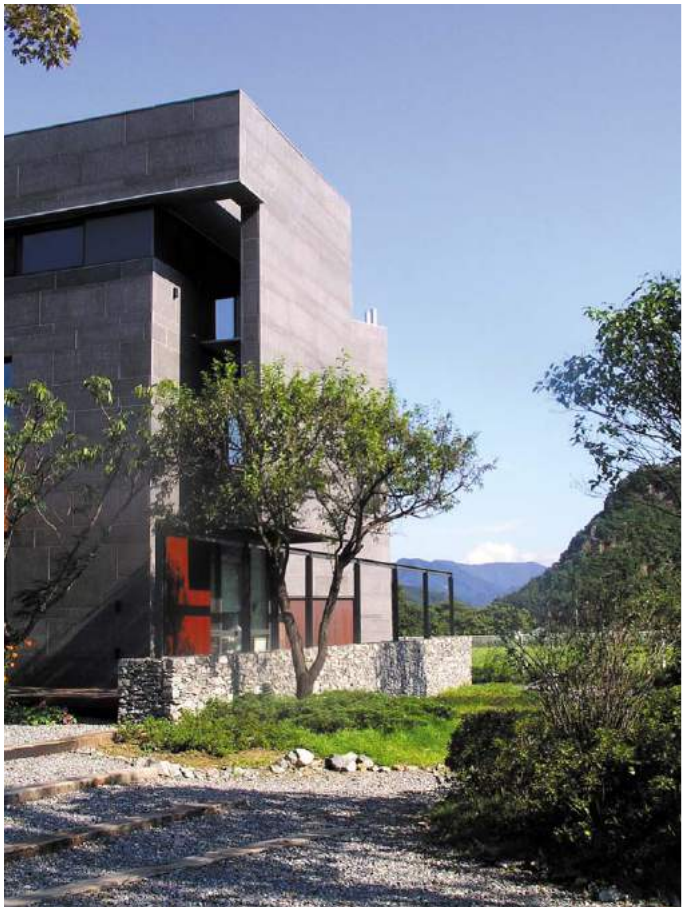
설 계 자 |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이성관
시 공 자 | 황숙정
건 축 주 | 황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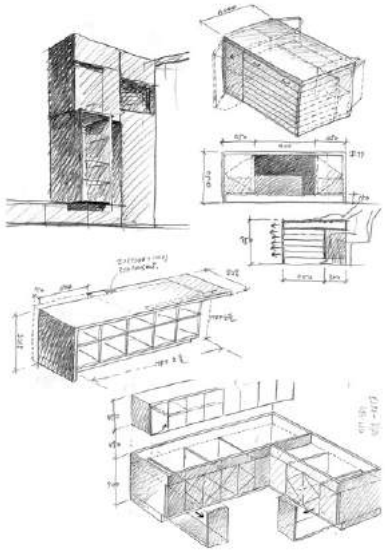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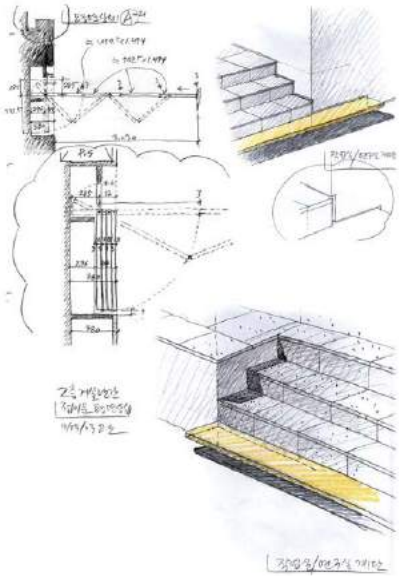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777-1
지역지구 농림지역
용　　도 주거 및 작업실
대지면적 222.0㎡
건축면적 125.8㎡
연 면 적 325.4㎡
건 폐 율 56.7%
용 적 률 146.60%
규　　모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마천석기계잔다듬, 단열유리, 이페나무, 내후성강판
설계담당 이희재
구조설계 미래이엔씨
전기설계 진전기
기　　계 성일이엔씨
Location 777-1, Suip-ri, Seojong-myeon, Yangpyeong-gun, Gyeonggi-do, Korea
Site area 222.0㎡
Bldg. area 125.8㎡
Gross floor area 325.4㎡
Bldg. coverage ratio 56.7%
Gross floor ratio 146.60%
Structure R.C
Bldg. Scale three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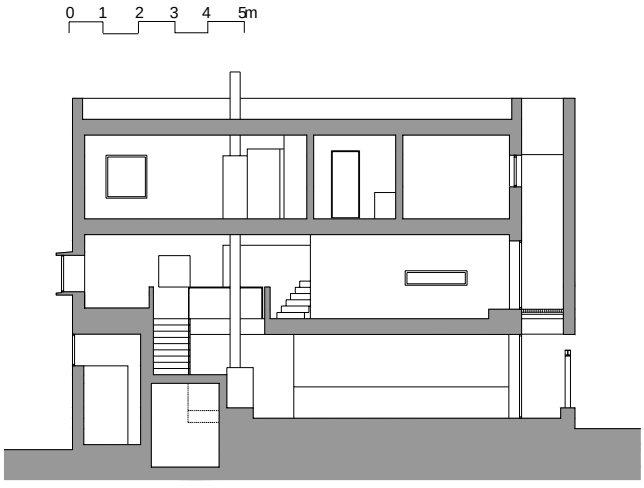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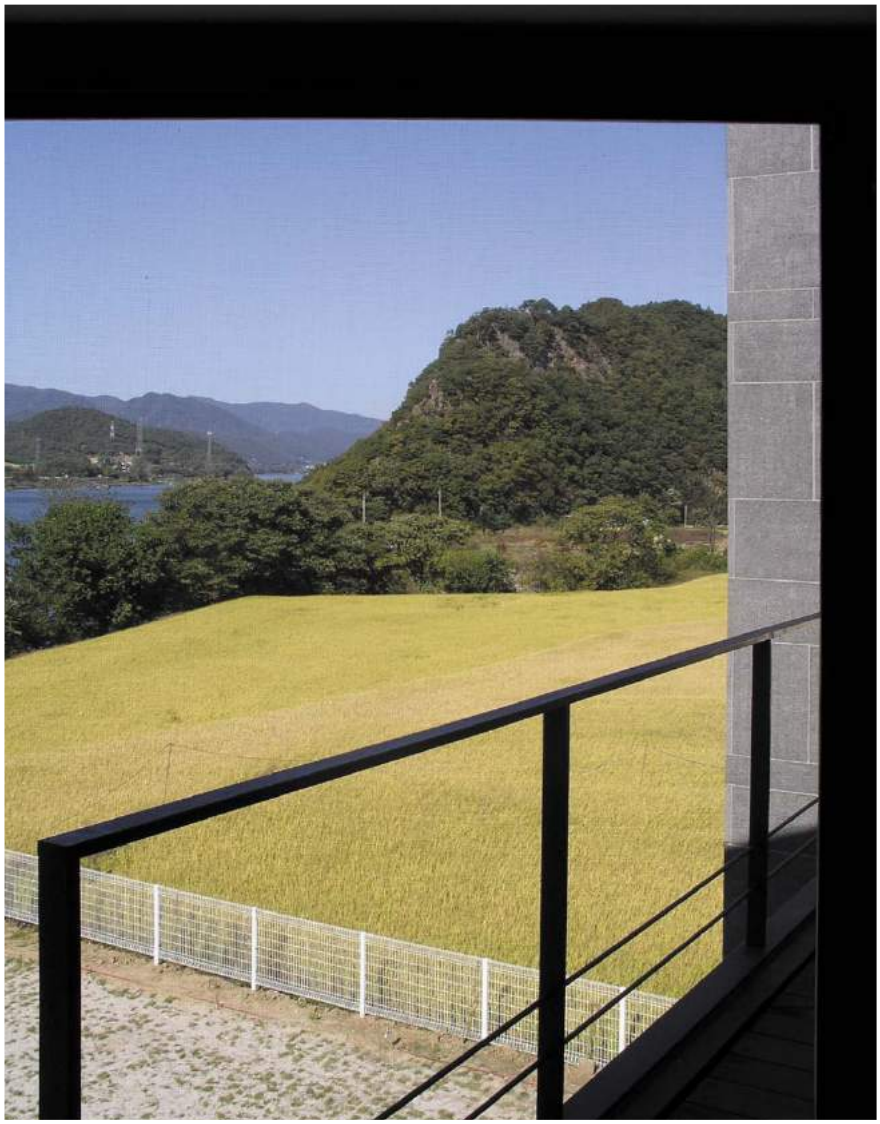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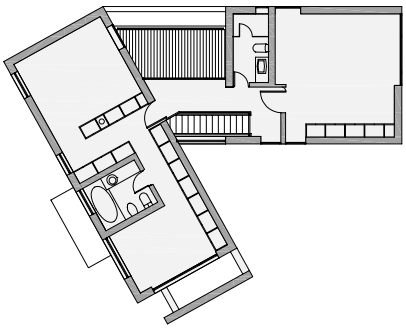
북한강변에 면한 부지는 논과 산으로 어우러져 전형적인 전원의 풍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으며, 때때로 자욱한 안개는 주위를 더욱 운치 있게 한다. 반딧불이, 백로, 명아주, 다슬기, 개구리, 고라니, 쇠비름, 개구리, 달개비 …, 그리고 더 많은 별을 가지는 밤하늘.

강을 면하는 일단의 세장한 부지 중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오각형상의 비정형 소필지 대지가 있고 건물은 그 위에 놓인다. 자제들을 이미 출가 시킨 부부를 위한 주거와 작업실을 겸한 주택이다.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건물은 3개 층으로 되며, 사진작가인 부인을 위한 작업공간은 1층에 놓이고, 2층은 생활공간, 3층은 사적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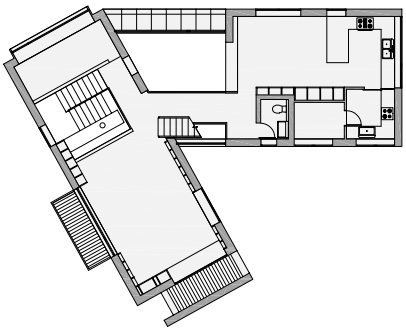
평면구성은, 대지외곽선에서부터 채워가면서 가운데를 오히려 비워두는 형국으로 전개된다. 단면상으로도 각 층간이나 실내외간은 상호 열리기도 하고 교차되어 뚫리기도 하면서 서로연결 되어 건물이 부지 가운데를 점유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전후간의 단절을 다시 소통시키려 했다. 상·하, 안·밖, 전·후 간의 이러한 공간적 소통은 2인을 위한 이곳에서의 삶을 보다 직접적이고, 촉감적이 되게 하면서 자연과의 소통, 풍경간의 소통, 사람간의 소통을 이루어 가게 한다.

평면의 형상은 폭 4.8m와 6m의 장방형이 서로 V자 형상으로 만나면서 얹힘과 포갬을 반복한다. 단면상으로는 보 없는 벽식구조로 외벽두께 18㎝, 평슬라브 두께 18㎝, 층고는 2.85m이다. 밖으로부터의 시선은 주변으로부터 건물이 솟아 보이지 않도록 1층 바닥높이를 논바닥에 거의 밀착시키고, 건물의 층간 높이도 가급적 낮게 하여 3층 주거건물이 갖는 수직 동선상의 운동량도 가급적 줄이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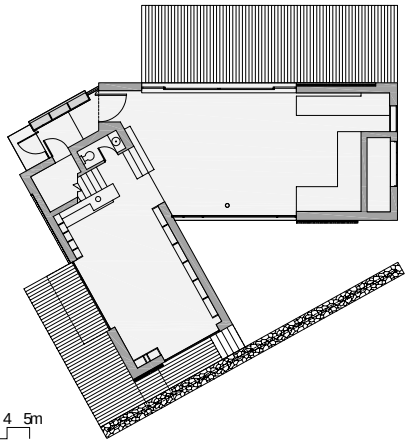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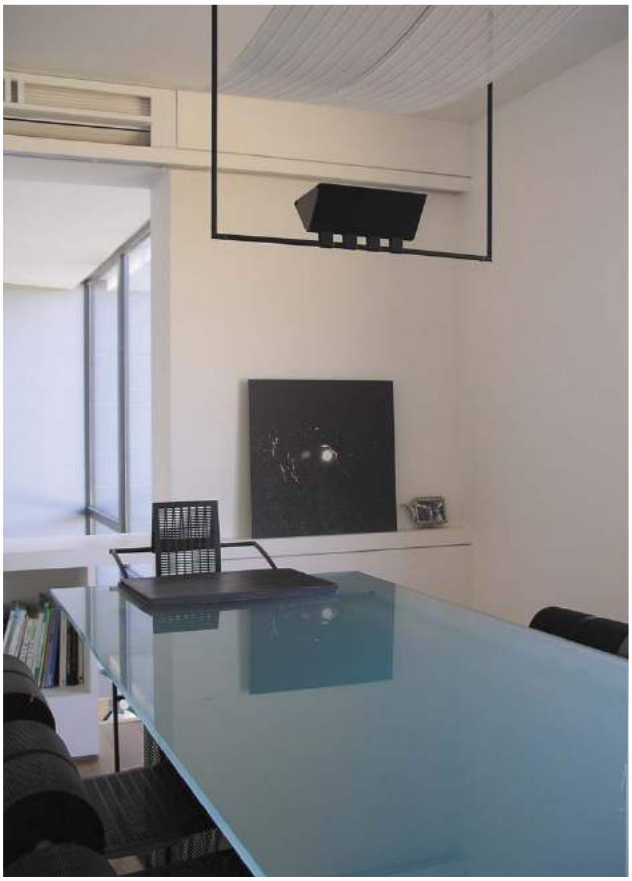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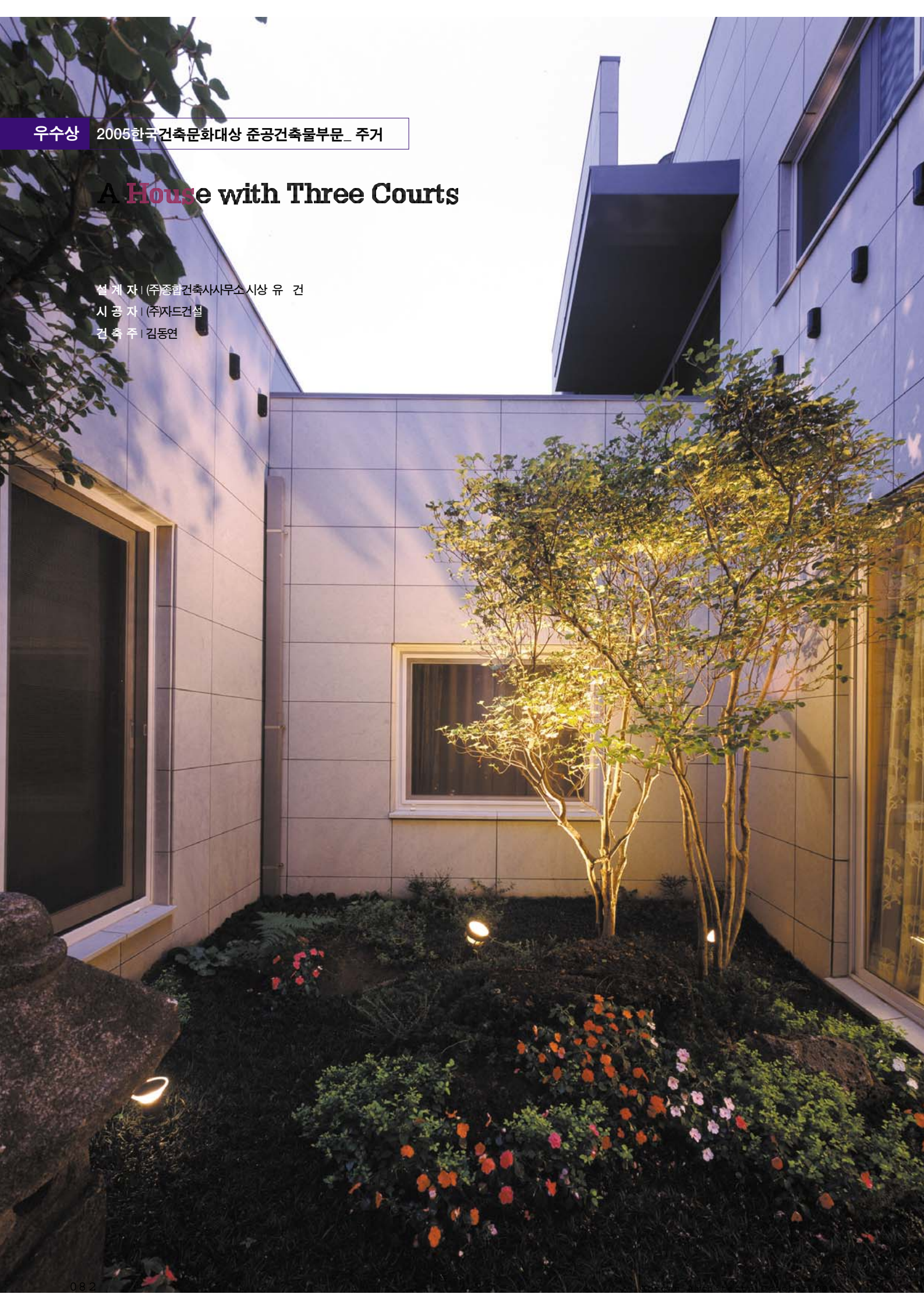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우수상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_ 주거

A House with Three Cou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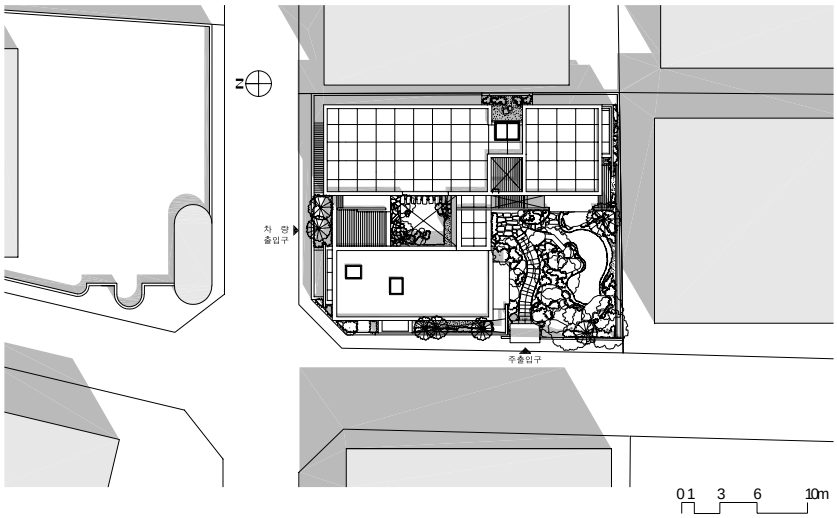
설 계 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시상 유 건
시 공 자 | (주)자드건설
건 축 주 | 김동연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01-1
용 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523.50㎡
건축면적 275.04㎡
연 면 적 465.95㎡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외부마감 THK30 대리석
내부마감 대리석, 우드플로링, 석고보드위 도장
설계담당 김율모, 김학균
인테리어 중앙디자인
구조설계 P.E.G. 구조 컨설턴트
설비설계 정도설비
전기설계 대화기술단
조 경 비 · 오 이엔씨
설계기간 2003. 06 ~ 2003. 11
공사기간 2003. 11 ~ 2005. 02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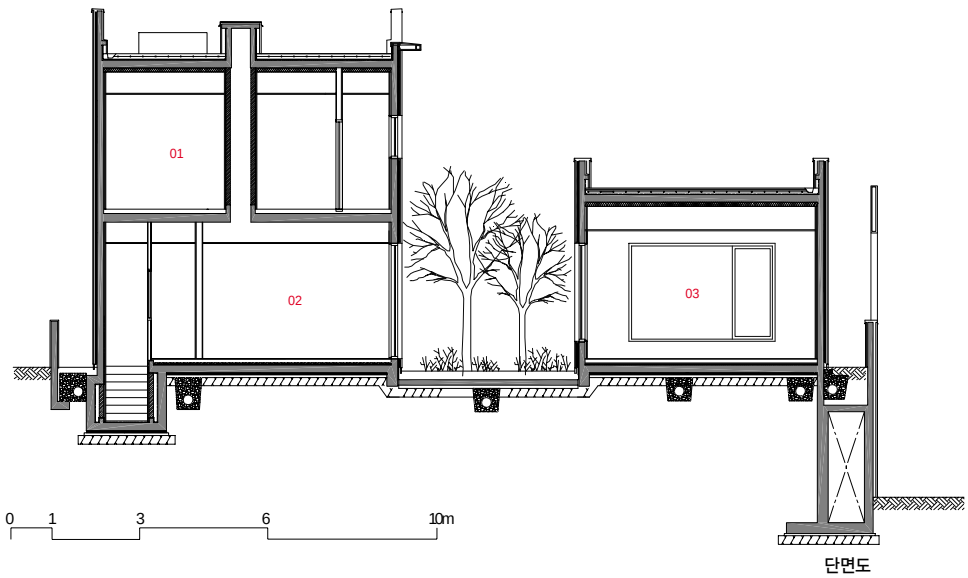
1 2
1_ 중정
2_ 정원에서 본 외관

Location 101-1, Banpo-dong, Seoch-gu, Seoul, Korea
Site area 523.50㎡
Bldg. area 275.04㎡
Gross floor area 465.95㎡
Structure R.C
Bldg. Scale ons story below ground, two stories above ground
Design period 2003. 06 ~ 2003. 11
Construction period 2003. 11 ~ 2005.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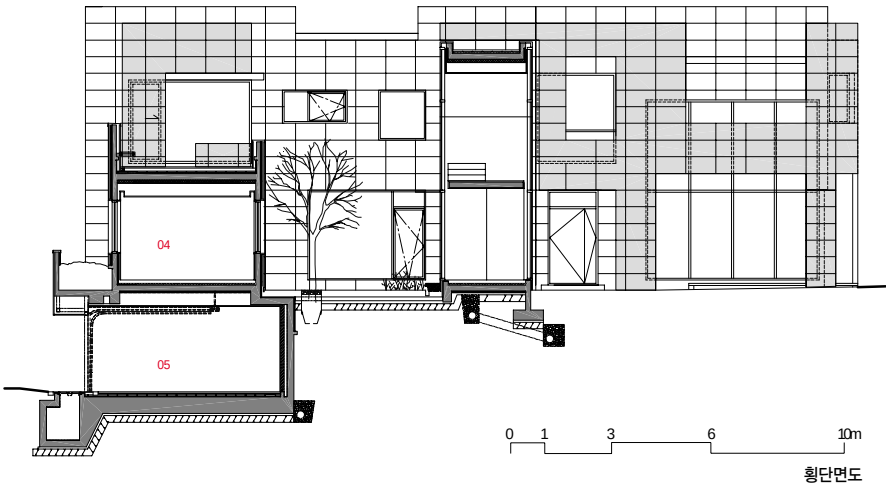
전통 가옥의 'ㄴ자'와 'ㅁ자' 평면을 활용한 복합구성으로 3개의 정원을 갖는다. 각 실마다 2면의 개구부 설치로 많은 빛이 실내의 여러 부분으로 유입되도록 하였으며, 내부 공간과의 교류는 원활하게 하면서 외부로의 노출은 최소화하며 각 실이 면하는 방향은 선택사항이 되도록 하였다. 전통가옥의 처마를 재해석하여 2중 구조의 외벽으로 내 · 외부 사이의 중성적 공간을 설치하였다. 이는 적절히 가려진 노출과 오후 직사광선의 조절을 가능하게 하고 형태 구성의 요소로 적극 활용되었으며, 중정을 통해 보이는 여러 Court 공간의 중첩과 맥을 같이 한다.

1_ 계단실을 통해 보이는 중정과 내실
2_ 중정에서 계단실을 통해 보이는 정원
3_ 2중 구조의 외벽
4_ 2중 구조의 외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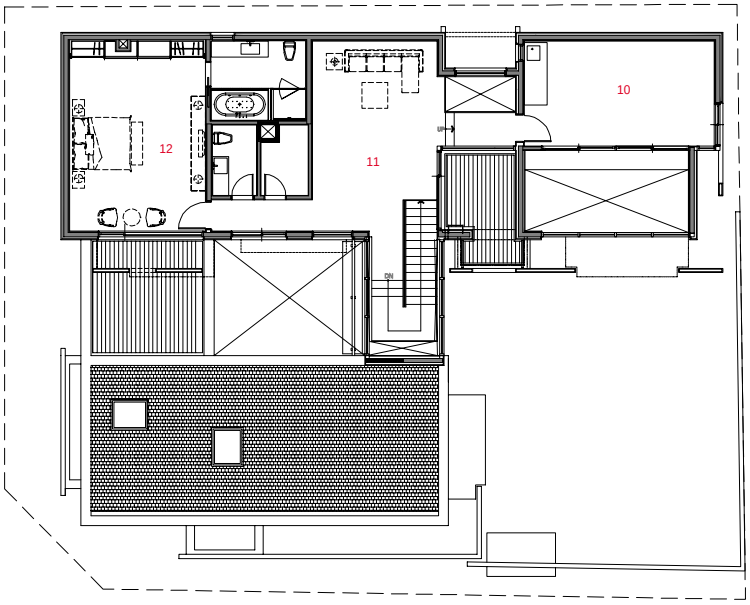
01_ 욕실
02_ 식당
03_ 한실
04_ 내실
05_ 주차장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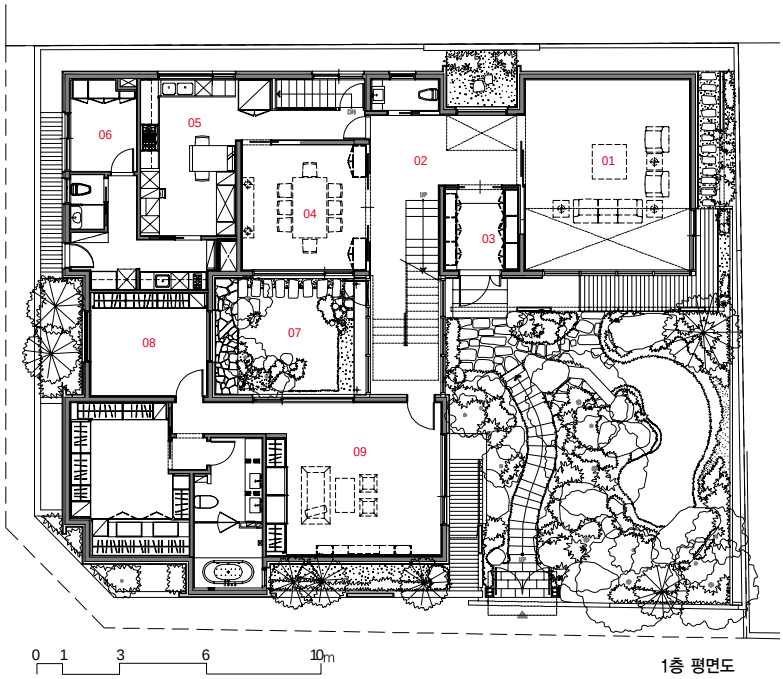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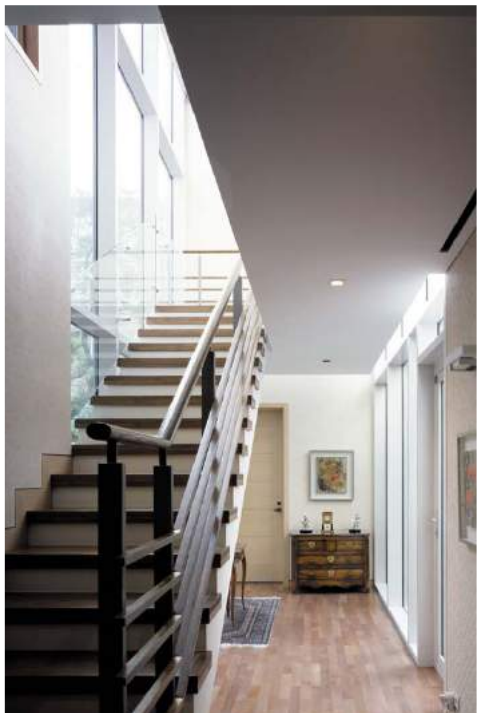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01_ 거실
02_ 홀
03_ 현관
04_ 식당
05_ 주방
06_ 가정부실
07_ 중정
08_ 내실
09_ 한실
10_ 취미실
11_ 가족실
12_ 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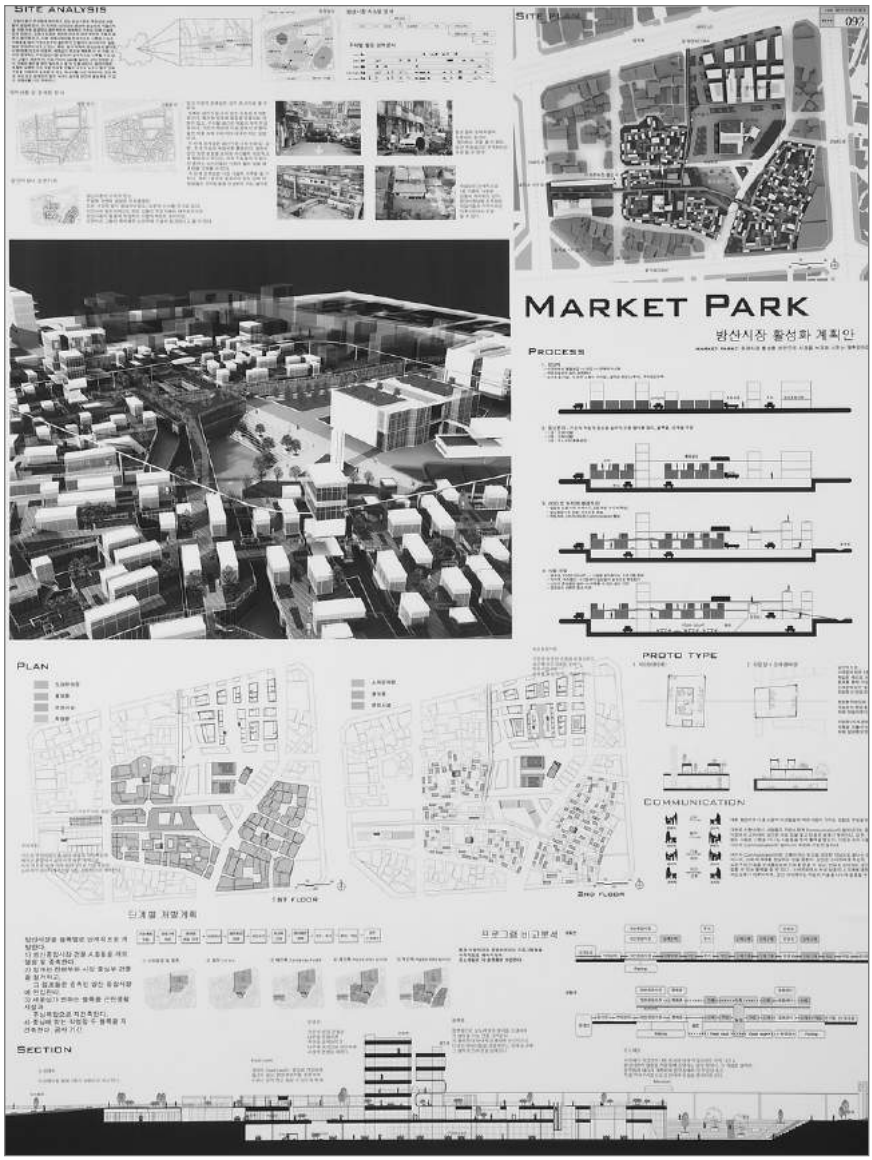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_ 거실 (정원과 2중구조의 외벽, 실링의 높이차로 적절한 채광과 프라이버시 확보)
2_ 정원과 중정 사이에 위치한 계단실
3_ 정원과 중정 사이에 위치한 계단실



커뮤니케이션-
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계획안

김규태 유소래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한재희 |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1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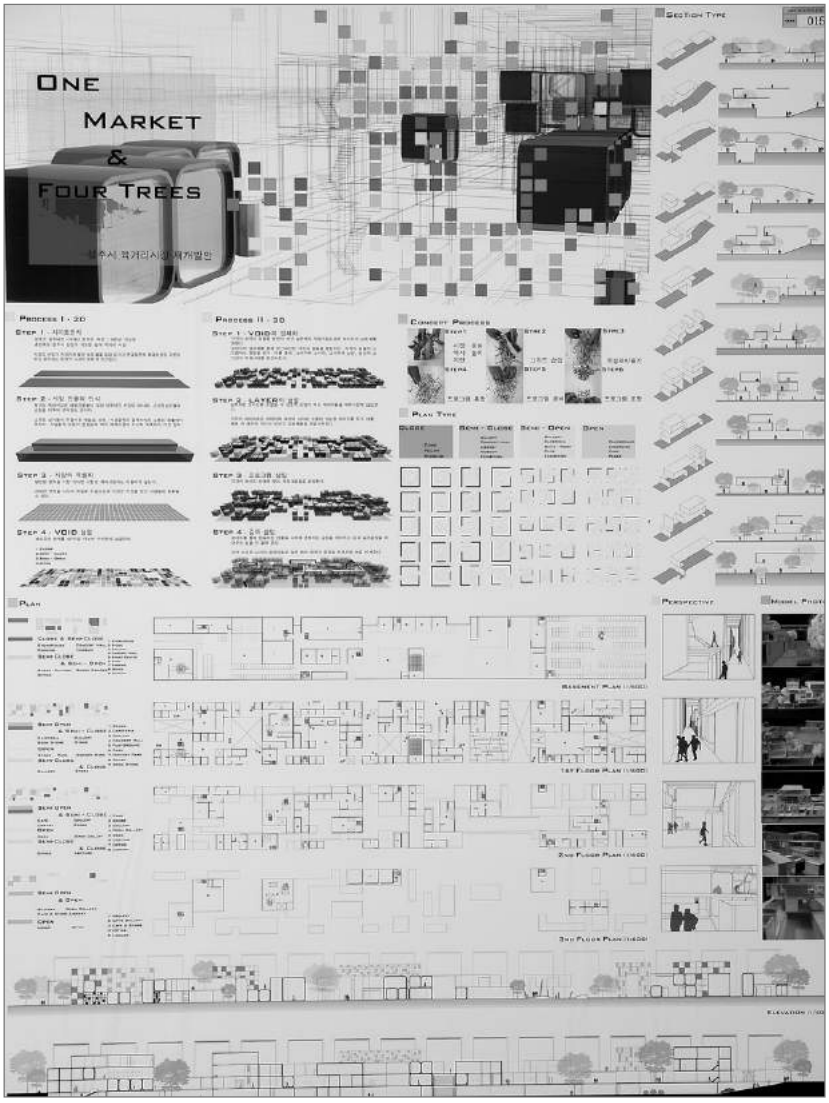
시장 주체간의 C●mmunicati●n 활성화 공간 계획

방산시장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시장 내의 모든 도로의 보차혼용, 두 번째는 시장 내의 인쇄업, 상업, 주거 기능의 무질서한 혼재, 세 번째는 시장 시설의 낙후이다.

방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방산시장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방산시장의 주체인 판매자, 작업자, 도매자, 소매자 이 모두를 위한 계획을 고려하는 동시에 이들 사이의 Communication(소통/매개체를 전달하는)이 일어나는 공간을 중점으로 생각했다.

One Market & Four Trees

이선재 |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박은미 변나향 |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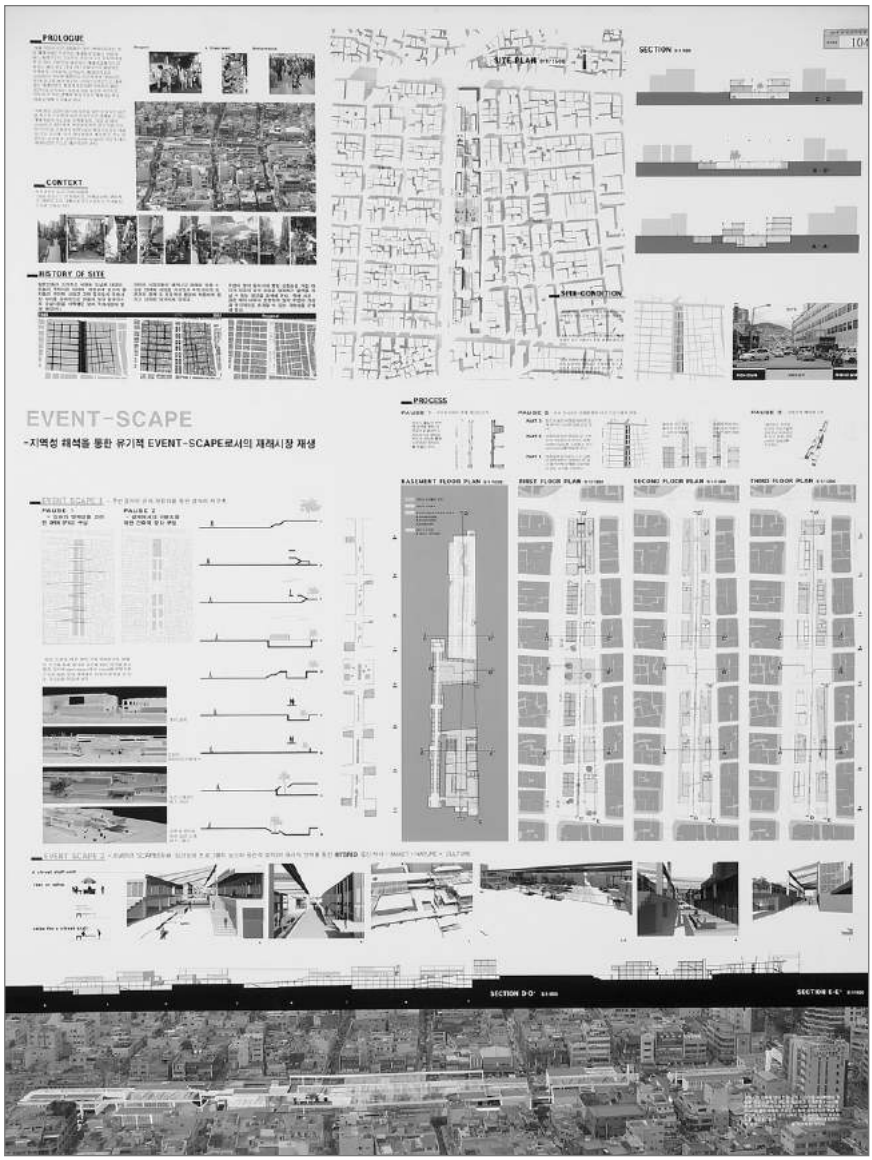
육거리 재래시장-V●id 단계에 따른 프로그램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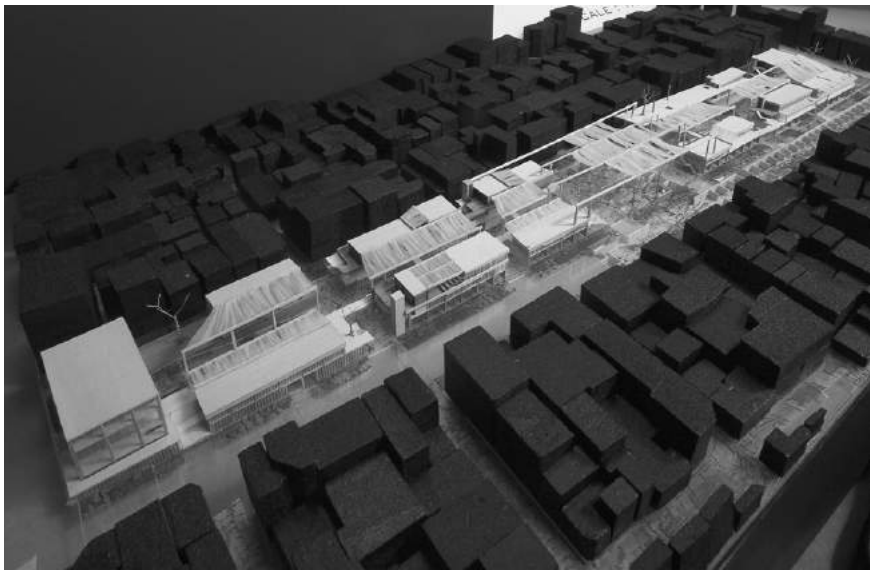
나무는 햇빛을 잎으로 받아 광합성을 하여 영양분을 생성, 생명을 영위한다. 때문에 잎과 잎 사이의 Void는 햇빛을 고루 받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건축적도 이와 같다. 그러나 현재 청주시 석교동에 위치한 육거리 재래시장은 흡사 햇빛이 들어 올 수 없을 만큼 빽빽한 잎들을 가진 나무와 같다.

이러한 육거리 재래시장 내에 Void(close, semi-close, semi-open, open)를 제공하고, Void의 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장 내에 삽입함으로써 새로운 재래시장의 모습을 기대한다.

지역성 해석을 통한 유기적인 Event-Scape로서의 재래시장 재생

김경현 노대만 문진아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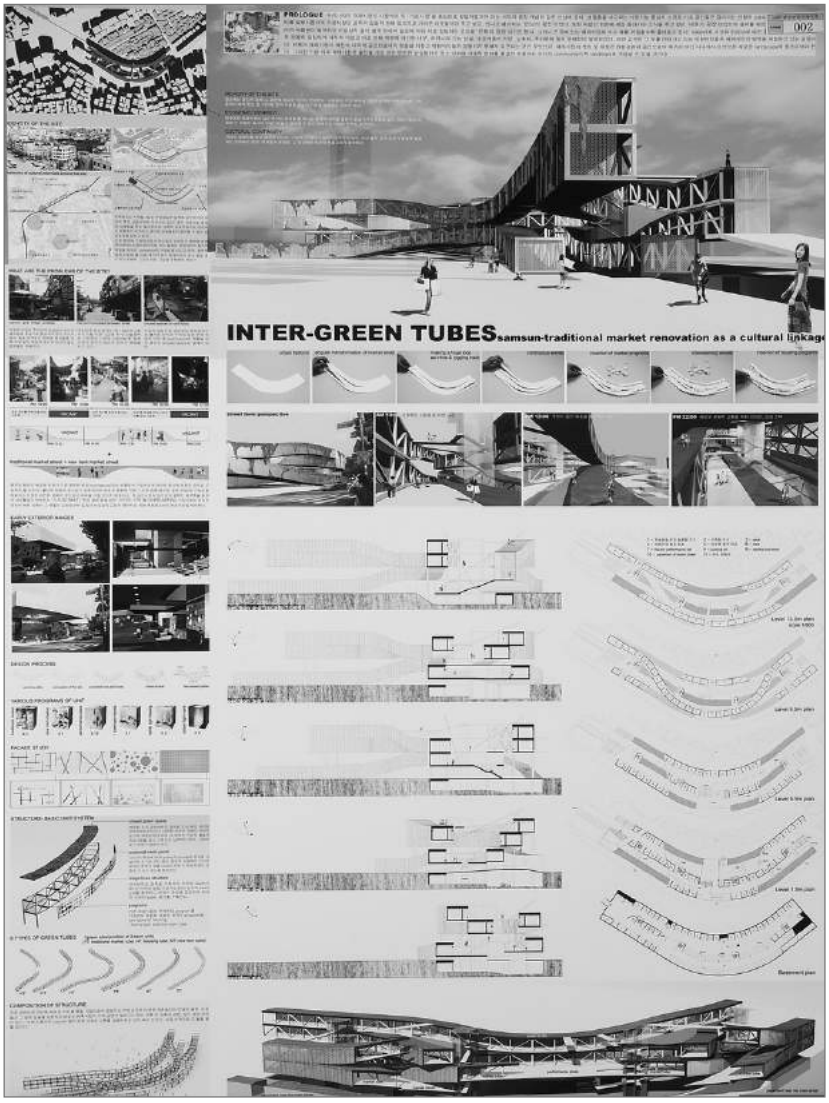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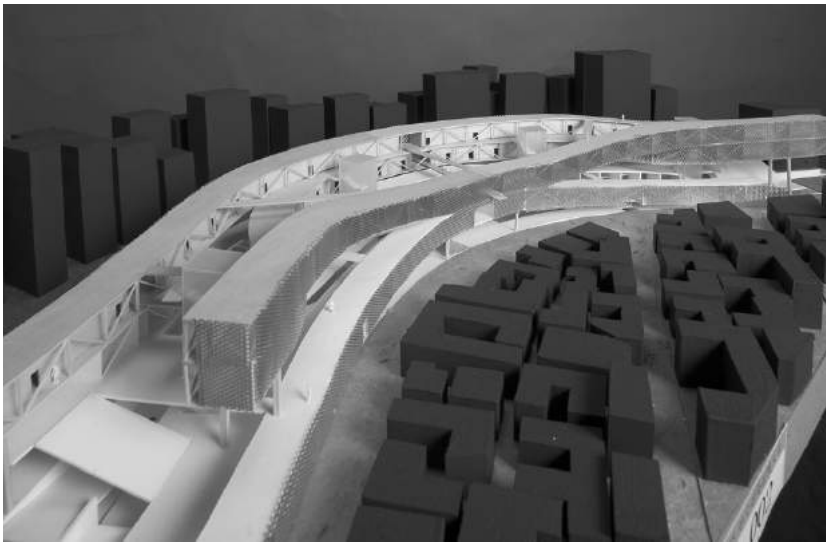
장소성 회복과 확장 가능성 지닌 Event Scape 구성

주변의 유동적인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섬처럼 남겨진 부산 국제시장, 흐름만이 존재하는 이 시장공간에 다양한 Event-Scape와 주변의 기능을 서브하기 위한 Open-Space를 통해서 국제시장 뿐만 아닌 주변 시장까지 활성화시킴으로써 과거 국제시장이 가진 의미를 회복한다. 또한 Event-Roof를 통한 주변거리 공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가변적인 Event를 수용함과 동시에 주변의 거리공간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삼선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안

이승택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디자인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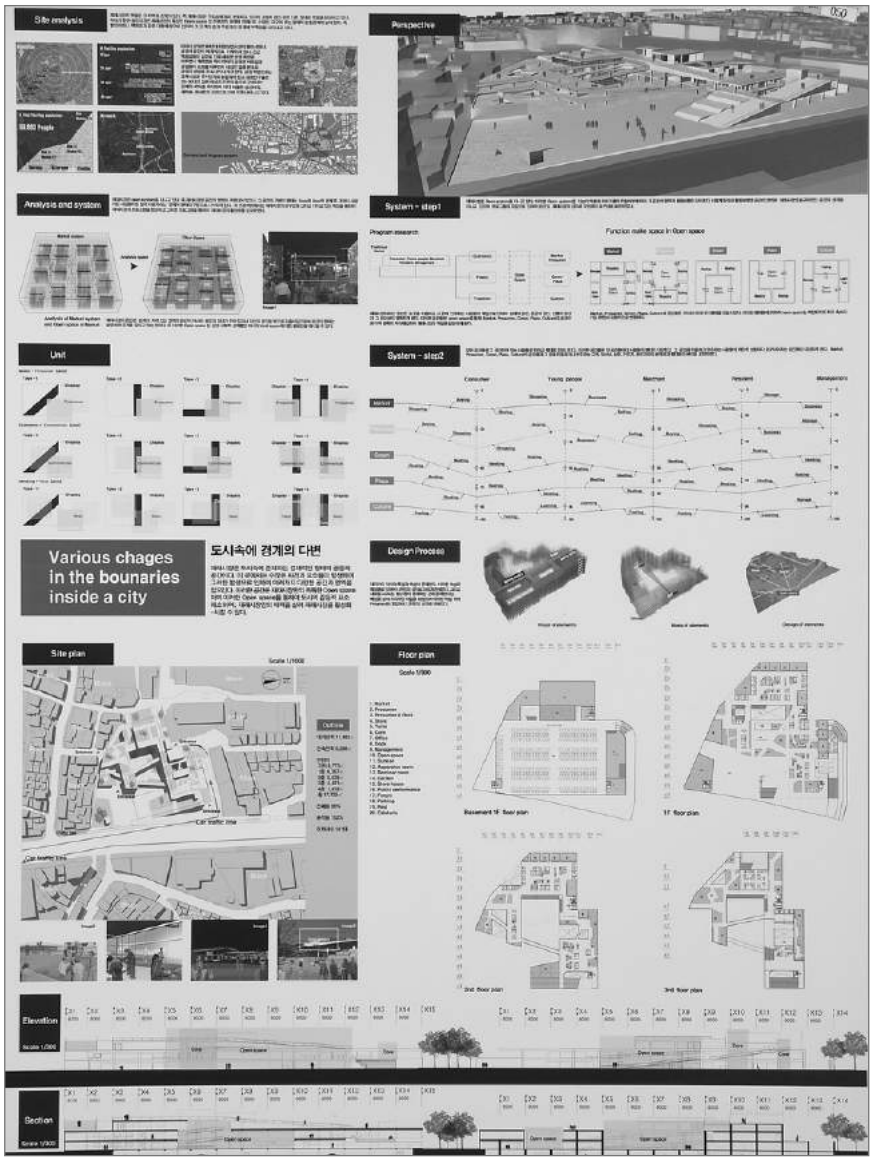
새로운 문화복합체로의 변화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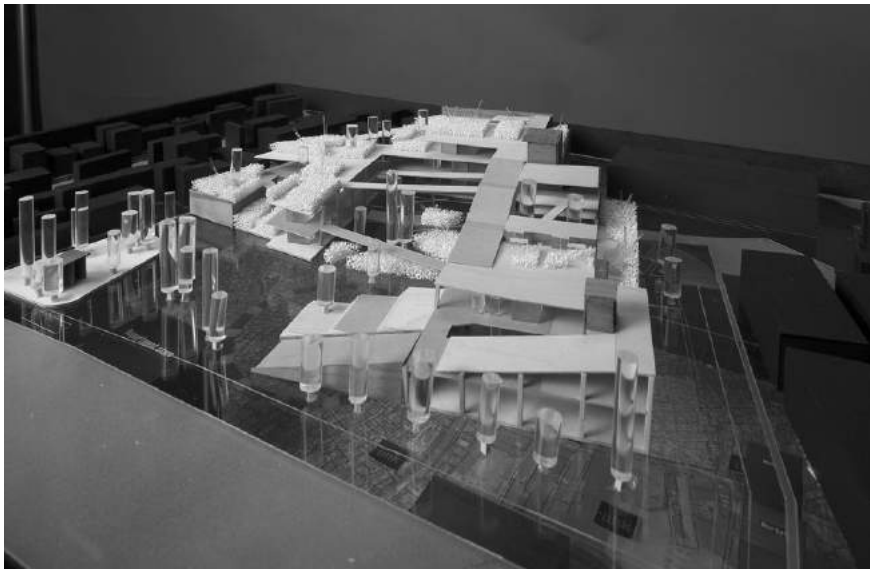
삼선시장의 삼선상가는 역세권(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동소문로와 보문로가 교차되는 그리고 혜화역(대학로)과 성신대역을 잇는, 젊음의 문화거리를 잇는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점심 및 오후, 폐장시간대에는 공동화현상을 보일 정도로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

이를 개선키 위해 새로운 성격의 프로그램을 생성시켜 주변의 젊은 층을 흡수하고, 사람의 연령대와 상관없이 그들의 행위를 담을 수 있는 곳, 일상과 비 일상이 교묘히 섞이는 공간, 단순한 상업시설의 의미를 넘는 새로운 문화복합체로의 변화를 모색한다.

도시속의 경계의 다변

문준수 김민호 박소희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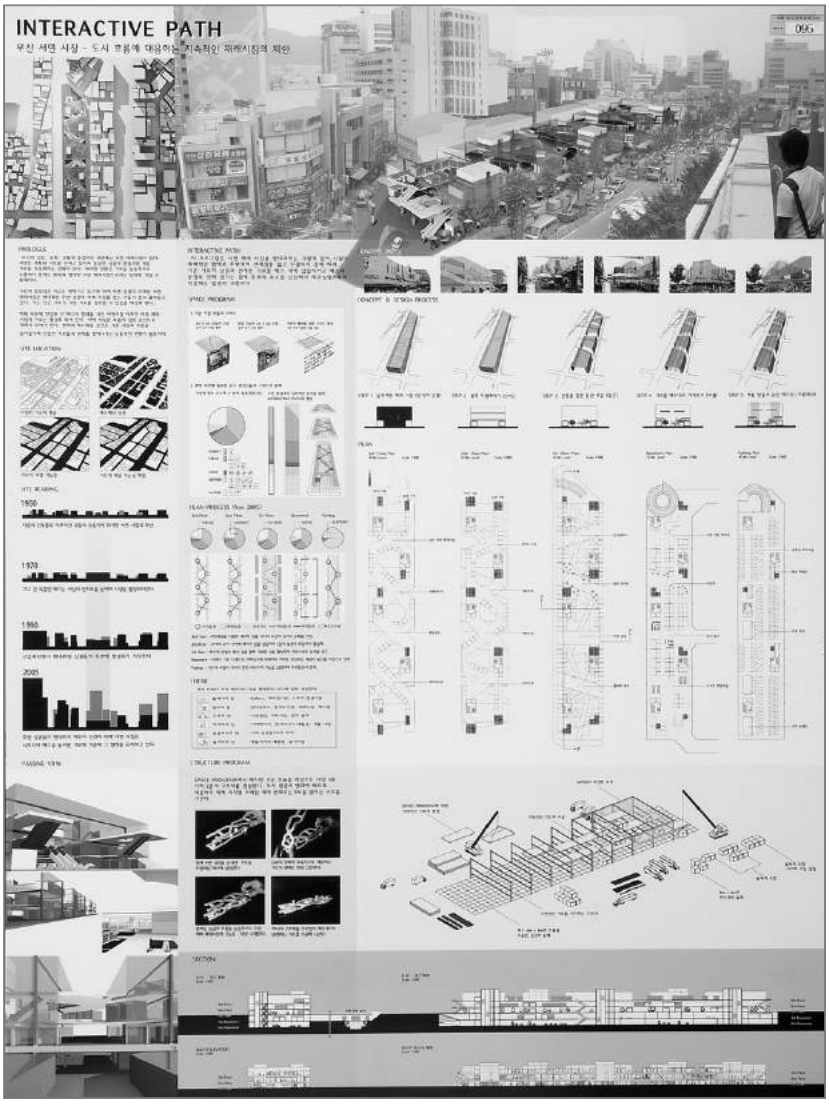
도심의 공원화 형성, 소통적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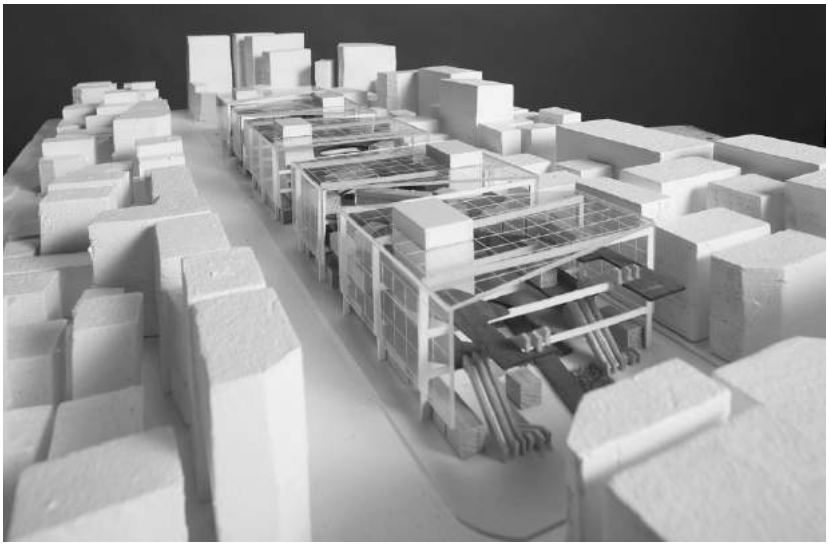
숭인시장이 위치한 미아리 상권은 대로변 백화점과 상점 등과 조화롭게 성장하고 있는 상권이다. 이복잡한 밀도에서 숭인시장을 도심 속 재래시장의 구성으로 삼아 문화의 한 형태로 탄생시켜 주변상권들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재래시장은 수많은 Community를 형성하여 서로간의 정보교환 및 경쟁적인 반 통합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Community가 Link됨으로써 만나는 점에 Node가 형성한다. 이것은 노점의 형태를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시스템에 도심의 공원화를 형성함으로써 도심의 소통적 역할과 Prosumer와 같은 또 다른 노점과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부산서면시장-
도시흐름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재래시장의 제안

변성진 최광헌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가로(Path) 삽입으로 변화 모색

부산 서면 시장은 폐쇄적이고 거대한 형태로 인해 인접한 시장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길과 면한 상권만이 남아있을 뿐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 가로의 상권과 연계한 가로를 삽입시켜 변화시키고 관계성을 재구성하여 인접한 시장 가로와의 관계, 젊은 층의 거리로 불리는 서면 일번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한다.

서면 시장의 거대한 매스를 5개로 분절하여 4개의 Open Space를 만든다. 이 공간에 테마를 두어 동선을 유입시키고 시각적인 연결과 확장을 시도한다.

서울시청사 증 · 개축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Idea Competition for Design of The Seoul City Hall

현재 서울시청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공간의 협소와 이에 따른 사무처의 분산 그리고 시설의 노후로서 그간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등에 따른 업무시설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키 위해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현 시청본관의 청사 부지를 활용한 증 · 개축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아이디어 · 턴키공모' 방식에 따라 '시청사 증 · 개축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6월 24일 공고하였다.

그 결과 국내 건축사사무소 33개 작품이 응모하였고, 심사위원들은 작품의 완성도 보다는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에 주목하여 상징성과 배치,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부분을 개별 카테고리로 나누어 심사한 결과 각각 최우수작과 우수작 7작품을 지난 9월 2일 발표하였다.

최우수작 7작품에게는 상장 및 상금 각 2,000만원, 우수작에게는 상장 및 상금 각 1,000만원이 수여됐으며, 아울러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7작품의 설계자가 시청사 증 · 개축을 위한 설계 · 시공 일괄입찰(턴키)에 참여할 경우 일정한 규모의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서울시청사는 2006년도에 실시설계 및 공사가 착공되어 2009년도에 준공 및 입주 예정이다.

• 수상작명단(무순)

– 최우수작 : (주)원양건축사사무소(이종찬), (주)정림건축사사무소(김정철),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안길원 외 1인),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박 승), (주)원도시건축사사무소(변 용),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조주환),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김홍철 외 1인)

– 우 수 작 : (주)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서진철 외 1인), (주)단우건축사사무소(최명철), (주)야마사키코리아건축사사무소(상대정), 운생동건축사사무소(신창훈 외 1인),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정영균), 아름건축사사무소(박훈영), (주)엄엔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이관표)

• 심사위원 : 서기영 교수(성균관대), 김남응(단국대), 신유진 교수(광운대), 심재현 교수(세종대), 정재용 교수(홍익대), 조종수 교수(건국대), 이윤희 교수(이화여대), 김정신 교수(단국대), 김세용 교수(건국대)

• 대지위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태평로 1가 31)

• 부지면적 : 12,709㎡

• 건축규모

〈증축〉

– 층 수 : 지하4층, 지상 22층(도심발전계획상 최고 90m 이내)

– 연면적 : 88,050㎡ 내 · 외

〈리모델링〉

– 본관동 : 8,506㎡

문의 : 서울시 건축과 청사증축팀

02-2171-2314

현재 서울시청 모습

최우수작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안길원)+(주)
무영아멕스종합건축사사무소(길기석)
+Destefano & Partners, Ltd.(scott A. Sarver)

건축면적 7,623㎡
연 면 적 96,136㎡
건 폐 율 59.9%(법정60%)
용 적 률 593%(법정600%)
규 모 지하 3층, 지상 21층
주차대수 158대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트러스조
외부마감 로이복층유리, 샌드복층유리, 금속패널, 알루미늄시트
설 계 팀 무영 : 조민건, 노광현, 김재국, 정용환
무영아멕스 : 윤동환, 김동균, 김선아, 이기홍, 이정훈, 오영석
Destefano & Partners, Ltd. : Scott A. Sarver, 민대홍

최우수작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박 승 · 김관중) +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박항섭)

건축면적 7,546.84㎡
연 면 적 94,388.78㎡
건 폐 율 59.38%
용 적 률 580.44%
규 모 지하 3층, 지상 21층
주차대수 지하 151대, 지상 4대
구 조 철골조
외부마감 유니커튼월(THK24, 저반사복층유리)

최우수작 / (주) 원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변 용)

건축면적 7,611.32㎡
연 면 적 87,014.00㎡
건 폐 율 59.89%
용 적 률 576.78%
규 모 지하 4층, 지상 21층
주차대수 156대(지상 장애인주차 3대, 대형버스 주차 3대 포함)
구 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맑은복층유리, 알미늄커튼월 후레임
설 계 팀 이기정, 김종수, 송 훈, 유은정, 원흥재, 김예진

최우수작 /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박승홍 · 백문기)

건축면적 7,608.49㎡
연 면 적 87,128.75㎡
건 폐 율 59.86%
용 적 률 515.24%
규 모 지하 4층, 지상 20층
주차대수 162대(지하 158대, 지상 4대 , 장애인주차 6대 포함)
구 조 철골조 + SRC조
설 계 팀 이병호, 배기두, 김성우, 김용만, 오태훈, 조정연, 고대영, 신준석, 박지선

최우수작 /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조주환)

건축면적 7,416.1㎡
연 면 적 95,986.4㎡
규 모 지하 4층, 지상 22층
주차대수 150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외부마감 Low-E 패턴컬러 복층유리, Low-E 컬러 복층유리, AL 패널
설 계 팀 윤정현, Jin Hwang, Allis Chee, Taek Kim, 손용원, 권민아, 김선주, Soobong Bang

최우수작 / (주)원양건축사사무소(이종찬)

건축면적 6,064.95㎡
연 면 적 92,385.80㎡
건 폐 율 47.72%
용 적 률 499.01%
규 모 지하 3층, 지상 22층
주차대수 175대(장애인주차 5대 포함)
설 계 팀 장순택, 김대홍, 석진수, 박정만, 김종수

최우수작 / 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김홍철) + SKM 디자인 (민성진)

건축면적 6,297.3㎡
연 면 적 85,994.7㎡
건 폐 율 49.5%
용 적 률 438.5%
규 모 지하 3층, 지상 21층
주차대수 계획 154대 ()지침150대)
구 조 철골조(S)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SRC)
외부마감 유리커튼월, 유리루버, 태양집열판
설 계 팀 창조건축 : 황창석, 이정섭, 표건우
SKM 디자인 : 김대익

우수작 / (주)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서진철) + 혜인건축사사무소(장영생)

건축면적 7,565.33㎡
연 면 적 93,356.11㎡
건 폐 율 59.53%
용 적 률 553.38%
규 모 지하 4층, 지상 21층
주차대수 150대(장애인용 4대포함)
구 조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HK24 로이복층유리, 테라코타패널
설 계 팀 노세종, 이병희, 홍상준, 박제환, 이병철, 최승민, 민지현, 강종구, 조덕상, 홍석우

우수작 / (주)단우건축사사무소(최명철)

건축면적 7,547.28㎡
연 면 적 92,136.00㎡
규 모 지하 3층, 지상 22층
주차대수 지상 3대, 지하 147대 (장애인주차 4대 포함)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투명 · 컬러 복층유리, 알루미늄 패널, 티타늄 패널
설 계 팀 심우근, 송은경, 김수호, 배지민, 이재영, 이상일, 오준수, 최현영, 이재성, 연현영, 김태원, 우철민

우수작 / (주)아름건축사사무소(신승수 · 박훈영 · 임상진)

건축면적 5,446.83㎡
연 면 적 86,134.91㎡
건 폐 율 59.95%
용 적 률 547.52%
규 모 지하 4층, 지상 20층
주차대수 150대(장애인용 9개소 포함)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
외부마감 THK24 복층유리, 고흥석 물갈기, 압출성형 콘크리트패널
설 계 팀 김수희, 신동윤

우수작 / (주)야마사키코리아건축사사무소
(홍태선 · 상대정)

건축면적 7,323.17㎡
연 면 적 96,208.10㎡
건 폐 율 57.6%
용 적 률 531.8%
규 모 지하 4층, 지상 22층
주차대수 150대
외부마감 화강석 마감, 스테인레스 스틸 패널, LOW-E 패턴컬러복층유리
설 계 팀 이영조, 구승회, 김인성, 우경선, 김정영, 김경수, 정구호, 박정은, 황준원, 홍상택, 양성원

우수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정영균 · 금두연)

건축면적 7,587.64㎡
연 면 적 96,388.32㎡
건 폐 율 59.70%
용 적 률 593.49%
규 모 지하 4층, 지상 19층
주차대수 155대
구 조 SRC+철골조
외부마감 Low-E 컬러복층유리, 패털컬러복층유리, 알루미늄 패널
설 계 팀 김 상, 조 일, 이홍주, 류무열, 구자해, 이인수, 강현일, 장우준, 김민수, 문지윤

서울시 제2공무원 수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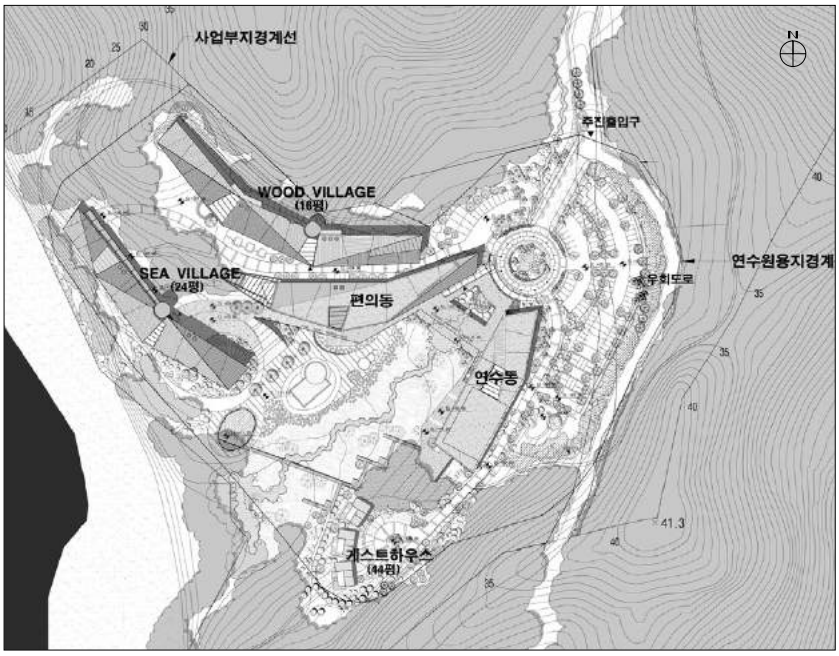
2nd Public servant Training Institute

서울시에서는 공무원의 심신수련과 교육연수시설의 확충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과 근로여건의 향상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사기와 후생복지를 증대시키고자 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1등작으로는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의 안을, 2등작으로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의 안, 3등작으로는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의 안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1등작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박 승 · 한종률) +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김상길 · 김희옥)

대지위치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1외
지역지구 농림지역, 관리지역, 보전임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용 도 연수시설
대지면적 43,241㎡
건축면적 7,412㎡
연 면 적 19,314㎡
건 폐 율 17.14%
용 적 률 33.02%
규 모 지하 2층, 지상 4층
설 계 팀 (주)삼우 : 이 봉, 김창원, 김동훈, 백은정, 노준철, 박현준, 문현오, 김창영
(주)에이텍 : 전인국, 홍만식, 류상보, 장용태

제2공무원수련원의 부지는 충남 서천의 비인만 끝 자락의 곰솔군락, 자연습지, 사구 등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연친화시설' 이라는 기본개념을 설정하고, 열림 · 순응 · 여정 · 풍경 등의 개념을 건축적 요소로 승화시켰다. 전체적으로 기존 자연군락의 보존과 지세흐름에의 순응, 통경축의 확보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배치계획을 하였고, 편의, 숙박 연수의 기능을 분동시켜 변화가 많은 수련원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다. Wood, Sea village로 테마화된 숙박동은 바다 및 주변자연과 어우러져 자연과의 공생의 의미를 더했다.



배치도

전체 평면도

배면도(연수동)

정면도(숙박동)

서울시 제2공무원 수련원
2nd Public servant Training Institute

2등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김종국)

대지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1외 2필지
지역지구 농림지역, 관리지역, 보전임지(생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43,241.00㎡
건축면적 5,421.89㎡
연 면 적 19,266.92㎡
건 폐 율 12.52%(법정20%이하)
용 적 률 22.58%(법정80%이하)
규 모 지하 3층, 지상 4층
설 계 팀 이동희, 권동욱, 변수진, 문현덕, 장창변, 양민규

이 자연에서 어떻게 Refresh할 것인가?

이번 PJT의 테마는 Blue Promenade로 설정하였다.

디자인 모티브로 3개의 장소적 특징을 들 수 있는바 첫째, 대지는 뚜렷한 3개의 축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나는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인 옥녀봉에서 대지 바로 앞 띄섬을 잇는 Ocean축과 주변의 능선에서 대지로 함께 흐르는 송림축, 진입에 따른 계곡축과 강하게 관계하려는 인위적인 Community축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 3가지 축에 다양한 자연과 사람의 움직임인 선을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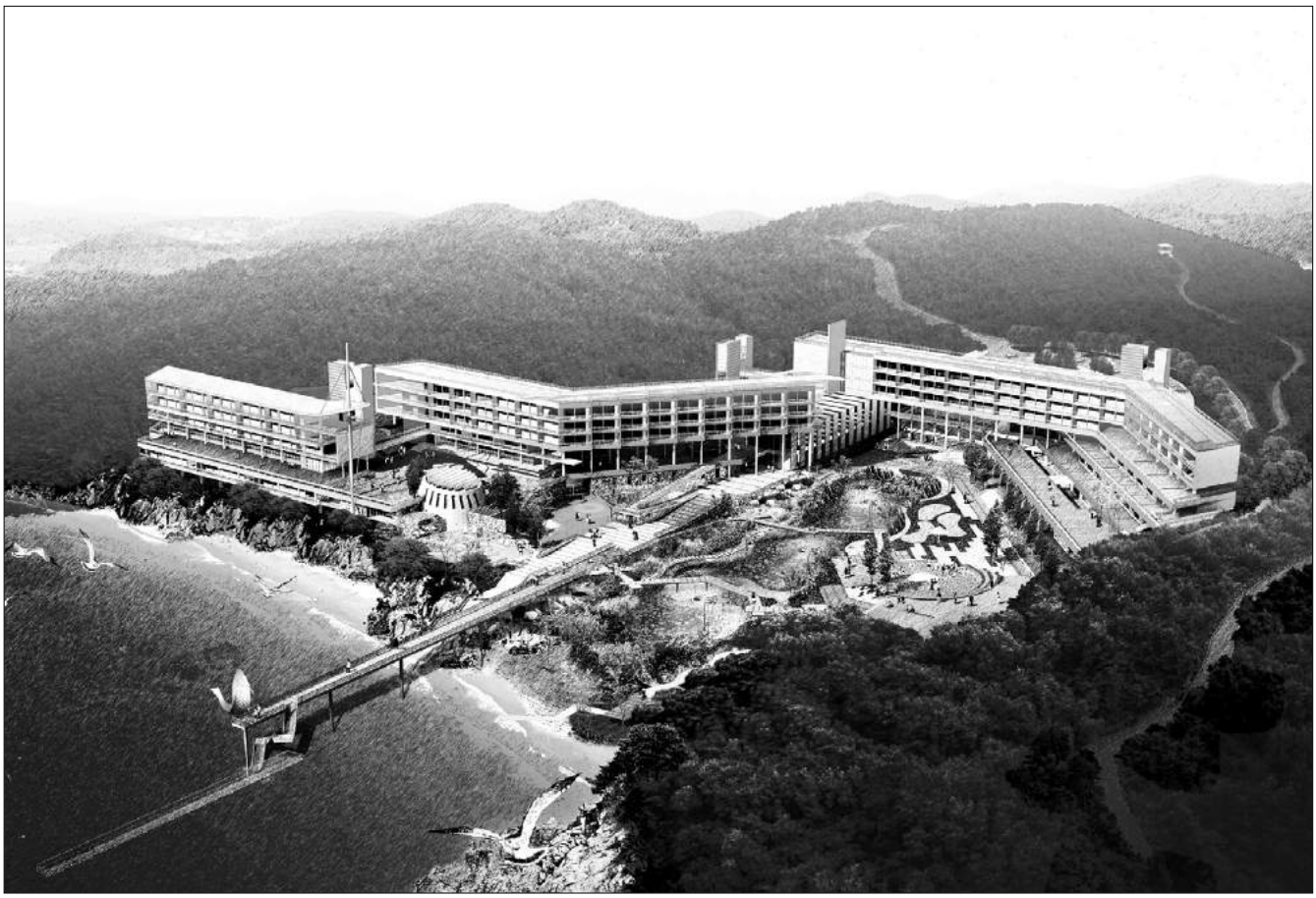
둘째, 이 장소에서 썰물시 바닷물이 빠져나간 후의 갯벌의 모습처럼 자연이 대지에 남긴 흔적인 자연의 선을 그대로 배치에 표현 하였다. 셋째, 바로 앞 바다에서 볼 수 있는 Sail을 건물의 지붕에 반영하여 장소가 갖는 상징성을 표현 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장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산책하고, 경험하는 장소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Movement, 즉 산책개념으로서 그것을 표현하였다, 사람은 움직임을 통해 가장 활발한 감각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3개의 Concept인 바다로의 산책, 송림으로의 산책, 사람들간 교류의 산책을 통한 풍경을 연출하였다. 이는 자연을 경험하는 동선으로서 대지내 3개의 산책인 오션, 송림, 사람에 의한 5감 체험으로 다양한 풍경을 연출 하는 것이다.

첫째. 바다로의산책으로 오션브릿지를 제안하였다. 그것은 바다를 상징하는 환경조형물인 오션Fish와 또한 대지 바로 앞 띄섬까지 연결될 보트의 정박장으로서 끝없는 오션으로의 설레임을 갖는 길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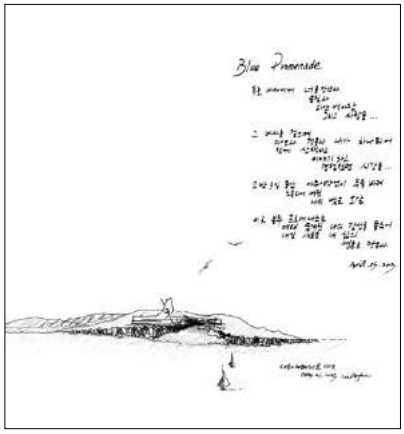
둘째, 송림으로의산책으로 기존의 송림을 대지 내 습지와 함께 연출하는 것이다. 녹색의 울창한 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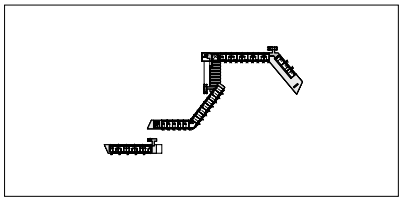


림은 파도소리와 새소리가 만드는 협주곡으로서 우리는 그 음율을 밟으며 산책하게 될 것이며, 파도소리와 함께 송림이 그 파도소리에 물들 때 그곳을 걷는 당신은 곧 그것과 함께하는 자연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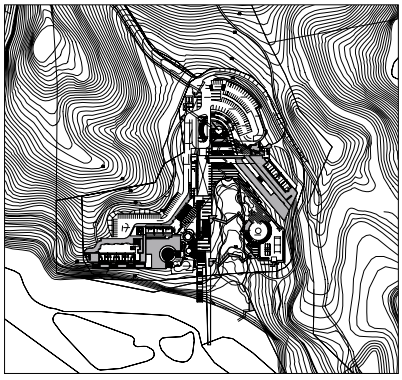
셋째, 사람들간 교류의 산책으로 움직임을 통한 자연과 다양한 내부 프로그램에서의 만남의 연출이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겐 그것은 곧 우리가 사는 의미인 삶의 존재일 것이다.

이에 따른 경관계획으로는, 자연이 그린 그림처럼 능선에 분절된 Mass가 갖는 수평적 자유로움을 강조하였고 경사지에 어울리는 테라스하우스를 계획하였으며, 특히 선셋데크 에서 이곳 바다인 장소의 상징성인 Sail을 표현하였다. 또한 외장재인 노출콘크리트와 함께 장소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하굴토시 현지에서 채취된 화강편마암을 건물 저층부에 적용하여 기존의 해안 암벽이 그대로 대지내 건물에까지 연결되어 지역성에 따른 장소성이 연출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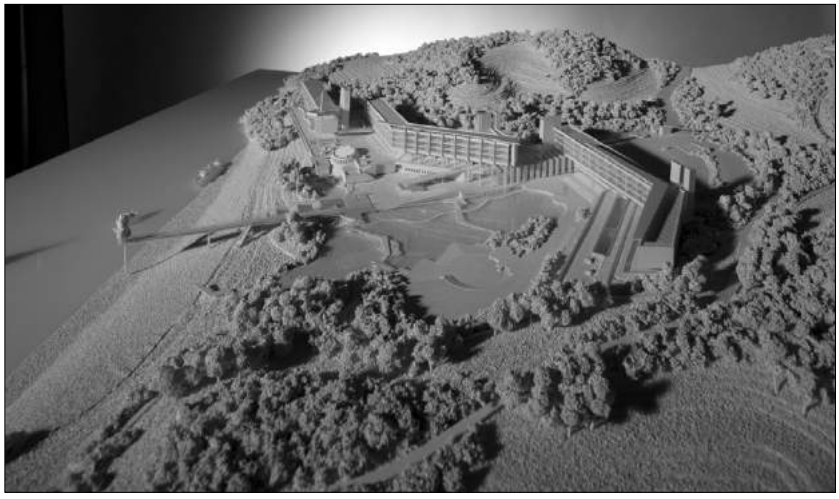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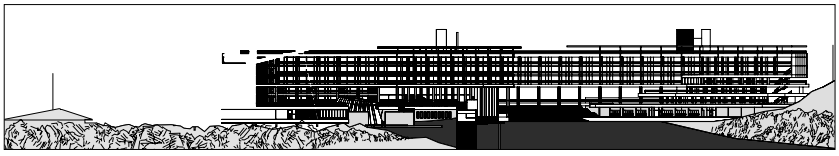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정면도

서울시 제2공무원 수련원
2nd Public servant Training Institute

3등작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안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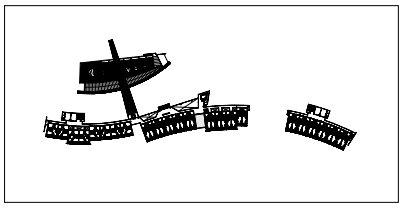
대지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1 임 외 2필지 (621답, 산99-4임)
지역지구 농림지역, 관리지역, 보전임지(생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연수원
대지면적 사업부지면적 : 99,173㎡
지구단위계획구역 : 75,223㎡
연수원용지면적 : 43,241㎡
건축면적 7,651.06㎡
연 면 적 18,916.93㎡
건 폐 율 17.69%
용 적 률 34.10%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설 계 팀 최창섭, 한준섭, 이재규, 김광식, 조대근, 정 선, 김삼수, 박 칙, 김재영, 박종윤, 김세웅, 정민희

서해 바닷가와 인접한 대지특성을 고려하여 바닷가에 근접 배치함으로써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 하였고, 모든 실에서 바다로의 조망을 확보하였으며, 객실 및 지하에 위치한 스파시설 등이 적극적인 바다와의 연계를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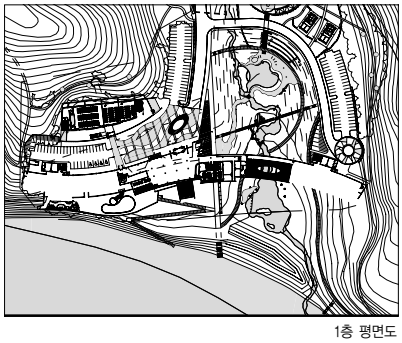
기존의 황폐화된 사구, 습지를 복원하여 이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데크를 습지상부와 측면에 계획하여 입체적인 생태학습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한 기존의 생태흐름을 유지하여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공간이 되고자 하였다.

산과 바다의 흐름을 연결 · 형상화하고자 하였으며, 바다의 수평선을 모티브로 한 입면과 프레임을 통한 서해 낙조를 담아 자연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객실 수요 증가에 대비한 24평형의 객실을 2개의 12평형, 동호회의 수요에 대비 2개의 16평형을 32평형으로 가변성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숙박 · 편의시설의 수직적 분리, 교육 · 숙박의 수평적 분리를 통하여 쾌적성 등을 확보하였고, 자연지형을 적극 활용한 친환경 단면계획으로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였다.

하수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여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을 배출하여 해양 오염방지를 고려하였으며,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대체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정면도

이서(천안방향) 화물차 휴게소

Iseo Highway Service Area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상의 일반휴게소 기능은 물론 동시에 화물차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고루 갖춰진 화물차 휴게시설의 안을 구하기 위해 현상 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의 안을 선정, 발표하였다.

당선작 /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노형래)

대지위치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181-3번지외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외
대지면적 31,405㎡
건축면적 2,497.5㎡
연 면 적 휴게소 2,313.3㎡
주유소 399.3㎡
건 폐 율 7.95% (법정 20%)
용 적 률 7.47% (법정 100%)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대수 화물차주차 22대, 직원주차 5대,
승용차 57대 (장애인주차 3대포함)
외부마감 컬러알루미늄패널, T24복층유리
설 계 팀 고종준, 주영준, 이주용, 이후공, 권영환, 김진환, 윤영준, 김영주

고속도로 휴게소는 목적지를 향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여행객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휴게소 이용의 보편적인 행태를 보면, 먼저 화장실을 가고 다시 매점에서 가볍게 식사를 하거나 간식거리를 산다. 그리고 차에 오르기 전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며 여행에 지친 심신에 생기를 불어넣고 휴게소를 나서는 길에 앞으로의 여정을 가늠하며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는다.

이서 휴게소는 이러한 일반적 이용행태를 고려해 배치와 동선을 계획하였다. 주차장은 버스 · 화물차와 일반승용차가 나뉘어져 있고 장애인은 이용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앞에 별도의 주차공간을 두었다.

휴게소 진입시 가장 인지하기 쉽고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화장실을 배치해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였고 식당 및 매점을 화장실 옆, 건물 전면에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을 높였다.

이용빈도가 높은 두 시설 사이에는 개방된 휴게 공간을 주어 휴게소 뒷편의 경관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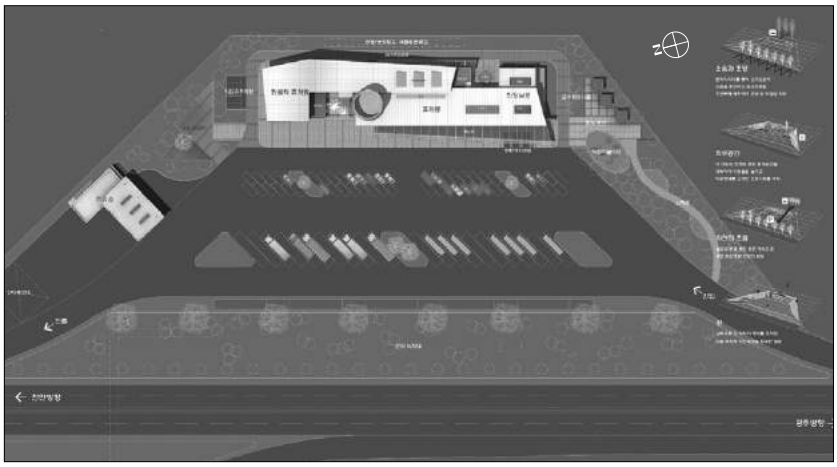
이서 휴게소의 경우는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는 짧은시간에 들렸다 가는 일반 휴게소와는 달리 '머무름'이라는 정주(停住)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배치의 중요한 개념중 하나는 이 상반된 두가지 시간적 개념, '들림'과 '머무름'의 차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재조정하고 형태적으로 반영하는것 이었다.

이 두가지 의미의 차이는 일반 여행객 – 화물차 운전자 – 휴게소 직원의 순서로 머무름의 시간이 길어졌으며, 정주의 의미가 있는 화물차 운전자와 휴게소 직원을 위한 숙박공간은 일반 여행객들과는 분리해 소음으로부터 이격시키고 조망을 고려해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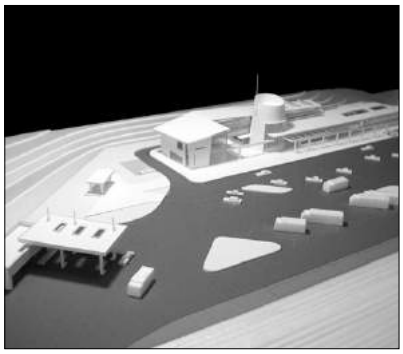
또한 매스 역시 경사지붕의 안정감 있는 형태로 디자인하여 커튼월의 활기차고 속도감이 느껴지는 휴게동과는 구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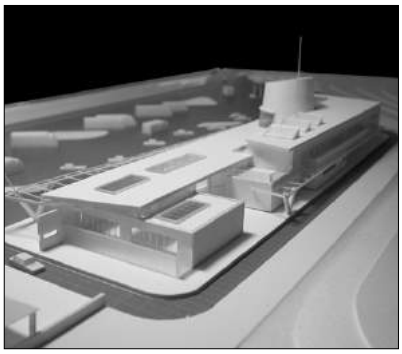
두가지 매스의 접합부에는 잘린원뿔 형태의 콘코스를 두어 매스의 조화를 고려하고 휴게소의 상징성 및 인지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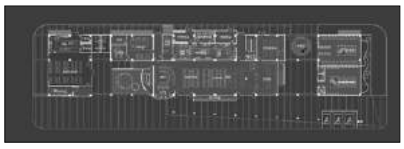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것은 24시간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화장실 및 휴게동에는 낮시간 충분한 자연 채광이 되도록 천창을 두어 쾌적한 실내환경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용객이 많은 매점 · 식당 부분의 층고만 높여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그리고 경사지붕 상부에 고효율 태양열 집열판을 두어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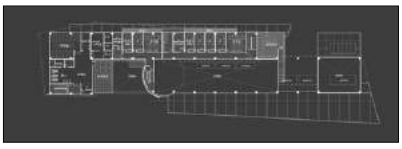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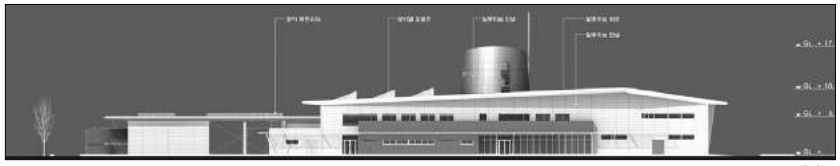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배면도

전 주 영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by Jeon Ju-yeong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련 제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W hat is happening to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ior air quality of apartments?

feature

어린시절, 소독차 따라 다니며 하얀연기 좋아라 냄새 맡고, 자동차가 지금처럼 일상화되어있지 않던 시절 배기가스 냄새 맡으며 구수하다 했던 시절이 있었다. 새집 분양 받아 이사한 후 새집냄새에 괜히 기분 으쓱해지며 기분좋아했던 시절도 있었다. 이젠 그 새집냄새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어쩐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눈이 따갑고 속이 울렁거리더라…"라고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의 증상을 경험해 보았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이사하기 위해서 무조건 새집부터 좋아 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새집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건강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는 2003년 부터 '친환경건축자재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여 바닥재, 벽지, 패널, 목재(합판), 접착제, 페인트 등에 대하여 포름알데히드(HCHO)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량 기준(표1)에 따라 현재까지 243종의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수여하였으며, 건설업체에서도 상기 인증을 활용하여 친환경 건축자재를 선정 · 시공하고 있다.

작년 한해 건설업계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련하여 관련 규제 시행 및 각종 민원, 대중매체 등에서 얻어 맞은 타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였으며 지금도 고심 중에 있다. 이는 2004년 5월 30일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 · 공포되면서 이후부터

〈표1〉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제도 (단위 : ㎎/㎡ · h)

구 분		일 반 자 재	페 인 트	접 착 제
표시(5개)	TVOC	0.10 미만	0.10 미만	0.25 미만
○○○○○	HCHO	0.03 미만	0.03 미만	0.06 미만
표시(4개)	TVOC	0.10 이상~0.20 미만	0.10 이상~0.20 미만	0.25 이상~0.50 미만
○○○○	HCHO	0.03 이상~0.05 미만	0.03 이상~0.05 미만	0.06 이상~0.12 미만
표시(3개)	TVOC	0.20 이상~0.40 미만	0.20 이상~0.40 미만	0.50 이상~1.50 미만
○○○	HCHO	0.05 이상~0.12 미만	0.05 이상~0.12 미만	0.12 이상~0.40 미만
표시(2개)	TVOC	0.40 이상~2.00 미만	0.40 이상~2.00 미만	1.50 이상~5.00 미만
○○	HCHO	0.12 이상~0.60 미만	0.12 이상~0.60 미만	0.40 이상~2.00 미만
표시(1개)	TVOC	2.00 이상~4.00 미만	2.00 이상~4.00 미만	5.00 이상~10.00 미만
○	HCHO	0.60 이상~1.25 미만	0.60 이상~1.25 미만	2.00 이상~4.00 미만

※ 자료 : 한국공기청정협회(kaca.or.kr)

이루어지는 사업승인 대상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뿐 아니라 입주 전 10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도 실내공기질을 의무적으로 측정하여 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에게 공고하고 해당 시 · 군 · 구청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지만 지하역사나 지하상가, 자동차 · 공항 터미널, 도서관, 병원, 철도역사 대합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사실 실내공기질 기준이 높은지 낮은지의 적정 여부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이는 이용규모면에 보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불특정 다수가 활용하는 시설이라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SBS에서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방송이후 작년 초부터 새집증후군 및 화학물질과민증(MSC,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 등에 관한 기사가 신문 및 인터넷 상에 거의 매일 이슈화 되면서 드디어 법이 적용되기도 전에 환경분쟁조정위에서 건설사가 새집증후군 관련 첫 배상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2004. 6. 24)하였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뒤늦게 당초 다중이용시설에만 실내공기질 기준을 제시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측정 및 결과 공고의 의무만을 부여했던 법체계에서 공동주택의 경우도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확정해서 공고하겠다고 하였다. 이미 1차 실내공기질 기준관련 연구용역 사업('05. 3)을 통하여 잠정 권고기준을 내놓은 상태지만(표2) 더 많은 실태조사를 통한 검증작업을 통하여 올해 안에는 기준을 확정 발표한다고 한다.

또한 건교부에서도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신축공동주택 등의 환기기준(안)' 설정을 위한 공청회('05. 7. 14)를 개최하였으며, 10월 법제처 심사를 통하여 12월 공포를 목표로 현재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 중에 있다. 상기 법에서는 공동주택의 환기기준과 환기설비 설치기준(제12조)을 신설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향후 신설하는 주상복합을 포함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환기시설(0.7회/h)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기 법의 개정이유는 건축자재 및 내장가구 등에서 방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급증에 따른 실내공기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 ·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환기기준과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환기기준의 적정성과 환기시설이 자연환기보다는 기계환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작년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공포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오염물질 저방출 및 분해를 유도하는 각종 코팅제 시공, 마감공정 완료후 건축재료의 인위적 노후화 작업(Bake-out)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 개선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근간으로 설정된 환기기준을 적용하여 24시 상시 환기시설을 설치할 경우 과다시설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새집문제가 발생되는 기간은 주택의 총 거주기간과 비교하여 볼 때 아주 짧은 기간이며 대도시 주변과 같이 대기오염이 문제가 되는 곳에는 당연히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고려하여야 하나 그 외의 지방과 외곽지역 등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과다 설비가 될 수 있다. 또한 환기설비 설치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덕트 내 오염물질 축적에 따른 이차 오염원 발생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일본에서도 환기기준을 0.5회/h로 설정하여 24시간 상시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2003년 7월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음 및 전기료 추가발생 등으로 가동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환기창 및 벽체 자연환기구 설치 등의 자연환기 방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연환기 방안과 기계환기가 조화된 하이브리드 환기방안이 제도에도 적극 반영되었음 하는 바람이다.

이외에 건교부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실내공기환경을 포함한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소방안전 등을 포함한 5개 분야에 대해 각각 5개 등급을 설정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시 반드시 공개하도록 시행할 예정이며 또한 향후 2~3년 뒤에는 대한주택보증 등의 보증기관이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보증료를 받고 완공된 주택의 품질을 대신 보증해주는 '주택품질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제 소비자에게도 주택의 성능등급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게 된다. 앞으로 정부와 건설관련 업계의 풀어야 할 숙제가 산재해 있는 것 같다.

웰빙의 바람이 먹는 것, 입는 것을 넘어 주거 공간에 까지 불어와 건강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감재를 친환경건축자재로 시공하였으나 종합적으로 입주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넘고 환기설비는 설치하였으나 관리 및 효율이 떨어져 활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초기투자비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음 하는 바람을 갖는다.

〈표 2〉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잠정 권고기준(안) (단위 : ㎍/㎥)

구 분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1,3,5-트리메틸벤젠	1,2,4-트리메틸벤젠	아세트알데히드	TVOC
측정결과	150-450	5-10	450-1000	50-150	45-120	30-150	5-10	10-20	20-50	2000-4000
위해성 평가결과	350	45	1300	1500	700	1500	-	-	-	-
잠정 권고기준	100-350	5-45	850-1300	360-1500	240-700	300-1500	5-10	10-20	25-50	2000-3000

※ 자료 :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준설정 공청회 (2005. 6)

김 병 선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Byeong-s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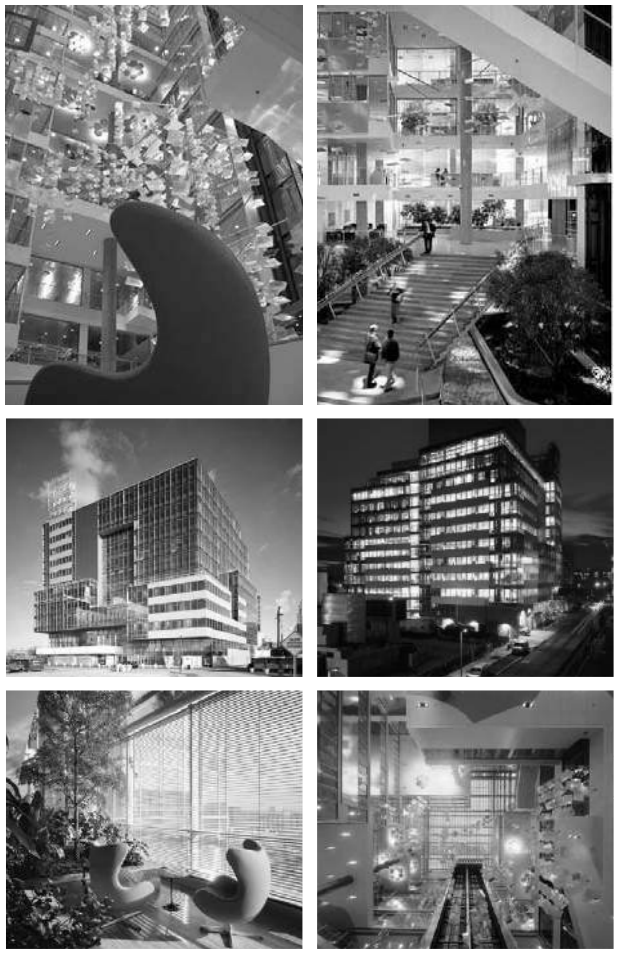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대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신조어의 탄생이 빈번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웰빙이란 단어가 각 분야에 유행처럼 따라붙더니 유비쿼터스, 로하스란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는 언론매체에서 자주 다루게 되면서 이젠 더 이상 생소하게 들리지 않게 되었는데, 로하스란 말은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 듯 하다. 하지만 로하스의 정의를 접하면 낯설지 않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로하스의 내용을 찾아 본 내용 중 가장 충실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이다.

미국의 내추럴마케팅연구소가 2000년 처음 발표한 개념인 로하스는 '건강과 지속성장성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LOHAS)의 약자로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패턴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여기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웰빙 다음의 트랜드로 로하스를 예상한다. 로하스의 문화형태를 따르는 사람들을 '로하스족'이라 하며 이 집단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에 밝고 상품광고에 현혹되지 않으며, 독자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로하스족의 소비패턴은 유기농 재배 농산물을 비롯한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태양열 전력, 대체 의약품과 요가 테이프, 환경친화적 여행상품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보다 더 나아가 기업에 자연경영 바람을 확산시키고 있다. 로하스는 지구의 환경을 해치지 않는 지속적 활용과 현명한 소비문화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질적인 소비자를 양성한다

로하스가 웰빙 다음의 트랜드라고 하나 담겨져 있는 의미는 20세기 말부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여겨져 온 지속가능성의 개념, 즉 친환경의 연장이었다. 건축분야에서도 20세기 말부터 환경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면서 green building, 친환경건축, 생태건축 등이 세계건축디자인의 화두가 되어왔었고 현재까지 하나의 커다란 맥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들 용어들은 대동소이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조금씩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고 환경을 생각하는 관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생태건축이 인간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오기만 했던 과거의 건축적 관점을 뒤바꿔 디자인행위가 자연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자성에서 시작된 이상이 강조된 반면 친환경건축은 보다 현실성 있게 이들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생태건축이 실험적 정신을 가지고 시도되고 있는 반면 green building이나 친환경건축은 보다 현실성 있는 방법으로 건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친환경건축을 확대보급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내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Genzyme Center, 미국의 LEED 인증받은 건물

서 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친환경건축물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인증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조직된 USGBC(United States Green Building Council)에서 LEED(Leadership in Energey & Environmental Design) Green Buiding Rating System을 개발하여 그린빌딩의 구성요소에 대한 명확한 분류와 표준을 제공하고 건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건물 전체적 관점에서 환경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을 시행하는데, BRE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평가방법으로 건물의 환경에 관한 질을 측정하고 가시적으로 표현하며 건축주나 설계업자, 건설업자, 거주자, 유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성과 평가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인증제도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어 2003년에는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되었고 2005년에는 공공건축물과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2006년에는 판매시설 및 호텔 등의 숙박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LEED Green Building Rating System

미국의 LEED Green Building Rating System은 크게 6개의 평가분야로 나누어져 7개의 전제조건과 34개의 평가항목을 포함하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건물을 평가하며 획득된 점수에 따라 그린빌딩의 등급을 구분하여 시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관련

〈표 1〉 LEED 2.1의 평가분류 및 배점체계

평 가 분 류	전 제 조 건	배점	비율(%)	순위
지속가능한 대지 (Sustainable Sites)	물과 공기의 질에 악영향을 주는 토양침식과 침강에 대한 관리계획	7	13.5	4
물 효율성 (Water Efficiency)	없음	2	3.8	6
에너지와 대기환경 (Energy & atmosphere)	기본적인 빌딩시스템들의 커미셔닝 계획 관련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성 확보 냉동공조 장비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CFCs 사용금지	14	26.9	2
자재와 자원 (Materials & Resources)	관련기준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시설 확보	14	26.9	2
실내공기환경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관련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IAQ 확보 비흡연자의 담배연기(ETS, Environmental Tobacco Smoke)에 대한 노출방지	15	28.8	1
혁신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Innovation & Design Process)	없음	5	9.6	5

업체는 등급과 시상내용을 그 업체의 이익창출과 수요개발을 위한 홍보에 이용하고 각종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얻는데 사용한다.

LEED Green Building Rating은 점수에 따라 4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 LEED Building 플래티넘 : 52점이상 획득
- LEED Building 골드 : 39~51점
- LEED Building 실버 : 33~38점
- LEED Building 인증 : 26~32점

인증을 받은 모든 건물들은 평가시스템의 프로그램 조정관에 의해 검토 및 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5년이 지난 후에 시설의 운용과 관리측면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재신청을 해야 한다. 건설업자와 개발업자는 LEED 인증을 받음으로써 'LEEDTM'이라는 로고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상품가치를 차별화 시킬 수 있다.

BREEAM EcoHomes 2005

영국의 BREEAM은 신축사무소 건물, 기존사무소 건물, 산업용단위 건물, 슈퍼마켓, 신축주택용으로 5가지로 나뉘며, 이 중 EcoHomes는 주택용 버전으로 신축, 개조, 리모델링 건축물을 대상으로 아파트와 복지시설 등을 평가한다. 에너지, 교통, 오염, 재료, 수자원, 토지이용과 생태학적 가치, 건강과 복지의 총 7개의 대분류체계로 건축물의 환경친화성을 평가하고 있다.

〈표 2〉 Eco●H●mes 2005의 대분류 체계 및 배점

대분류항목	대분류내 배점	가중치	비율(%)	순위
에너지(Energy)	20	1.07	21.42	1
교통(Transport)	8	1.07	8.56	7
오염(Pollution)	7	2.14	14.99	4
재료(Materials)	34	0.48	14.98	5
수자원(Water)	7	1.67	10	6
토지의 이용과 생태학적 가치 (Land use and Ecological Value)	9	1.67	15.01	3
건강과 복지(Health and Wellbeing)	8	1.83	15.04	2
총계	93		100.00	

EcoHomes 2005의 등급은 다음의 4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 Pass : 36~47.99점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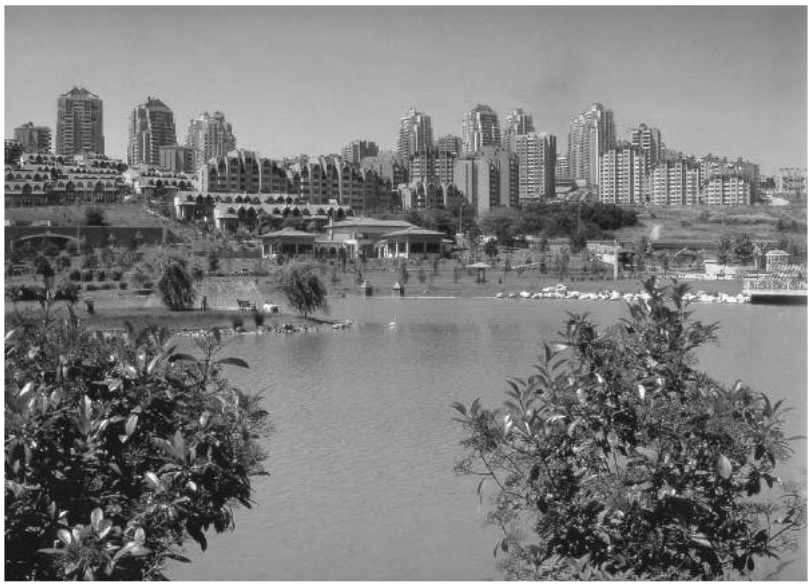
❀❀ Good : 48~59.99점 획득

❀❀❀ Very Good : 60~69.99점 획득

❀❀❀❀ Excellent : 70점 이상 획득

〈표 3〉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공동주택 인증기준 중 일부(2004년 개정)

부 문	범 주	평 가 항 목	구 분	배점
토지이용	생태적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평가항목	2
		기존 자연자원 보존율	가산항목	3
	토지이용	건폐율	평가항목	3
	인접대지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가산항목	2
	거주환경의 조성	커뮤니티 센터 계획 여부	평가항목	2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가산항목	3
교통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평가항목	2
		대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평가항목	2
		초고속 정보통신설비의 수준	가산항목	2
에너지	에너지소비	에너지 소비량	평가항목	12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이용	가산항목	3
재료 및 자원	자원 절약	라이프사이클 변화를 고려한 평면개발	평가항목	2
		공업화공법 및 환경관련 신기술 적용	평가항목	3
	폐기물 최소화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평가항목	1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평가항목	2
		음식물 쓰레기 저감	평가항목	2
	자원 재활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평가항목	2
		지정부산물 및 기타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비율	평가항목	2
		기존 건축물의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리모델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의 재사용률)	가산항목	7
		기존 건축물의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리모델링 건축물의 비구조부재의 재사용률)	가산항목	2
수자원	수순환체계 구축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평가항목	3
	수자원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평가항목	4
		우수 이용	평가항목	2
		중수도 설치	가산항목	4
환경오염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평가항목	2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평가항목	3
유지관리	체계적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가산항목	1
	효율적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평가항목	3
	효율적 세대관리	사용자 매뉴얼 제공	평가항목	3
생태환경	대지내 녹지 공간조성	연계된 녹지축	평가항목	2
		조경면적률	평가항목	5
		자연지반녹지률	평가항목	4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녹화기법 적용여부	평가항목	4
	생물서식공간 조성	수생비오톱 조성	평가항목	3
	자연자원의 활용	표토대활용률	가산항목	1
실내환경	공기환경	각종 유해물질 저함유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6
		환기 설계의 정도	평가항목	2
		입주전 실내오염물질의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작업 수행 여부	평가항목	2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사용의 억제	평가항목	1
	온열환경	각 세대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평가항목	2
	음환경	층간 경계바닥의 충격음 차단성능 수준	평가항목	4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수준	평가항목	2
		급배수소음 저감방법 채택 여부	평가항목	2
		외부소음에 대한 실내 허용소음	가산항목	2
	수질환경	건물내 급수배관의 위생성 향상	평가항목	2
	쾌적한 실내환경조성	건물 내 거주자에게 녹지공간 제공	평가항목	2
	노약자에 대한 배려	노약자, 장애자 배려의 타당성	가산항목	2
평가항목 점수합계				100
가산항목 점수합계				32
총점				132



Bahcesehir Garden City, 터어키의 친환경계획단지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우리나라의 친환경 건축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주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환경성능에 대한 인증기준을 연구하여 구체화시키고 있는 기관으로는 대한주택공사의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능률협회인증원(한국그린빌딩위원회), 대한건축학회 등을 들 수 있으며, 각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그 내용을 달리하다 2001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그린빌딩 인증제도)의 시행지침을 발표함으로써 평가기준을 단일화하였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 1월 1일부터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을 유도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점차적으로 건물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세부사항과 평가기준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국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미국과 영국의 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자원 및 원료의 사용에 대한 규제 항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 부문이나 실내환경 같은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과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겠다.

〈표 4〉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대분류 체계 및 배점

부 문		항목수	부문 내 배점(최대점수)	비율(%)	순위
토지이용 및 교통	토지이용	9	24	20.0	1
	교 통	3	6	5.0	8
에너지 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에 너 지	2	15	12.5	4
	재료/자원	5	10	8.3	6
	수 자 원	4	12	10.0	5
	환경오염	2	4	3.3	9
	유지관리	4	7	5.8	7
생태환경	생태환경	6	18	15.0	3
실내환경	실내환경	9	24	20.0	1
총계		44	120	100.0	

맺음말

친환경건축물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지도 만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공동주택에 대해선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업무용 건물의 경우 그 시행시기가 짧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조한 실정이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과 개선도 중요하지만 건설업체나 발주자에게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에 대한 메리트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인증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생애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

2006년부터 시행될 주택성능등급제도도 건설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주택성능 등급 표시제도는 소음, 구조, 환경, 성능등급을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표시하여 주택의 품질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소음등급(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 소음 등), 구조등급(가변성, 수리 용이성), 환경등급(조경, 조망권, 일조시간, 실내공기질), 생활환경등급(놀이터, 휴게실 등), 성능등급(화재, 소방성능) 등 5분야에 대해서 1~5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또한 주택품질보증제도의 도입도 시도된다고 하니 이후의 건설시장에 나타날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각계에서 바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친환경인증제도다 주택성능등급제도다 복잡한 제도 속에 혼란스러울 수 있겠으나 모두가 지향하는 바는 로하스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환경성은 이 시대에 우리가 풀어야하는 숙제임을 생활인으로서나 건축인으로서나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협회소식_ kira news

이사회 개최

■ **제12회 이사회**

2005년도 제12회 이사회가 지난 9월 13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5 전국건축사대회 수지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예산의 목간전용 승인의 건, 예산편성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건축의 날 후원금 지원 승인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회관지분에 관한 건, 토론회 개최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으며, 협의사항으로 정관개정 추진에 관한 건, 대한건축사협회 영문명칭 변경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2005 전국건축사대회 수지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2005 전국건축사대회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잉여금은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기로 함.
    ▷ 결산 잉여금 : 57,543,063원
• 제2호의안 : 예산의 목간전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연구사업비(27,000,000원) → 법제도개선사업비
    ▷ 임원업무활동비(30,000,000원) → 판공비
• 제3호의안 : 예산편성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위원장으로 이길웅 부회장을 선임키로 하고, 위원 선임은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건축의 날 후원금 지원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후원단체 : 대한건축학회
    ▷ 후원금액 : 5,000,000원
    ▷ 지출예산 : 일반회계 사업비(보조금)
• 제5호의안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 이사와 시.도건축사회 회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되, 위원장 선임과 위원회 명칭, 소위원회 구성 등은 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하고,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 제6호의안 : 회관지분에 관한 건
  – 회관지분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판결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함. 다만, 서울건축사회가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키로 함.
• 제7호의안 : 토론회 개최에 관한 건
  – 건설업체의 설계겸업과 관련한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키로 하고, 세부사항은 정책개발 T.F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 일 시 : 2005. 9. 27(화) 14시
    ▷ 장 소 : 예술의 전당 문화사랑방 대회의실
    ▷ 소요예산 : 1,000만원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개정 추진에 관한 건
  – 2006년 2월 정기총회에 상정을 목표로 정관 개정을 추진키로 하되 10월말까지는 법제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기로 함.
• 제2호 : 대한건축사협회 영문명칭 변경에 관한 건
  – 협회의 영문명칭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위원회 소식

■ **홍보 · 공제사업위원회 합동회의**

2005년도 홍보 · 공제사업위원회 합동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8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자재인증'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자재인증' 에 관한 건

– '건축자재인증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회자재인증추진위원회' 를 별도로 구성하고, 위원은 1주일 내로 이종정 위원장을 주축으로 홍보소위원회의 이규환 위원외 1명, 공제사업위원회 1~2명, 국제위원회 2명, 필요에 따라 편찬소위원회 1명, 서울건축사신문 편집위원 2명, 건축자재관련 담당교수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함.

– 2006 경향하우징페어 건축자재전시회(2006년 2월 17일~2월 22일)부터 '건축자재인증사업'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회자재인증추진위원회' 에서 전체적인 추진일정을 정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함.

■ **제7회 법제위원회**

2005년도 제7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8월 29일 오전11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계계약서 문안조정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설계계약서 문안조정에 관한 건

– 설계계약서 개정(안)의 내용을 축조심의하고, 일부 수정 · 보완하기로 함.

▷ 향후 건설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

▷ 제11조(이행지체), 제12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17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급), 제18조(저작권보호) 등

■ **제18회 정책개발 T/F팀**

2005년도 제18회 정책개발 T/F팀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8월 29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업체 설계겸업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설업체 설계겸업에 관한 건

– 건설업체 설계겸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처하기로 함.

① 항의문서 전달 : '05. 8. 30. 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의 회의내용이 설계겸업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되는 경우 항의 문서를 전달하고 즉각 퇴장

② 인터넷을 통한 정당성 홍보 및 시위 :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겸업허용을 규탄하고 관련기관(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규제기획단, 건교부 등) 및 언론에 적극 대응

③ 집회신고 : 정부과천청사 및 광화문청사에서 집회를 갖고 의사 표현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위하여 별도의 비상기구를 설치

⑤ 대학과 연계한 대처 : 전국의 건축대학(5년제) 및 건축설계전공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함

⑥ 건단연(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탈퇴 : 건설회사의 이익을 앞세우는 건설단체연합회에 우리가 참여할 이유 없음.

■ **제2회 협회발전위원회**

2005년도 제2회 협회발전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9월 1일 오후 3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개정 추진 방향에 관한 건, 건축사 업무영역 확대에 관한 건, 건축연구원 운영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정관개정 추진 방향에 관한 건

– 협회발전위원회에서는 정관개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제위원장과 협의하기로 함.

– 정관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황근욱, 김용미 위원이 담당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 업무영역 확대에 관한 건

– 건축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기로 하고, 최남수 부위원장과 위원 4인(김희곤, 김진식, 김형수, 차종필, 최운영)이 담당하기로 함.

▷ 부동산 중개시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 건축물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미관을 고려해야 하므로 설계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모색

▷ 건축물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자와 건축사가 충돌하는 영역이 있지만, 리모델링시 구조와 안전부문은 반드시 건축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과 건축물의 유지 · 관리를 건축사가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연구원 운영에 관한 건

–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후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로 하고, 김진명, 정봉원 위원이 담당하기로 함.

※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책개발 T · F팀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책개발 T · F팀과 협의하기로 함.

■ **제8회 법제위원회**

2005년도 제8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9월 8일 오후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 관한 건

– 설계계약서 개정(안)의 내용을 축조심의하고, 일부 수정 · 보완하기로 함.

▷ 제3조(용역의범위 및 품질),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 제6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제20조(외주의 제한), 제21조(분쟁조정)

▷ 제22조(통지방법), 별표(설계용역비 산출기준표) 등

• 기타 사항

– 민주노동당의 공사감리개정안 토론회와 관련하여 9월말쯤 민주노동당의 실무자와 법제위가 공사감리제도 등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갖기로 함.

– 방재성능 평가제 도입에 대한 자문회의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도 인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건축물의 품질평가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함.

2005 건축사자격시험 시행

2005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 지난 9월 11(일)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총 9개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출원자 6,515명 중에 5,555명(외국건축사 21명 포함)이 응시하여 85.26%의 응시율을 보인 이번 시험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1교시 「대지계획」이 180여분간 진행되었고, 2교시 「건축설계 I 」이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180여분간, 3교시 「건축설계II」가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80여분간 진행되었다.

합격자예정자 발표는 11월 11(금)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발표 및 전시회 개최

「달성군청사」(비주거부문),
「타워팰리스III」(주거부문) 대상 수상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2005한국건축문화대상의 수상작품이 발표됐다. 준공건축물부문 대상에는 비주거부문에 「달성군청사(설계자 : 이상림/(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현대건설(주)/화성산업(주), 건축주 : 달성군수)」가, 주거부문에 「타워팰리스III(설계자 : 박 승/(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삼성중공업주식회사, 건축주 : 삼성생명보험(주)」가 선정되어 각각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본상에 오른 대치 동부센트레빌과 배재대학교 예술관이 국무총리상을, 옥계휴게소를 비롯한 4개 작품이 우수상인 건설교통부상, 쌈지길을 포함한 15점이 특선으로서 대한건축사협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일반 및 신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 김규태, 유소래, 한재희(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동 대학원 건축공학과)씨가 공동 출품한 「커뮤니케이션-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계획안」이 금상을 차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것을 비롯해 은상 2작품, 동상 3작품, 입선 25작품 등 모두 31개 작품이 입상했다.

아울러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을, 공로상에는 장기창 건설기술혁신기획단 단장과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이 선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으며 대상 두 작품에 대통령상, 본상 두 작품에 국무총리상, 우수상 4작품에 건설교통부장관상, 특선 15작품에 대한건축사협회장·(주)서울경제신문사장상(공동명의)이 각각 수여됐다.

계획건축물부문의 금상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과 상금이, 은상과 동상, 입선작은 대한건축사협회장상과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아울러 동상이상 수상자 중 영어 인터뷰 심사를 거쳐 2명을 선발, 아카시아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전이 주어진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그동안 기성 및 예비 건축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는 물론 우리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대표 건축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인증사업 개시 안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에서는 2005년 9월 29일자로 인증규준을 공표하고 2005년 11월 14일 인증후보자격 신청 접수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인증사업을 시작했다.

인증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http://www.kaab.or.kr)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44-34
건축회관 5층, 02-521-1930,
http://www.kaab.or.kr

'2005 건축의 날' 행사 개최

전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고자 우리협회를 비롯한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가 주관한 제

1회 '2005 건축의 날' 행사가 9월 23일 오후 5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건축3단체 각 회장과 건축계의 많은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2005 건축의 날 위원회의 대회장인 이리형 대한건축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축사, 윤석우 FIKA 대표회장의 환영사와 유공자 포상이 진행됐다.

첫 건축의 날 표창을 수상한 우리협회 회원은 강행생(건축사사무소 강희), 김정식(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도무찬(신도시건축사사무소), 문준영(동인건축사사무소), 유태용(주.테제건축사사무소), 이신환(서강건축사사무소)회원이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강기세(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권오웅(주.삼보건축사사무소), 김규인(한국건축사사무소), 방철린(주.인·토종합건축사사무소), 변 용(주.원도시건축사사무소), 조성중(주.일건건축사사무소)회원이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어 '건축의 날 제정 취지'와 '건축인의 선언' 낭독 후 식후 행사인 리셉션이 호수광장에서 개최 되었다. 리셉션에서는 환영사와 축하인사와 함께 감사패 수여가 있었으며, 이철호 우리협회 회장의 건배제의 후 만찬 및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개회식에 앞서 오후 2시부터 개회식 전까지 '중앙박물관' 견학과 정림건축 관계자의 '중앙박물관 설계·시공 설명회', 이어령 박사의 '보이지 않는 건축의 시대'라는 내용의 초청강연회가 열렸고, 대강당 로비에서는 주요 건설회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작품과 서울시 신청사 공모전 당선작, 노들섬 예술센터 공모전 당선작,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등이 전시된 '건축물 작품 전시회'도 함께 개최됐다.

한편 '건축의 날'은 경복궁 창건일인 9월 25일로 제정하고, 올해는 공휴일인 관계로 이틀 빠르게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서울 용산에 신축하여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으며, 건축인의 다짐을 선포하여 건축의 공공성과 문화성에 대한 대국민홍보는 물론, 건축인 스스로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일깨우고 다짐하는 선언의 장이 되었다.

제6회 경상남도 건축대상제 작품공모

경상남도에서 건축문화자원 확보와 건축물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6회 경상남도 건축대상제」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작품공모를 한다.

- 응모작품 : 2003. 10 ~ 2005. 10월에 도내에 준공된 건축물
- 응모기간 : 2005. 10. 6 ~ 11. 5(1개월)
- 응모자격 : 도내에 건축한 응모작품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 응모방법 :
  - 시,군의 추천을 거쳐 도(주택과)에 접수
  -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와 같이 제출(첨부파일참조)
- 심사일시 : 2005. 11월중
- 심사위원 : 경상남도건축위원회 위원
- 수상발표 : 2005. 11월중 심사 후 개별통보

문의처 : 경상남도 주택과 담당자 김석춘
055-211-4563, http://www.gsnd.net

건축인 선언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민족은 자연환경에 조화되는 고유한 건축문화를 추구해 왔다. 21세기를 맞아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유구한 전통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보다 나은 삶과 인간의 활동을 지지하여 주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 모든 건축인들은 건축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건축의 날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이 다짐하고자 한다.

- 우리는 건축이 창작예술의 한 축이며, 또한 문화창달의 주역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쾌적한 환경을 건설하는 데 그 사명을 다한다.
- 우리는 건축의 국제화 흐름 속에서 고유의 지역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인간 위주의 정주지를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우리는 다차원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인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과 합심하여 최적의 설계 및 기술적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한다.
- 우리는 건축이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인간적, 친환경적, 지역적, 경제적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인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 우리는 다양한 사회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고 보다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건축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심도 깊은 학술활동과 긴밀한 산학연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우리는 건축의 세계화 속에서 건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건축교육과 인재양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건축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우리는 안전하고, 기능에 적합한 아름다운 건축의 창조자로서 전문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2005년 9월 23일 건축의 날 위원회

2005인천건축문화제 개막식 개최

지난 10월 15일 오후 2시 우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와 인천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2005인천건축문화축제의 개막식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번 건축문화축제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라는 큰 주제로 개최되어 본 전시 부문, 초대전시 부문, 공모전 전시 부문, 건축백일장 전시 부문, 이벤트 행사 부문 등으로 나뉘어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특히 인천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와 학생 공모전, 건축백일장, 사진 공모전에는 각 부문 수상작들이 전시되어 관심을 모았는데, 인천광역시 건축상에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용선 건축사)」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IASC학생건축공모전과 건축사진공모전에서는 「Being plus+(김윤겸, 정우석/인하대 대학원)」과 「부개동 삼부아파트 야경(박은미)」이 각각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건축백일장에서는 「공모전 폐품 및 폐자재를 이용한 생태 놀이 주택(김다인, 김재인, 원재연, 김태호)」이 장원을 차지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여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장 중앙홀에서 개최된다.

문의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032-437-3381~4

인천광역시 건축상 최우수상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 이용선

한국건축가협회, 대한민국 건축제 및 '세계건축의 날' 기념 에세이 공모전 개최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매년 시행해온 다양한 행사들을 한자리에 모은 행사로서 '건축, 그 변화의 시작(Transforming Through Architecture)'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며, UIA에서 1985년 지정한 '세계건축의 날'(매년 10월 첫 번째 월요일)을 기념하여 'Sharing the city' 라는 테마를 가지고 전국 에세이 공모전도 함께 개최한다.

■ 2005 대한민국건축제

2005 대한민국건축제는 '건축, 그 변화의 시작' 이라는 주제로 2005년 11월 23일(수)부터 27일(일)까지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개최된다.

행사내용은 일반기획전시의 건축대전일반공모전, 건축대전초대작가전, 한국건축가협회상 · 특별상전, 건축사진전, 서울사랑시민상 · 특별기획전(무라이오사무 사진전)이 열리며, 기업전시로는 건축자재전 · 후원회원전, 건축실무세미나가 개최된다. 아울러 컨퍼런스에서는 국제세미나 I, II와 국내세미나, Convocation Dinner, KIA총회 등이 개최되고, 이벤트로 개폐막식 및 리셉션을 비롯한 서울사랑시민상시상식, 건축아카데미의 어린이건축학교, 중학생건축봉사워크샵 등이 개최된다.

■ '세계건축의 날' 기념 에세이 공모전

'Sharing the city' 라는 테마의 전국 에세이 공모전은 출품에 자격제한 없으며 2005년 10월 3일(월)~2005년 11월 2일(수) 5시까지 A4(210x297)용지에 2p 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파일명은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된 문서(예_ 홍길동.hwp 또는 홍길동.doc)를 한국건축가협회 웹사이트(http://www.kia.or.kr)에 접수하면 된다.

사용언어는 국문이나 영문도 가능하며 2005년 11월 7일(월)~11월 9일(수) 이루어지는 심사를 거쳐 2005년 11월 14일(월) 심사결과가 발표되며, Best 5 선발하여 각 상금 20만원 및 상장을 수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축가협회 웹사이트(http://www.kia.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2006 광저우 국제 건축자재 & 장식재 박람회 및 상하이 국제 주방 & 욕실 박람회 개최

아시아 최대의 건축자재 박람회인 'CBD 2006-제8회 광저우 국제 건축자재 및 장식재 박람회(8th China International Building & Decoration Fair)'와 주방 및 욕실 분야 최대의 전문 박람회인 '2006 상하이 국제 주방 & 욕실 박람회(The 11th Kitchen & Bath China '2006)' 가 각각 중국에서 개최된다.

'2006 광저우 국제 건축자재 및 장식재 박람회'는 2006년 7월 6일부터 9일까지 약 4일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시장인 중국 광저우 국제 컨벤션 & 전시 센터(Guangzhou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7월에 개최되었던 제 7회 행사에는 총 11개 홀, 130,000sqm전시면적에 14개국 1,867업체가 참가하였고, 국내에서도 개별 및 국가관으로 약 15개 업체가 본 박람회에 참가한바 있다. 또한 관련 분야에서 총 64,541명의 전문 바이어가 본 박람회를 방문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2006 상하이 국제 주방 & 욕실 박람

회'는 오는 2006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중국 상하이의 신도시 푸동(Pudong), 상하이 신 국제 전시장(Shanghai New Int'l Expo Center)에서 개최된다.

이 박람회에는 해마다 Kohler, Hansgrohe, Roca, Grohe, Duravit, Bravat, Delta 등 유럽의 욕실, 주방분야의 선두 브랜드들이 꾸준히 참가하고 있어 욕실 및 주방분야의 신제품 소개를 위한 최적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한 이번 박람회는 '제 11회 상하이 국제 건축박람회(IBCTF '2006)', '가전기기 및 주택 테크놀러지 박람회(Domo China '2006)' 및 '공조 설비 박람회(Heating, Boiler, Air-Conditioning, Plumbing & Water China '2006)'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되어 보다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SBA Korea 02-725-4080

한양대학교 건축학 전공 석사과정 입시안내

한양대학교는 2006학년 석사과정부터 기존의 건축대학원 체제에서 일반대학원 건축학 전공으로 옮겨 신입생을 선발한다.

프로그램은 기존 건축대학원의 5학기 건축설계전공과 4학기 역사이론비평전공으로 동일하다. 아울러 건축설계전공의 경우 설계스튜디오 중심의 건축대학원 체제도 유지된다.

신입생 선발 전형은 2005년 10월 22일에 있을 예정이며 서류심사와 구두시험으로 이루어진다.

문의 : 대학원 건축학과 사무실
02-2220-0258

'한-독 건축포럼' 최초 개최

오는 10월 14일 '2005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개막에 앞서 독일건축박물관에서는 한독 건축가가 만나 양국의 건축과 도시를 조명하고 현대도시가 지녀야 할 공공성을 논의하는 '한-독 건축포럼' 학술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작가 중심의 전시 및 일방향성 발표와 달리 건축과 도시의 집합적 현상을 비교하고 토론하는 상호포럼으로 기획되었으며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시도로 주목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프랑크푸르트시 문화국과 독일건축박물관이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에 직접 제안하였고, 한독 양측이 공동기획한 최초의 건축포럼이다.

행사가 열리는 건축박물관(Deutsches Architektur Museum 일명 DAM)은 지난 20년간 유럽건축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은 공공박물관이어서 이번 행사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한독 양측에서 그간 건축과 도시의 공공성에 깊은 관심과 실천을 해온 건축가 8명이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한국측에서는 김성홍(서울시립대)이 서울의 공간구조와 도시일상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아시아적 공공성의 가능성을 논의하며, 주대관(경기대학교, 엑토건축)은 폐광촌 철암의 삶을 읽어내고 함께하는 지역공간환경운동에서 건축의 새로운 공공성을 제시한다. 김종규(한국예술종합학교, 마루건축)는 헤이리아트밸리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새로운 접목 방식과 건축가들의 집합적 도시문화운동을 소개하고, 김광수(이화여자대학교, 팀반건축)는 한국 도시 경관을 지배하는 방의 문화와 공공 공간의 위기와 거대 도시에서의 정주성을 진단한다.

독일측에서도 4인의 건축가가 이에 대응하는 주제로 갖고 발표에 나서는데, 유럽의 저명한 건축이론가 바르트 로츠마는 서구의 건축도시이론에 잠재되어 있는 회고적 공공 공간 이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미디어가 도시경관에 가져올 가능성을 발표한다. 무크 페체트는 사회주의 체제하의 집합주거를 현대화한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일상건축의 공공성을 모색하고, 니콜라우스 히르쉬는 건축가의 역할이 독자적 창조자에서 공적 조정자로 변모하는 현상을 참여 작품을 통하여 보여준다. 마리 테레스 도이취는 15년간 지속적으로 참여한 프랑크푸르트 강변 도시공간 재생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문의 :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 02-733-4303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학과개설 50주년 행사 개최

동아대학교 건축학부는 올해 학과개설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5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국제적 학부로서 성장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고자 모든 재학생, 동문가족들이 다 함께 다짐하고 기념하는 기념사업회를 개최한다.

동아대학교 건축학부는 지난해 5월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병희 동문회 회장(23회)을 건축학부 학과개설 50주년 기념사업회 대회장으로 추대하고 출판, 재정, 학술, 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50년사 발간',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동문회 명부 발간', '국제학술 심포지움', '동문 건축작품집 발간', '동문 및 재학생 건축 작품 전시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17일 대신동 꽃마을에서 승학캠프스까지 동문가족의 등반 대회와 체육대회를 필두로 하여 오는 10월 30일(일) 부터는 동문가족 체육대회(하단캠프스 대운동장),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동문의 밤(장소 : 교수회관 대강당), 동문 및 재학생 건축 작품전 등 건축학부 학과개설 50주년을 맞아 동문간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기 위한 행사도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동문찾기 운동도 함께 전개한다고 하니 평소 연락이 없던 동문은 학과 사무실 혹은 동문 사무실로 연락 바란다.

문의 : 동문 직장 및 연락처 확인
우광민 (52회) 051-200-5727
홈페이지 : http://www.duarch.org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nyang Public Art Project 2005)가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한달여간 안양유원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안양유원지 전역을 예술공원화하는 1차년도 사업으로서 한국과 외국의 건축가, 예술가, 디자이너를 초청하는 대규모 국제공공예술 프로젝트이다.

'역동적 균형(Tipping the Balance)'이라는 주제로 전시관, 전망대, 주차장, 파빌리온, 스트릿 퍼니처 등 영구 설치되는 작품 50여 점 이외에 일시적인 전시, 건축의 신경향전 등이 개최되며, 도시 계획 및 지역 개발 그리고 지역 공동체 안에서 예술이 어떻게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토론하는 국제 심포지엄도 함께 열린다.

■개막식
- 일시-2005년 11월 5일(토)
- 장소 : 안양유원지 인공폭포 광장

■본전시
- 기간 : 2005년 11월 5일(토) – 12월 15일(목)
- 장소 : 안양유원지 아트벨리
- 참여작가 : 영구 및 일시 작품, 25개국 70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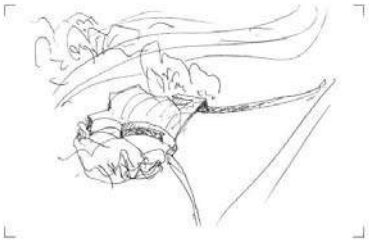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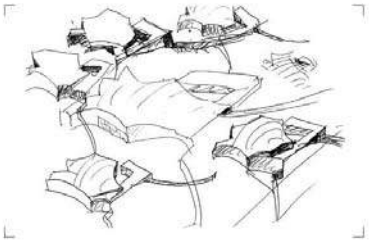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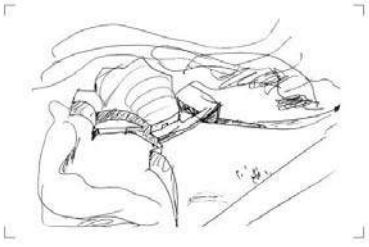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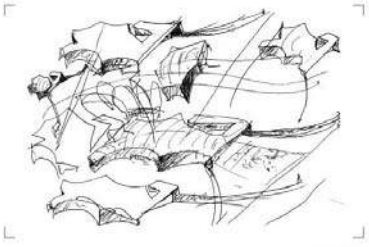
■특별전시(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 건축의 새로운 경향)
- 기간 : 2005년 10월 21일(금) – 11월 20일(일)
- 장소 : 안양문예회관 전시관 1층
- 관람시간 : 10:00 ~ 17:00

■심포지엄
- 일시 : 2005년 11월 4일(금) 10:00 ~ 18:00
- 장소 : 안양유원지 아트벨리 내 블루몬테 대강당 (별관)
- 주제 : 도시계획과 공공예술(Urban Planning and Public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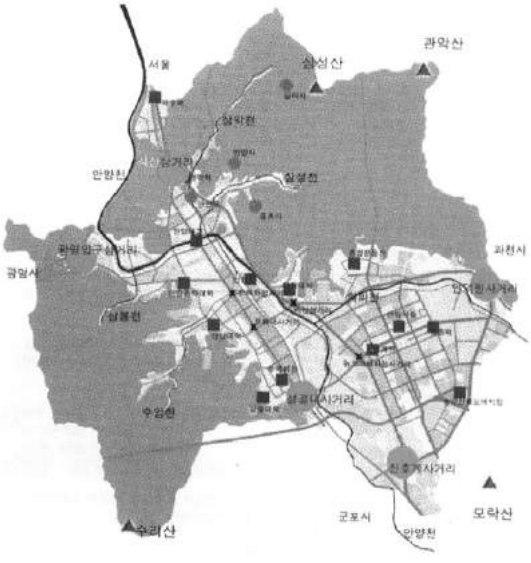
■기자간담회 및 프레스 오픈 : 2005. 11. 5 오전 11시

■참여작가
- 영구작품
  - 건축-9팀/9명/10개국
    - ▷ 알바로 시자(Alvaro Siza) / 포루투갈
    - ▷ 엠브이알디브이(MVRDV) / 네덜란드
    - ▷ 사미 린탈라(Sami Rintala) / 핀란드, 노르웨이
    - ▷ 디디에르 피우자 파우스티노(Didier Fiuza Faustino) / 프랑스, 포루투갈
    - ▷ 존 커멜링(John Kormeling) / 네덜란드
    - ▷ 헬렌 박(Helen Park) / 한국
    - ▷ 에코 프라워터(Eko Prawoto) / 인도네시아
    - ▷ 켄고 쿠마(Kengo Kuma) / 일본
    - ▷ 엘라스티코(ELASTICO) /이태리
  - 예술 : 25팀, 31명, 13 개국
  - 조경 : 4 팀, 13명 / 4개국
  - 스트릿 퍼니처 & 디자인 : 8팀, 9명 / 3개국
- 일시작품
  - 혼합 매체 : 11팀 / 5개국
  - 필름 및 비디오설치 : 4팀, 5명 / 5개국
  - 사운드 설치 : 1명 / 1개국
  - 공개 경쟁부문 당선 : 7팀, 8명 / 2개국
  - 워크숍 : 2팀 / 4개국

문의 : 031-389-5122~5,
http://apap.anyang.go.kr

알바로 시자 /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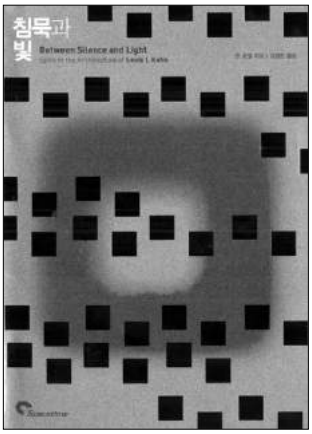
안양 아트시티 21 기본구상 계획도

신간

침묵과 빛

신간 「침묵과 빛」은 Pratt Institute의 존 로벨 교수가 '루이스 칸'의 건축관을 소개한 것을 두원공과대학 건축디자인과 김경준 교수가 편역한 책으로서 칸의 '정신을 표현하는 건축' 안내서이자 그가 깊이 빠져들었던 '존재의지'의 질서에 대한 탐문의 기록이다.

루이스 칸은 형태제공자들의 종말이 공표된 시대에 또 다른 한 명의 형태제공자였고, 방법론주의자들이 득세하던 시대에 진정한 예술가였으며, 책략가들이 판치는 시대에 번뇌하는 한 인간이었다. 칸은 건축을 통해 일차원적인 사고로 이해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음을 몸으로 확인시켜준 건축가이자 사색하는 시인임이 잘 나타나 있다.



존 로벨 지음, 김경준 편역/132쪽/ 18,000원/도서출판 시공문화사 발행 02-3147-1212

Sketch+Note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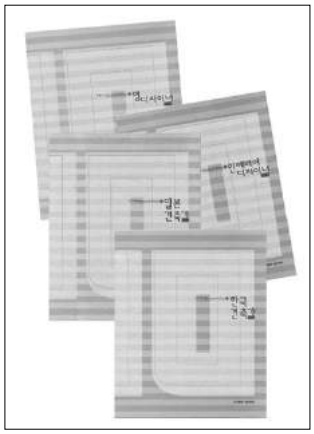
이 책들은 4권의 시리즈로 구성된 독특한 형태의 책으로서 다름 아닌 건축가들의 창조 과정에서 나오는 스케치와 메모와 함께 그들의 건축관과 일상의 기록들을 엮은 「Sketch+Notes」로 전문가와 일반인이 두루 접할 수 있는 창작에 대한 사유의 메모이다. 여기에 기록된 수백 가지의 그림과 메모들은 어느 하나도 똑같을 수 없는 개인적 기록들로, 다양한 그림과 메모들을 들추어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잠재한 창조성을 이끌어 내어 일상을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Sketch+Note1-한국건축가 100 / 한국의 현대 건축가 100인이 디자인 과정에서 기록한 스케치와 메모 수록.

Sketch+Note2-일본건축가 100 / 일본의 현대 건축가 100인이 디자인 과정에서 기록한 스케치와 메모 수록.

Sketch+Note 3-인테리어디자이너 100 / 한국 인테리어디자이너의 100가지 스케치와 메모 엮음.

Sketch+Note 4-영디자이너 100 / 국내외 주요 건축관련 공모전 수상자 및 국내외 20~30대 중심의 건축계 종사자 100인의 스케치와 메모 수록.



정흥채 펴냄/216쪽/각 권 17,500원/도서출판 에이엔씨 발행 02-538-7333(교 106)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3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9152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32-9200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736-2117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 335-13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회관신축공사 진행경과

(2005년 9월 30일 현재)

공사진행 현황

우리 협회 회관신축공사는 지하 터파기공사와 가시설 스트럿 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굴토공사에 따른 대지 북측구간(GL —8.4M)에서의 연암 도출에 따라 암 파쇄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잔토는 현재까지 총 21,200㎥가 반출되었다.

지하 터파기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고 있는 총12단의 가시설 스트럿 설치공사는 9월말 현재 북측구간의 코너스트럿(9단), 남측구간의 코너스트럿(9단), 중앙부 센터스트럿(7단) 설치공사가 완료되었다.

현재는 북측 및 남측구간의 코너스트럿(10단), 중앙부 센타스트럿(8단) 설치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회관신축공사의 공정진행은 '05. 9월말 현재 15.62%(계획 29.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토목가시설 공사는 금년 10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회관건립위원회 회의현황

'05. 9. 14일 개최된 제4회 소위원회에서는 설계자로부터 제출된 최종 설계도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마감재료의 등급조정과 부분적인 설계보완사항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05. 9. 30일 개최된 제15회 위원회에서는 회관사용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최종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원회의 검토사항을 확정하여 공사계약변경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계도서를 제공키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관 주요자재 협찬에 대해서는 추가 협찬(PVC 바닥타일, 외부바닥벽돌 등)이 결정된 자재품목을 확정하여 시공자에게 지급자재로 공급키로 하였다.

남측부(10단) 굴토작업

북측부 코너스트럿(9단) 설치

암파쇄작업

공사 전경

투시도

Q : 건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시 제출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과 관련한 사항(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에 대한 질의

A : ○ 가압류된 대지 : 동의 불필요

–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또는 그 집행으로서 소유권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용권(건축에 관한 권리)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가등기된 대지 : 동의 불필요

–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는 예고등기의 일종으로, 부동산물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의 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 · 예비적 보전수단으로서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의 사용 · 수익 ·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용권(사용에 관한 권리)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예고등기된 대지 : 동의 불필요

–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음을 추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권(건축에 관한 권리)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지 : 동의 불필요

– 근저당은 장래의 채권을 위한 담보로서 저당권의 부종성(附從性) 완화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때에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이 있더라도 변제로 소멸한 때 또는 근저당권의 실행이 종료되면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사용권(건축에 관한 권리)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압류된 대지 : 동의 필요

– 건축할 대지가 압류된 경우 민법상 사용권(건축에 관한 권리)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

○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 : 동의 필요

– 대지의 소유권자는 비록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지상권 설정으로 인하여 그 대지의 사용을 제한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

〈건설교통부 건축58550-713 ; 2001. 4. 3〉

Q :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A :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서 도로로 보는 것이며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도로에 속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건설교통부 건축58070-2350 ; 2003. 12. 19〉

※ 도로의 정의(건축법 제2조제1항 중)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법 ·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 · 공고한 도로

(자료제공 : 건교부 건축서비스팀 02-2110-8437)

이 난은 건설교통부 건축서비스팀에서 상담한 내용중에서 발췌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2005년 건축허가 현황(8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8월)			누계 (1~8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0,244	10,076	-1.6%	96,328	84,512	-12.3%
	연면적	8,729,450	8,623,106	-1.2%	73,066,357	70,882,647	-3.0%
주거용	동 수	2,978	2,798	-6.0%	32,464	24,524	-24.5%
	연면적	3,622,402	3,641,032	0.5%	27,832,968	30,640,510	10.1%
상업용	동 수	3,222	3,129	-2.9%	30,486	25,445	-16.5%
	연면적	2,176,648	2,398,026	10.2%	22,382,530	16,441,663	-26.5%
공업용	동 수	1,808	1,599	-11.6%	13,926	13,087	-6.0%
	연면적	1,279,882	859,639	-32.8%	9,856,922	8,719,124	-11.5%
문교및	동 수	683	805	17.9%	5,409	6,237	15.3%
사회용	연면적	820,234	753,492	-8.1%	5,369,426	6,233,781	16.1%
기 타	동 수	1,553	1,745	12.4%	14,043	15,219	8.4%
	연면적	830,284	970,917	16.9%	7,621,511	8,847,569	16.0%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8월)			누계 (1~8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0,244	10,076	-1.6%	96,328	84,512	-12.3%
	연면적	8,729,450	8,623,106	-1.2%	73,066,357	70,882,647	-3.0%
철 근	동 수	8,878	8,852	-0.3%	83,300	73,988	-11.2%
철골조	연면적	8,613,769	8,528,540	-1.0%	71,693,342	69,981,745	-2.4%
조적조	동 수	1,178	1,037	-12.0%	11,513	9,015	-21.7%
	연면적	93,568	78,570	-16.0%	1,082,797	746,279	-31.1%
목 조	동 수	188	185	-.6%	1,514	1,502	-0.8%
	연면적	22,133	15,861	-28.3%	289,780	153,935	-46.9%
기 타	동 수	0	2		1	7	600.0%
	연면적	0	135		438	687	56.8%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8월)			누계 (1~8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0,244	10,076	-1.6%	96,328	84,512	-12.3%
	연면적	8,729,450	8,623,106	-1.2%	73,066,357	70,882,647	-3.0%
수도권	동 수	3,486	3,180	-8.8%	32,164	26,252	-18.4%
	연면적	4,211,196	3,281,881	-22.1%	35,417,391	31,273,379	-11.7%
서 울	동 수	593	630	6.2%	5,983	4,760	-20.4%
	연면적	758,507	784,135	3.4%	8,958,533	7,379,162	-17.6%
인 천	동 수	382	298	-22.0%	3,206	2,436	-24.0%
	연면적	996,954	217,343	-78.2%	4,680,475	3,170,967	-32.3%
경기도	동 수	2,511	2,252	-10.3%	22,975	19,056	-17.1%
	연면적	2,455,735	2,280,403	-7.1%	21,778,383	20,723,250	-4.8%
지 방	동 수	6,758	6,896	2.0%	64,164	58,260	-9.2%
	연면적	4,518,254	5,341,225	18.2%	37,648,966	39,609,268	5.2%
부 산	동 수	370	379	2.4%	3,455	3,368	-2.5%
	연면적	325,491	473,591	45.5%	3,629,288	3,496,934	-3.6%
대 구	동 수	329	353	7.3%	3,819	3,158	-17.3%
	연면적	365,859	892,362	143.9%	3,425,611	4,748,241	38.6%
광 주	동 수	216	299	38.4%	2,210	2,253	1.9%
	연면적	139,945	404,320	188.9%	1,470,263	1,875,049	27.5%
대 전	동 수	315	209	-33.7%	2,325	1,856	-20.2%
	연면적	632,469	88,677	-86.0%	2,389,678	1,547,692	-35.2%
울 산	동 수	229	233	1.7%	2,538	2,232	-12.1%
	연면적	175,077	145,748	-16.8%	1,582,329	1,170,070	-26.1%
강 원	동 수	507	498	-1.8%	5,413	4,619	-14.7%
	연면적	342,150	1,147,827	235.5%	2,531,213	3,943,584	55.8%
충 북	동 수	521	711	36.5%	5,844	4,893	-16.3%
	연면적	233,926	319,081	36.4%	3,440,677	3,163,427	-8.1%
충 남	동 수	866	717	-17.2%	8,053	6,003	-25.5%
	연면적	783,434	584,766	-25.4%	6,204,321	4,724,564	-23.9%
전 북	동 수	472	507	7.4%	4,337	4,552	5.0%
	연면적	199,431	218,217	9.4%	1,673,771	2,553,726	52.6%
전 남	동 수	611	670	9.7%	5,031	5,091	1.2%
	연면적	128,802	190,920	48.2%	2,093,665	1,621,499	-22.6%
경 북	동 수	1,092	1,001	-8.3%	9,425	9,148	-2.9%
	연면적	475,670	351,029	-26.2%	3,643,942	4,612,444	26.6%
경 남	동 수	916	1,044	14.0%	9,172	9,090	-0.9%
	연면적	653,162	417,284	-36.1%	4,914,841	5,544,132	12.8%
제 주	동 수	314	275	-12.4%	2,542	1,997	-21.4%
	연면적	62,838	107,403	70.9%	649,367	607,906	-6.4%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5년 8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계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052	5,052	191	380	26	79	2	8	0	0	5,271	5,519	1,463	1,463	267	527	76	229	30	120	16	80	5	30	3	21	7	63	1,867	2,533	7	7	7,145	8,059	100.0%	100.0%
서울	1,185	1,185	54	108	14	43					1,253	1,336	862	862	166	332	42	126	20	80	7	35	2	12	2	14	5	43	1,106	1,504	6	6	2,365	2,846	33.1%	35.3%
부산	509	509	21	42	3	9	1	4			534	564	74	74	13	26	7	21	4	16	4	20	2	12					104	169			638	733	8.9%	9.1%
대구	420	420	28	56	5	15	1	4			454	495	39	39	21	42	5	15	2	8	2	10							69	114			523	609	7.3%	7.6%
인천	221	221	1	2							222	223	52	52	4	8	1	3											57	63			279	286	3.9%	3.5%
광주	202	202	2	4							204	206	34	34	10	20	2	6	1	4	1	5	1	6	1	7			50	82			254	288	3.6%	3.6%
대전	202	202	16	32	2	6					220	240	25	25	9	18			1	4							1	12	36	59			256	299	3.6%	3.7%
울산	162	162	5	10	1	3					168	175	14	14	2	4	2	6											18	24			186	199	2.6%	2.5%
경기	640	640	25	48							665	688	209	209	26	45	9	28			1	5							245	287			910	975	12.7%	12.1%
강원	155	155	4	8							159	163	20	20	4	8			1	4									25	32			184	195	2.6%	2.4%
충북	172	172	8	16							180	188	21	21	2	4	2	6			1	5					1	8	27	44			207	232	2.9%	2.9%
충남	157	157	3	6							160	163	33	33			2	6	1	4									36	43			196	206	2.7%	2.6%
전북	182	182	3	6							185	188	19	19	2	4	1	3											22	26			207	214	2.9%	2.7%
전남	125	125									125	125	10	10			1	3											11	13			136	138	1.9%	1.7%
경북	284	284	8	16	1	3					293	303	28	28	2	4	1	3											31	35	1	1	325	339	4.5%	4.2%
경남	333	333	13	26							346	359	17	17	6	12	1	3											24	32			370	391	5.2%	4.9%
제주	103	103									103	103	6	6															6	6			109	109	1.5%	1.4%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율	
합계	8,049	10	8,059	100.0%	26
서울	2,843	3	2,846	35.3%	13
부산	732	1	733	9.1%	9
대구	609	0	609	7.6%	0
인천	286	0	286	3.5%	0
광주	288	0	288	3.6%	0
대전	298	1	299	3.7%	0
울산	199	0	199	2.5%	0
경기	973	2	975	12.1%	2
강원	195	0	195	2.4%	0
충북	232	0	232	2.9%	0
충남	203	3	206	2.6%	0
전북	214	0	214	2.7%	0
전남	138	0	138	1.7%	0
경북	339	0	339	4.2%	1
경남	391	0	391	4.9%	1
제주	109	0	109	1.4%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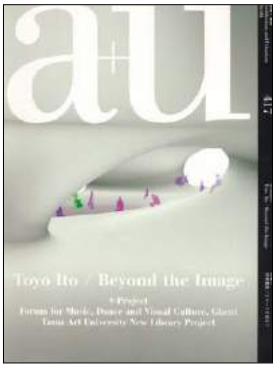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5,519	2,533	7	8,059	
비율	68.5%	31.4%	0.1%	100.0%	
사무소수	5,271	1,867	7	7,145	
비율	73.8%	26.1%	0.1%	100.0%	

a+u
Architectural Record

a+u

2005년 6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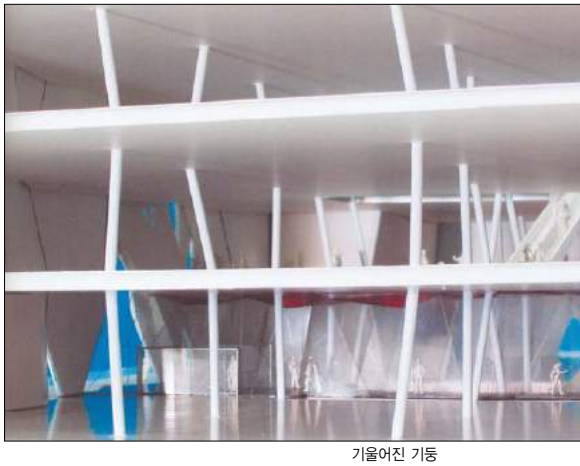
이토오 토요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무언가를 갈망하며 조바심 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다음에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그 기대 이상의 작품을 우리 눈앞에 선보여 왔다. 무엇이 이 건축가로 하여금 우리들을 매료시키게 만드는가? 프로젝트 규모에 상관없이 어느 작품이나 동일한 질과 긴장감, 즐거움과 자연스런 자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미학에 기반한 아름다움, 순수한 소박함, 완전한 지성 그리고 완성된 기술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그의 최근 계획안(S-프로젝트, 겐트시 문화포럼, 타마미술대학 신도서관)을 중심으로 그가 제안하는 새로운 발상들을 소개하고 있다.

■ S-프로젝트

기울어진 기둥

S-프로젝트는 영국 스코트랜드 중심도시에 건설될 예정인 백화점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인 이 백화점은 '퓨처시스템'이 설계한 것으로 잘 알려진 버밍햄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백화점이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백화점 디자인을 추구하게 된 것은 이 백화점 디렉터의 역할이 컸다. 이탈리아인인 그는 건축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토오 토요에게는 그가 설계한 '센다이 미디어테크'를 보고 난 후 '이와 같은 백화점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후 설계를 의뢰하게 되었다.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구받은 조건은 8m에서 10m정도의 균일한 스팬을 지닌 실내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또한 건물의 높이는 약 20m에서 25m에 불과했지만 길이는 무려 100m를 넘는 규모로서 주변의 건물에 비해 상당히 커다란 볼륨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시 당국에서는 가능한 한 주변 건물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건물의 입면을 수직으로 분절해 줄 것을 요청받은 상태였다. 백화점 건축의 특성상 각 점포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입점자의 재량에 따라 각기 따로 진행되므로 결국 건축에서 중요해지는 부분은 외관의 디자인, 다시 말해 도시의 가로와 백화점 건물간의 관계 맺기 정도였다. 여기서 이토오는 '기울어진 기둥'에 대한 컨셉을 내놓았다. 기둥의 간격은 균질하게 하면서도 기둥의 각도를 수직에서 조금씩 기울여 내부공간에 변화를 주고, 외부의 입면 또한 이와 같은 기울어짐을 그대로 반영한 기울어진 벽면들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기울어진 기둥에 의한 공간은 사무소 주변의 상업시설에서의 실물축척의 목업(mock-up)테스트를 한 결과 점포의 인테리어 디자인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울어진 기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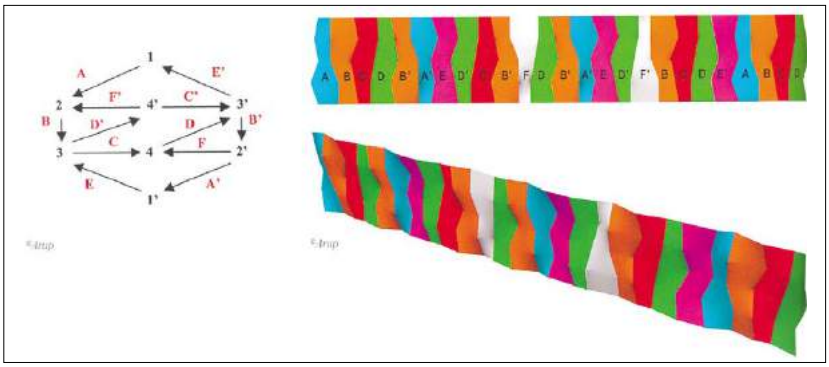
S-프로젝트


기울어진 기둥

지 않는 평범한 인테리어 디자인은 공간의 잠재력을 살리지 못한 재미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처럼 기울어진 기둥들은 백화점 점포의 인테리어를 담당한 디자이너들에게도 상당한 자극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기울어진 기둥의 실내공간은 단지 건물 구조체의 변화가 아니라 백화점 전체 공간에 신선한 시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애럽(Arup)의 세실(Cecil)과의 협동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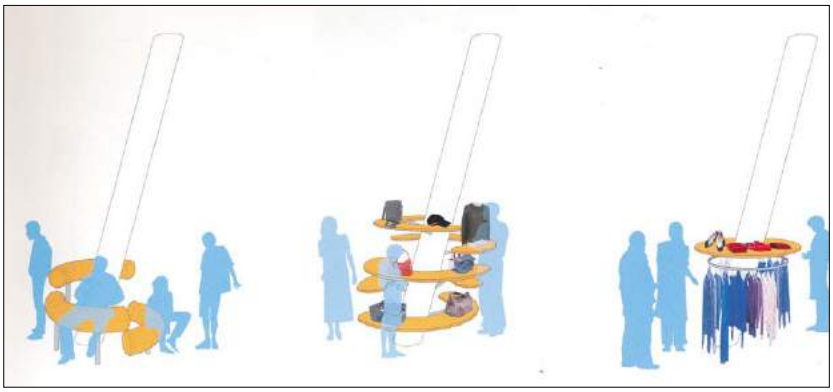
S-프로젝트는 세계적인 구조설계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애럽(Arup)의 세실 바몬드(Cecil Balmond)와의 협동작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유동적인 세계에서 사물을 고정해가는 방법'은 이토오와 세실 모두의 공통적인 관심사이지만 세실은 이토오의 설계에 대해 구조적 해결 뿐만 아니라 설계에 수학적 질서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줌으로서 설계의 완성도를 한 차원 끌어 올려주었다. 이와 같은 세실의 역할은 이토오의 사무실에서 하나의 설계안에 대해 검토를 요구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10배 이상의 실현 가능한 구조적 제안을 보내올 정도로 세실의 팀이 지닌 넘치는 창의력에 의해 가능했다. 기울어진 기둥에 대해서는 세실이 고안해낸 'ULNAS SPIRAL'이란 알로리즘을 통해 균형잡힌 구조로 완성시켰으며, 여러 조각으로 분절된 입면의 디자인도 총 6장의 패널조각을 위아래를 뒤집어가며 결합시키면 마치 각기 다 다른 조각들이 맞추어져 있는 모습이 되도록 디자인을 정리해 주었다.



'ULNAS SPIRAL'이란 알로리즘을 통한 균형잡힌 구조

불안정한 상태가 갖는 밸런스와 다이나미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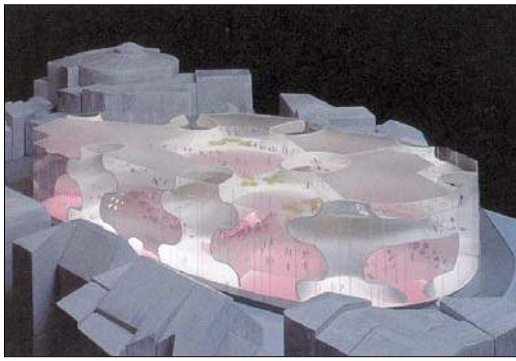
이토오는 자신의 건축을 포함한 현대건축이 갖는 다이나믹한 형태와 공간의 성격을 인간의 신체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밸런스의 차이에 비유해 설명한다. 아무런 움직임 없이 정지한 상태로 서 있는 인간의 신체는 좌우대칭이며 가장 밸런스가 좋은 상태이지만 인간의 신체가 갖는 밸런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움직임과 동시에 또 다른 밸런스가 생겨나며 그 밸런스가 차례 차례로 변화해가며 다이나믹한 운동이 가능하게 된다. 즉 움직이고 있는 신체가 지니고 있는 역동적인 밸런스가 현대 건축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라는 것이다. 불안정한 상태의 밸런스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종래의 정적인(static)인 밸런스에 비해 압도적으로 복잡한 것이지만 해석의 기술이 진보되었다는 점이 현대 건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토오도 세실과 같은 훌륭한 엔지니어들의 도움으로 그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또한 더욱 훌륭한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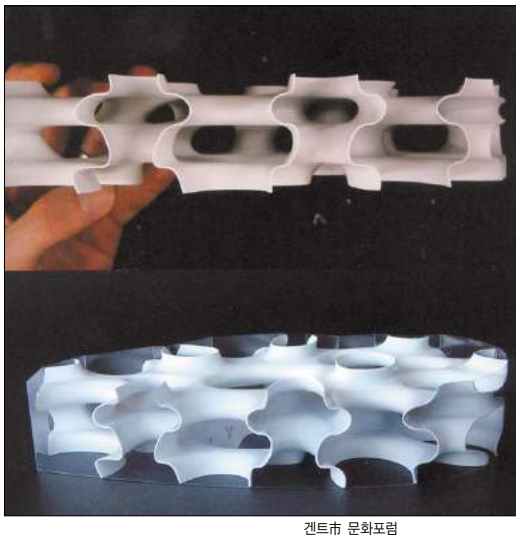


기울어진 기둥의 실내공간

■ **겐트市 문화포럼**

겐트시 문화포럼은 현상설계공모에 제출했던 작품이다. 데덜란드의 겐트시에 세워질





겐트市 문화포럼

1,800석 규모의 콘서트홀을 중심으로 한 무용과 퍼포밍아트를 위한 시설이다. 네덜란드의 건축가들과 협동작업으로 이루어진 이 콘서트홀에서는 기존의 콘서트홀 건축에 대한 고정관념을 모두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건물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비록 현상설계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마음껏 실험적인 작품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토오팀의 의지였다. 설계안은 정말로 혁신적인 것이었으며, 당선은 되지 않았다. 설계안은 기존의 틀에 짜여진 듯한 콘서트홀의 형식에서 보다 자유도가 높은 공연장 공간을 제안하고 있다. 길거리 공연이나 야외무대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을 부여하기 위해 초기의 컨셉모형은 골목길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와 같은 컨셉은 최종적으로 두 종류의 튜브가 서로 굴곡을 주고 받으며 내부와 외부공간을 번갈아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벽과 바닥, 천정의 구분이 모호하며, 구조체와 공간의 구획을 위한 구조물이 통합된 이 공간에서 공간의 한 조각 조각들은 각기 다른 인간의 활동을 담아내는 장치가 되고 있다.

■ **타마미술대학 신도서관**

타마미술대학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2004년 봄부터 설계가 시작된 것으로서 이 대학은 이토오가 객원교수를 맡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다. 새로운 도서관은 전교생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했다. 이에 이토오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만남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의 층수를 줄이고자 하였다. 최초에는 상당히 많은 대지면적을 차지하는 1층으로 된 안을 제시하였으나 학교내 녹지공간을 보전하고자 하는 학교측의 요구로 최종적으로는 2층으로 된 안으로 확정되었다. 도서관의 공간은 폭이 서로 다른 아치로 구성되어 있다. 아치라는 모티프를 사용한 것은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이 같은 이미지, 즉 근대이전의 도서관이 지니고 있던 지성, 지식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려는 의도 또한 지니고 있다. 다만 보통의 아치를 사용한 건물과 다른 점은 아치가 지탱하는 스팬의 길이가 폭넓게 변화한다는 점이다. 반복되는 주제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수법은 여기서 소개한 3개의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토오의 수법이다. S-프로젝트에서는 균질한 기둥렬에서 각도를 조금씩 비트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겐트시의 프로젝트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모델을 사용하되 그 스케일에 변화를 주었다면 타마미술대학의 프로젝트에서는 동일한 형식언어, 즉 아치에서 그 폭에 변화를 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3개의 프로젝트는 그 표현의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움직임이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는 공통의 방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작품 성향은 과거 '센다이미디어테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센다이미디어테크 이래로 이토오는 매 작품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그는 이 과정이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일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의 이토오의 활동이 기대되는 것도 그의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정신이 아직도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글/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타마미술대학 신도서관

Architectural Record

2005년 9월호

이번호는 인테리어 특집으로 꾸며졌다. 15명의 건축가가 호텔의 객실 및 각 공용공간을 각각 맡아서 디자인한 마드리드의 Puerta America Hotel과 뉴욕 공립학교 도서관 설립 프로젝트가 상세하게 다뤄졌다. 아울러 2005년 Architectural Record가 선정한 인테리어 작품이 소개되었다.

■ **15명의 건축가가 공동 작업한 마드리드 호텔**

Zaha Hadid, Rond Arad, Norman Foster, David Chipperfield 등이 이 호텔 인테리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스타 팀의 일원이다. 그 외에도 아라타 이소자키는 타니자키 준이치로의 '음예공간예찬'에서 영감을 얻어 삼나무로 만들어진 욕조와 샤워실이 딸린 '검은 방'을 디자인 하였다. Plazma Studio는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을 꿈꾸며, 홀 및 로비 공간을

15명의 건축가가 공동 작업한 마드리드 호텔

스테인리스 판으로 감싸고 판 사이사이 LED 조명을 심어 놓았다. 두드러지는 것은 Zaha Hadid의 랜드스케이프를 펼쳐놓은 듯한 광택 나는 곡면으로 감싼 객실인데, 'solid-surface'라고 불려지는 아크릴 마감으로 이루어진 곡면으로서 각 방은 백색, 검정색, 진홍색 중 한가지 색으로 이루어져있다. Chipperfield의 따뜻한 분위기의 객실은 Jean Nouvel의 객실과 대조를 보이는데, 테라코타 바닥과 푸르스름한 천장캐노피가 특징적이다. Jean Nouvel이 디자인한 객실에는 커다란 욕조가 유리 슬라이딩 벽을 사이에 두고 거실에 면해 있다. 이 유리벽에는 아라키 노부요시와 알랭 플레쉐르의 사진 작품이 전사되어 관음증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전반적인 디자인 분위기는 적극적으로 성적이면서도 유희적인 것을 어필한다. 하디드가 디자인한 각 객실문 앞에는 LED 조명이 객실 번호와 함께 'DO NOT DISTURB'라고 적힌 사인을 밝히고 있다. 또한 예로 누벨의 화장실에서 김이 오르면 유리벽의 사진이 나타난다. 작가 Jason Bruges와 공동으로 작업한 Kathryn Findlay의 복도 벽 'memory wall'에 박혀있는 땡땡이 전구들은 지나가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점멸한다. 최첨단의 인테리어와는 별개로, 아마도 이 호텔의 가장 큰 결점은 너무나 평범한 상업적인 건축물의 외관 그 자체이다.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인테리어 스타일들과는 어떤 연관성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상 1층 부분은 계획적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Jean Nouvel은 이 호텔 건축을 담당한 SGA Estudio가 단순히 파사드에 옷만 입히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마치 마드리드의 디자이너 Teresa Sapey의 주차장 슈퍼그래픽 작업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타 작가들의 인테리어 작업 덕택에, 공항과 마드리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이 호텔은 매력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진정한 목적지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로빈 후드 재단의 도서관 프로젝트

■ 로빈 후드 재단의 도서관 프로젝트

뉴욕시 교육부의 협조로 만들어진 로빈 후드 재단은 뉴욕의 공립 학교 도서관을 리노베이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도서관은 학교의 약 5%의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지만, 그것이 전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100%에 가깝다. 이 도서관 개혁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축가들은 어떤 것을 디자인하려 하기 전에 학생들과 시설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Tsao & McKwon Architect의 파트너인 Calvin Tsao는 도서관의 의미를 다시 정의 하였다. 그리고 학생이라는 특수한 그룹을 위한 시설의 의미를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정의하였다. 건축가들은 조용하고 책을 읽는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벗어나 집단적인 배움의 장으로서 이 장소를 만들었다. 아이들이 모여서 컴퓨터로 함께 배울 수도 있으며, 발표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도서관은 세계와 접속할 수 있는 미디어 센터도 되어야 한다. 공동 작업과 상호 학습은 아이들로 하여금 서로 신뢰를 키울 수 있도록 하므로 이러한 도서관은 극장이나 시청의 전통적인 중심적 장소의 특징을 띄게 될 것이다.

■ Record Interior

"수수께끼에 싸인 미스테리"라는 말처럼 Record Interior 2005에 소개된 작품들의 특징은 다중의 켜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본 센다이의 Aoba-tei 레스토랑도 그 예로서

Neil Denari의 Endeaver Talent Agency

Hotosi Abe는 스틸 캡슐과 추상화된 나무 이미지가 펀칭된 막을 삽입함으로써 무미건조한 업무용 빌딩을 변신시켰다. 그 효과는 동트는 새벽의 숲속과 같은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특징으로서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상자곽의 직각면은 곡면 뒤로 사라져서 벽은 천장, 바닥과 하나의 면으로 성형되었다. Bizarre Boutique에서 Randy Brown Architects는 종이 한 장으로 접은 종이 접기처럼 이음새 없는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Neil Denari의 Endeaver Talent Agency는 벽면과 천장이 온통 백색 페인트로 덮어 씌어졌으며, 강렬한 이미지의 그래픽이 일부 벽면에 이용되었다. 베이징의 고층 아파트먼트인 Template House에서도 Michel Saee는 바닥에서 천장까지를 체리목으로 이뤄진 감각적인 곡면벽으로 감쌌다.

(글/최원준/공학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실장)